

인천교육

2013 겨울호 Vol.49

기획특집 1

위기의 아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

디지털 신인류, 10대들의 심리 특성
통계로 보는 한국 아동 · 청소년의 생활 · 문화
소년법정에서 만난 아이들
학생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운영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성과와 과제

기획특집 2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활동

꿈과 끼가 움트는 교실의 작은 변화, 행복수업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school - to - work 프로젝트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학교 적용 방안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중등교육 적용 방향
중하위권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인천 과학우수아 지도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ch Institute



Contents

발행인칼럼

04_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주는 교육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

교육시론

06_ 한국교사의 학교생활·문화 실태와 개선 방향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박영숙

16_ 교육원리와 효과에 기반한 교과교실의 확충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기획특집 1 위기의 아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

26_ 디지털 신인류, 10대들의 심리 특성 | 강동소아정신과 원장 김영화

34_ 통계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생활·문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자

42_ 소년법정에서 만난 아이들 |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은주

48_ 학생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운영 | 동암중학교 교사 이현희

54_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성과와 과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장학사 유충열

기획특집 2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활동

64_ 꿈과 끼가 움트는 교실의 작은 변화, 행복수업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홍영일

72_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school-to-work 프로젝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한홍섭

78_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학교 적용 방안 | 부평동중학교 교장 이상복

84_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 |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장 윤성한

90_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중등교육 적용 방향 | 인천초은고등학교 수석교사 나일수

100_ 중하위권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사 정재철

106_ 인천 과학우수아 지도 현황과 과제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장호동

발행인_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

총 팔_ 기획연구평가부장 이상미

검토위원_ 교육연구사 김미경, 정현주, 조양숙

기획_ 교육연구사 심규민

편집위원_ 인천주안북초등학교 교사 심우영

인천용마초등학교 교사 김병수

연성중학교 교사 최남현

온라여자고등학교 교사 안수정

인천예일고등학교 교사 이한나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사 김일선

디자인_ (주)명우기획 032-766-7891

본지에 실린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은 에듀아이 이를 <http://ebook.edu-i.org>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

2013 겨울호 Vol.49

인천교육 발전 제언

- 112_ 인천교육 발전 방향 | 인천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가용현
116_ 인천교육에 바란다 |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박제남
120_ 사회 변화의 바람이 인재양성 방향에 주는 시사점
| 코글로닷컴 회장 이금룡
124_ 학교를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
| 만성중학교 학부모 권홍원

인천, 사람과 문화

- 128_ 꿈꾸는 섬, 선제도 | 사진가 김연웅
134_ 인천! 사람이 있다 | PHOTOSKY 교사사진동호회

이 교사가 사는 삶

- 140_ 아름다운 삶, 사제동행 인일여고 신은주선생님
| 대담 및 정리 : 옥련여자고등학교 교사 안수정

현장르뽀

- 146_ 2013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우수기관 주제탐방 연구
| 취재 :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이주형



생생, 톡톡 교육활동

- 152_ 자연에서 행복을 꿈꾸는 아이들 | 삼산유치원 교사 박미옥
158_ 이곳에 봄이 오면 | 인천서곶초등학교 교사 구유진
162_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으뜸학력 모두가 행복한 학교
| 신승중학교 교사 김경숙
168_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연학(延學) 독서 프로젝트
|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장 지혜경
172_ 한발 더 나가는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연구사 김은희
176_ 다시 찾은 배움의 시간, ‘글오름 학교’
| 계양도서관 사서7급 이연옥

참여와 어울림

- 180_ 〈시〉 관악산의 봄 | 석정중학교 교사 김도정
182_ 〈수필〉 가치있는 훈들림. 그래, 다시 일어서자!
|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문아름
185_ 〈수필〉 치유하는 연설가 교장 | 검단고등학교 교장 한승희
188_ 〈그림〉 |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이창구
191_ 〈나를 바꾼 한권의 책〉 ‘교육의 종말’과 학교교육의 가능성
| 계산고등학교 교사 김범석

〈현장메아리〉 인천교육지를 읽고
195_ 그와 함께하면… | 인천신승초등학교 교사 남유미
197_ 처음처럼 열정있는 교사를 꿈꾸게 하는 책 ‘인천교육’
| 인화여자중학교 교사 문지정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주는 교육



글_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 이 상 독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 행복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둘 걱정거리가 생겨난다. 이는 예측가능하지 못한 인생사의 속성 탓도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행복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며 살아갈지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교육활동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행복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주관적인 것이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 지 최근 행복교육을 강조하는 흐름과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았다.

첫째, 아이들이 타고난 끼를 살려 꿈을 키워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한다. 그 재능이 학교교육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발굴 육성되고, 향후 사회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경제 능력을 갖추고 또한 그를 통해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최근 자유학기제, 역량중심교육과정, 성취평가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의 교육정책도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무엇보다 정책 취지를 이해한 후 단위학교 실정

에 맞는 교육과정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과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뭔가에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몰입을 통한 체험지식의 축적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다음 단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근래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증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는 미래사회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사람들과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기 능력 즉 소통능력을 잘 길러주어 사회로 배출해야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미래행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많이 키워주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사는 아이들 모두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어야하며 또한 각자의 교육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공경험을 많이 갖게 해줄 것인가 고민해야한다. 긍정의 마음은 타인으로부터의 신뢰와 성공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며, 이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귀결하게 하는 선순환의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건강이 생애에 걸쳐 행복을 결정하는 최고 기준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생시절은 모두 건강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이 성인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기에 학교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어기면 못 참을 것 같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예컨대 식사 후 양치질, 외출 후 손 씻기,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 하나 하기, 규칙적인 식사와 잠자기 등에서부터 올바른 식습관, 건전한 스트레스 이겨내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런 활동이 왜 가치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습관화될 때까지 일회성, 전시성 활동을 탈피하여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행복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 제시한 세 가지는 교육의 본질 즉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는 전인교육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것이 갖추어진다면 최소한의 행복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바뀌는 것일진대 무척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인천교육지 49호는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하여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인천교육지 49호를 통해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제시한 인간 행복 조건 중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인가’에서 교사인 우리는 어디에 삶의 희망을 걸어야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교사의 학교생활·문화 실태와 개선 방향¹⁾

1. 교사의 학교생활·문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교직원 구성, 그리고 업무 추진 방식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 정보 기술의 도입으로 수업 방법과 교실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업무 전달 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학교 인력 구성에도 행정 실무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회계직 인력이 투입되면서 유형의 다양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떠하든 교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변화에 대해 적응할 것을 항상 요구받는다.



글_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 박 영 숙

교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교는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에는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동하면서 변화 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과 두려움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이글은 2012년 필자가 책임자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기본 연구(박영숙·전재상·황은희,『한국교사의 학교 생활·문화 개선 연구』, 연구 보고 RR 2012-04)의 주요 결과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교사 문화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에는 교사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진다. 학교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사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공유하는 정서와 행위도 달라지는 징후가 감지되면 교사 문화를 학교발전과 연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전략이 중요해진다. 교사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 문화는 학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학교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행동과 지향해 나가야 할 쪽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사 문화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교사의 학교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변화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조망하고 또한 전국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생활문화의 실태 진단, 개선 방향, 접근 전략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최근 교사 학교생활의 변화 특징

학교에서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환경은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교사들의 업무는 복잡·다양해졌고 업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의 변화로 교사들이 공감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시간에 쫓기면서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낸다는 점이다. 수업 방법 개선과 교재 협의 등을 위해 교사 협력과 소통

이 요구되지만 바쁜 일정으로 미루게 되고, 학생과 상담할 시간과 수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호소한다.

교사의 핵심 업무가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 준비인데 이러한 활동 시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영향을 주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생활의 변화 징후에 관해 교사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곤란도가 특별히 증가한 업무 유형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주는 학교환경 변화 요소에 관하여 교사들과 협의한 결과 변화 요소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되었다.

첫째, 학교에서의 정보화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처리는 편리함을 넘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배우거나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와 업무 전달이나 교사 간 소통에서도 메신저가 주 대화통로가 되어 직접적 대화가 줄어든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업무 처리 관련 업무 포털 서비스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은 공문 작성과 유통이 용이해지면서 교사 1인이 더 많은 공문을 접하고 있고, 많은 공문의 유통이 업무량 과다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공문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리 시스템의 공문 게시로 대신하고 있으나 아침 출근과 동시에 사무 분장에 따른 공문 접수는 물론 업무 관련 게시 공문도 열람해야 하는 바쁜 상황을 부담스러워 한다.

셋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교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일부 초등학교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1:9에 달할 정도로 학생 생활지도 및 교과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를 상회(2012년 5월 기준)하는 점과 영양사, 조리사, 실무사, 전산 보조, 교무 보조와 같은 학교회계직 인력이 급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들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하지만 채용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통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을 지도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학생 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을 때 야단치지 못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사의 기본 업무가 학생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한다.



다섯째, 학부모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학부모와의 관계 역시 부담스러워졌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대리 수혜자임과 동시에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되었는데 교사는 교육 제공자이면서도 교육서비스에 대한 민원 해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교사는 학생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때 이들 학부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여섯째, 실적 서열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졌다. 실적 서열화로 인해 교사들은 더 많은 실적과 상위 점수, 순위를 획득하기 위해 점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별도의 실적 관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높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일곱째,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중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5일수업제 실시 후 주중 수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생의 개별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근무 부담이 늘었다. 이와 같이 학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사들은 크고 작은 저마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교사의 학교생활·문화 실태와 바람직한 문화 조성 요구

최근 학교생활·문화의 변화에 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교생활 중 어려운 업무 유형은 무엇이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모집단의 2%인 212교로, 초등학교 118교, 중학교 63교, 고등학교 231교였다. 조사 대상 교원 수는 초등학교 1,180명, 중학교 441명, 고등학교 279명으로 총 1,900명이었다.

조사 영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교사 학교생활의 특징 및 변화에 관한 인식, 교사 문화 특성에 관한 인식, 바람직한 교사 핵심 문화 조성 요구 등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내용은 각 영역별로 10문항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교생활의 특징 및 어려움, 교사 문화 특성에 관한 인식, 바람직한 교사 핵심 문화 조성 요구,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과제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의 변화에 관한 인식

93.2%에 달하는 대다수 교사들이 최근의 학교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화에 대하여는 64.2%에 달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비율은 초등교사와 읍면지역, 교장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순으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에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업무 유형

응답자의 85.4%에 달하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최근 학교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업무 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무를 영역별로 아홉 가지 유형 즉 ① 수업 관련 업무(수업 계획·실행, 수업 방법의 다양화, 수업 교재 준비 등), ② 교육 평가 활동 관련 업무(학생 성취도 평가, 학생 성적 처리, 학생 피드백 등), ③ 학급 경영 및 학습 환경 조성 업무(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등), ④ 학생 상담, 생활 및 진로지도 업무(의사소통, 인성 등), 진로상담 등), ⑤ 학부모 상담 및 협의 업무(의사소통, 학부모회 운영 등), ⑥ 학교경영 지원 업무(의사결정 방식, 학교운영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교무 분장의 사무 등), ⑦ 전문성 신장(연수 참여, 자기 개발, 교육정보 공유 등), ⑧ 지역사회 관련 업무(지역주민과의 교류, 시설 개방 등), ⑨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업무 유형 중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인식하는 유형으로 ‘학생 상담, 생활 및 진로지도’와 같은 학생지도 관련 업무(47.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 경영 지원 업무’(32.2%)로 나타났다. 학생 지도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인성지도, 진로상담 등이 관련되고, 학교경영 지원 업무로는 의사결정 방식, 학교운영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교무 분장 사무 등이 포함된다. 이들 두 가지 업무에 대한 응답률이 79.5%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두 가지 업무를 힘든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학생 상담, 생활 및 진로지도 업무가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였다(초등학교 43.3%, 중학교 60.0%, 고등학교 43.9%). 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과 달리 읍면지역 교사들의 경우 ‘학생 상담, 생활, 진로지도’보다는 ‘학교경영지원’ 업무를 가장 힘들게 인식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경력별 분석에서는 경력 15년 이하의 교사들은 ‘학교경영지원’ 업무를 가장 힘들다고 인식하였고, 경력 16년 이상의 교사들은 ‘학생상담, 생활, 진로지도’ 업무를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별 인식의 차이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편성시 집단별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교에서 교사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면담 조사를 토대로 열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얼마나 동의하는

지 5점을 척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열 가지 유형에는 ‘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② 수업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③ 학생평가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 ④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⑤ 주당 수업시수가 많다고 생각된다, ⑥ 학생들의 상담과 생활지도가 어렵다, ⑦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상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⑧ 하루에 처리하는 공문의 양이 많은 편이다, ⑨ 동료교사와 소통이 어렵다, ⑩ 학교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곤 한다.’가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내용은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 지도 어려움(3.9점)’이었고, 다음으로 ‘수업 준비 시간 부족(3.6점), ’ 주당 수업 시수 과다(3.6점), ’ 근무 중 업무 처리 시간 부족(3.5점), ’ 학부모 대화 및 상담(3.4점), ’ 하루 공문 처리량 과다’(3.4점) 순이었다 (<표 1> 참조).

[표 1] 업무 유형별 수행 어려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평균점수
1순위 :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 지도 어려움	3.9
2순위 : 수업 준비 시간 부족	3.6
3순위 : 주당 수업 시수 과다	3.6
4순위 : 근무 중 업무 처리 시간 부족	3.5
5순위 : 학부모 대화 및 상담의 어려움	3.4
6순위 : 하루 공문 처리량 과다	3.4

자료: 박영숙 외 2인(2012), p.127.



■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

교사의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교사 면담 결과를 토대로 17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요인으로는 ① 학업성취도 향상 요구, ② 실적 중심의 서열화, ③ 교사 구성 변화(기간제 교사 등), ④ 주당 수업시수 과다, ⑤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⑥ 업무 처리 방식 변화(전산도입 등), ⑦ 공문 처리량 증가, ⑧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부재, ⑨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 ⑩ 학부모의 영향력 및 요구 증대, ⑪ 동료교사와의 갈등, ⑫ 교사 간 협력 부족, ⑬ 행정가의 리더십 부재, ⑭ 학교운영 정보 공유 부족, ⑮ 시설설비의 노후화, ⑯ 전시행정 및 면피성 업무, ⑰ 기타로 제시하고 우선순위 5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가 전체 응답률의 15.7%로 1순위로 제시되었고, 2~5순위로는 ‘실적 중심의 서열화’(11.8%), ‘공문처리량 증가’(11.4%),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다’(10.5%), ‘학업성취도 향상 요구’(9.5%)로 제시되었다. 5순위까지의 응답 결과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로 차이가 없었고, 2순위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공문처리량의 증가’가 ‘실적 중심의 서열화’보다 학교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인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실적 중심의 서열화’가 교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교급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학교생활 곤란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실적 중심의 서열화(14.7)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 (17.8)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 (15.7)
2순위	학생 인권 관련 태도 변화(12.7)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다 (13.5)	실적 중심의 서열화 (11.8)
3순위	학부모의 영향력 증대 요구 증대 (12.6)	공문 처리량 증가 (10.9)	공문 처리량 증가(11.4)
4순위	공문 처리량 증가(10.8)	실적 중심의 서열화(10.2)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다 (10.5)
5순위	학업 성취도 향상 요구(10.3)	학업 성취도 향상 요구(8.6)	학부모의 영향력 증대(8.7)

자료: 박영숙 외 2인(2012), p.121.

지역에 따라서도 특별시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학생인권관련 생활태도의 변화가 1위, 읍면지역은 실적 중심의 서열화가 1위로 나타났고, 경력별로 볼 때 경력 6~20년은 실적 중심 서열화가 1위, 21년 이상은 학생 인권관련 생활 태도 변화가 1위로 나타나 지역별, 경력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교사, 경력 21년 이상의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 관련 생활 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

교사들이 근무하면서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교내 행사 운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상담과 생활 지도가 1위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행사가 많고 교사 간 협력이 많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력별로 볼 때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행사 운영에 협력을 많이 필요로 하였으며, 경력 21년 이상은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가 동료 간 협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라고 응답하여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교 생활이 힘든 시기

학교생활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교사의 80.0%가 학기 초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집단 간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학기 초가 1위로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학기 초가 힘들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아 교사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기 초를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학기 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 교사의 문화 특성 및 대표 문화

교사 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업준비는 충실히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가 평균 4.1점으로 1위, ‘업무 수행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료들과 협력하여 처리한다.’가 평균 3.9점으로 2위,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높다’가 3.9점으로 3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한국 교사들은 수업준비의 충실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 문화로 대표할만한 특성으로는 ‘전문성’(43.6%)과 ‘안정성’(41.2%)과 ‘관행성’(31.2%), ‘협력성’(29.6%)과 ‘자율성’(26.6%), ‘온정주의’(21.2%), ‘봉사성’(21.1), ‘실적주의’(20.3%)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안정성’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이 대표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협력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관행성’이 더 부각되었다. 교사들이 강점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은 협력성, 전문성, 자율성, 참여성, 안정성 등이었고, 취약 문화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혼신, 개인주의, 관행성, 실적주의, 형식성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교직문화에 관하여 2003년에 수행한 선행 연구(박영숙·전제상,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직변화 전략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율성’의 비율은 2003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협력성’의 비율은 2003년 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교사 간 협력성을 중시하는 긍정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사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

조직의 대표 문화에는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고 지속해야 할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바람직한 교사 핵심문화 조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모든 교사가(93.2%)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열정이었고, 전문성과 사랑, 책임, 팀워크도 중시하고 있다. 이밖에 존중, 청렴, 신뢰, 혼신, 공정성도 교사들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핵심문화에 어떤 핵심 가치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과 열정을 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 교사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

(단위 : %)

순위	핵심 가치	응답률	순위	핵심 가치	응답률
1	열정	60.0	6	존중	27.6
2	전문성	52.0	7	청렴	27.2
3	사랑	48.2	8	신뢰	26.1
4	책임	41.0	9	혼신	25.6
5	팀워크	38.0	10	공정성	22.5

자료 : 박영숙외(2013), p.149.

■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요구

수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19가지로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행정 업무 간소화 및 경감’이 평균 4.6점으로 1위, ‘교사 1인당 학생 수 경감’이 4.6점으로 2위, ‘수업 지원 인력 충원’이 4.5점으로 3위로 분석되어 아직도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축소 문제와 수업 지원 인력 충원 역시 수업을 지원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4. 변하지 말아야 할 교사의 본질과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 전략

■ 변하지 말아야 할 교사의 본질

변하는 세상에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생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점과 수업은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하는 세상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하는 세상일지라도 교사들이 공유할만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사 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하는 21세기 세상은 우리의 학생이 21세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의 성장과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더 높은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고 보살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21세기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요구로 부각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사의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의식과 삶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제 구성원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학교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고, 열정과 전문성, 사랑, 책임, 팀워크 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비교적 적응력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근무 여건은 교사의 변하는 의식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사의 학교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개선 영역을 설정한 후 개선 영역 별로 정책 지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 바람직한 교사 문화 조성 전략

바람직한 교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지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교사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교사 문화의 변화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교사 문화 리더십을 증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진정 리더십 제고를 통한 교사의 이미지 변화 전략, 교사 집단을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지속적인 역량 증진이 가능하게 하는

전략, 그리고 교사 개별 코칭 지원 전략 등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들 전략의 기본 관점과 지원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문화의 변화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사 집단의 문화 특성은 2010년 초반의 연구 결과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이전에는 폐쇄성과 개인주의가 높았으나 이제는 개방성과 협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 스스로 ‘협력성’을 비롯하여 ‘전문성’, ‘자율성’, ‘참여성’, ‘안정성’을 대표적인 문화 특성으로 진단하고 있다. 교사 문화는 집단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사 집단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변화를 위해 연구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교사 문화에서는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며 협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와 소통, 협력성을 높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의 문화 리더십 증진 요구이다. 긍정적인 학교 및 교사 문화의 형성을 위해 문화 리더십 측면에서는 학교의 목적과 사명을 구체화 하고, 새로운 교직원의 사회화를 돋는 절차가 필요하다. 표준 처리 절차를 공유하고, 교사직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정의한 후 문화로서의 상징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를 반영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의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교사의 진정 리더십을 통한 이미지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진정 리더십은 윤리 리더십과 변혁 리더십에 근간을 두고 자기 자신의 핵심 가치, 정체성, 환경 설정 및 감정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추구한다. 교사의 학교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진정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교사에 대한 다양한 역할 기대와 자신의 실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긍정적 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학교에서 교사에게 바라는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훌륭한 교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굳힐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코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사례를 참고하고, 이미지 문제점과 향상시킬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코치할 수 있다. 코칭 방법으로는 목소리 및 스피치 코치, 미디어나 프레젠테이션 기술 훈련 투자, 시각적 투자, 연기 수업, 리더십 코치, 예상치 못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진정성 리더십에 기초한 이미지 개선 관점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교의 학습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촉진시키기고 학습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을 조성하며, 조직의 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고 축적하여, 조직의 목적달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조직 학습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통찰력과 지식 및 정신 모델을 통해 발생하며, 조직학습은 전체 조직이 축적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 즉 정책·전략·분명한 모델과 같은 교육적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조직의 기억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교사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 교사의 개별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에서는 교사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교직원 성장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학습 스타일의 유형을 분석하여 교사 개인의 장점을 강화시켜주는 특징을 보인다. 교사 개인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개별 코칭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코칭 전략을 수립할 때 교사의 일반적인 강점과 공통적인 스트레스 요인, 교실에서 가장 최선을 다할 때의 모습, 변화하는 기간에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수렴하여 교사의 변화 지향성을 중심으로 교사에게 적합한 맞춤형 코칭을 지원할 필요가 높다

여섯째, 구성원의 다양성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직 학습 촉진을 통해 전략적으로 집단 지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관리하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서는 세대 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특성을 반영하여 세대 간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한다. 교사 집단에서도 신규교사와 고령교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성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



교육원리와 효과에 기반한 교과교실의 확충



학교의 신개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교실화, 교과서의 디지털화 등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된다. 특히 교과교실제나 교과서의 발행 형식 등은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를 때 효과는 크고 재정의 낭비는 적다. 가령 초중등학교 교육의 위상과 핵심 기능, 교과의 통합·분화의 전개상에 따른 지도원리, 학생의 성장에 따른 지도원리 등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학교교육의 핵심기능, 교과의 지도원리, 학생의 성장이나 지도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중고’ 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무모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과교실제의 확충도 여기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장차 학생수 격감, 유휴교실 증가, 교육복지비용 폭증, 교육세 폐지안 등의 환경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과교실을 어느 정도로 신설,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는 최적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통합 미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교실이 특별교실로 필요할 수도 있고, 기본교과와 선택과목일 경우 교과교실을 추가로 필요로 하며, 진로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학교는 해당 학교가 중점적으로 개설·지원하는 진로에 맞는 핵심 교과를 위한 교과교실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교과별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기존의 특별교실 형태로 필요한 교과가 있고, 교과교실 형태로 필요한 교과도 있으며, 수업을 개선하려면 교구나 교재를 확충해야 하는 교과도 있을 것



글_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흥 후 조

이다. 기본 가정은 ‘교과교실과 같은 교육 공간은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제공 원리와 학생 지도 원리,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 수행 원리를 따를 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학교는 이에 대한 정책 및 의사결정에서 기초 연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공간과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교과교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수업용 공간, 교사용 공간, 학생용 공간 중 교실 수업 개선, 질 높은 교육활동 전개에 가장 우선시되는 공간을 순차적·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는 지역 설정,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 및 의사 결정에서 기초연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과교실제 수업 현황과 효과

필자가 참여한 한 연구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투입 맥락[수업 장소(교과교실 vs 일반교실), 시설·설비·자료의 충분한 정도 등], 운영 맥락[이동수업 실시 여부, 블록타임 운영 여부, 교수 방식(학생활동중심 vs 교사설명중심), 교실 환경, 수업 준비 등], 결과 맥락[수업에 대한 만족도, 해당 교과에 대한 자신감 등]을 변인으로

하여 교과교실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교과교실제 실시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30개교, 교과교실제 미실시 학교도 동수로 각 학교의 교사(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와 학생을 대상으로 웹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5개 교과로 한정한 이유는 기존의 예술, 체육, 기술·가정 등 특별교실을 갖춘 교과에서는 교과교실제 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에는 교사 346명, 학생 678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정책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환경 및 투입 맥락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장소에 대해서 교사들은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비율(69.7%)이 일반교실에서 수업하는 비율(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 응답에서는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에서 수업하는 비율이 37.1%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비슷한 비율로 실시되고 있었다.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수업이 일반교실에서 교과교실로 전환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교과교실제가 확장되고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영어 교과를, 고교는 국어와 사회교과를 교과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둘째, 수업 준비 충실패에서는 중고교 모두에서 교과교실제 실시학교의 교사들이 미실시학교의 교사들보다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교실제 실시학교의 교사들이 미실시학교의 교사들보다 수업준비를 충실히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수업 자료 등의 보급에서는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시설, 설비, 교구 등이 보다 더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실 환경 조성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교과교실제로 인해 교과교실 환경조성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수학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하여 수학교실다운 환경조성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운영맥락에서 교과교실제의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자.



첫째,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비율이 70.8%로써 교과교실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비율(11.3%)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중학교 영어, 고교 수학과 사회 교과를 이동수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실제 실시 학교에서 상당수의 수업이 이동수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교과교실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블록타임 운영에 대해서는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블록타임 수업 운영 비율은 높지 않았다(20.2%).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블록타임 수업 운영 비율(36.2%)은 중학교의 블록타임 수업 운영 비율(12.5%)보다 높았다. 중학교에서는 영어가 가장 높고 사회는 가장 낮았으며, 고교에서는 국어, 영어가 높은 반면 과학은 가장 낮았다. 다만 그간 조사를 참고하면 블록타임이 진도를 계속 나가되, 이동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속수업으로 더 많이 운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관찰과 실험, 실험 이후 일지 작성 등으로 단위수업시간이 더 길게 요구되는 과학보다 국어 수업 등에서 블록타임이 더 많이 진행되는 데에서도 방증된다. 셋째, 학생 활동중심과 교사 설명중심의 교수 방식에 관한 교사 응답에서 중고교 모두 교과교실제 실시학교가 미실시학교보다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학생 응답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보다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교실 수업에서 기자재나 교구의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업시간에 기자재나 교구 등이 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수학, 고교의 영어와 수학이 교과교실 수업시간에 관련 자료를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고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 실시학교의 교사들이 미실시학교의 교사들보다 질문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양자의 차이는 나지 않았다. 학생응답에서 중학교는 과학에서 고교는 5개 교과 모두에서 교과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이 일반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 참여도 측면에서는 고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모둠학습,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와 영어 교사들이 미실시학교의 교사들보다 모둠학습,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는 5개 교과 모두에서 교사 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일곱째,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해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의 수학과 사회수업에서는 수업시간에 교과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가르칠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만 교과교실제 실시학교 교사들이 미실시학교 교사들보다 교과특성에 맞게 수업하는 것에 대하여 더 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교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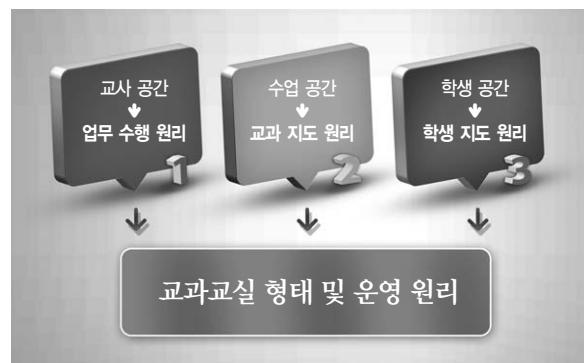
끝으로 성과 맥락에서 교과교실의 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고교의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만 교과교실제 실시학교의 교사들이 미실시학교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자부하였다. 학생 응답은 중학교 수학 교과에서, 고교생들은 5개 교과 모두에서 교과교실 학생이 일반교실 학생보다 해당 교과수업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업 만족도 측면에서 중학교의 경우 제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는 5개 교과목 전반적으로 수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과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학교 국어, 고교 수학 교과에서만 교과교실제 실시학교의 교사들이 미실시학교의 교사들보다 해당 교과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생활지도, 상담 등에서는 교과교실 실시학교와 미실시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교과수업에서 학생이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영어, 수학, 과학교과에서만, 고교는 국어, 영어, 사회에서 교과교실 학생이 일반교실 학생보다 수업이 더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학생이 해당 교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수학, 과학에서 고교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에서 교과교실 학생이 일반교실 학생보다 해당 교과를 잘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이 해당 교과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측면에서 중학교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고교는 수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 핵심인 교과 수업 공간, 이를 주도하는 교사 업무 및 생활공간,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공간을 어떻게 교육 시설답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달리 표현하면,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교과교실제는 교과 수업 지도원리,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 원리와 밀접하다. 즉 학생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과의 발달(분화)단계에 맞추어서 교실의 최적 형태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넘치지도 않으며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않는 적정 상태를 추구함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은 과학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공간과 다르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공간은 대학생을 위한 그것과 다르다. 역으로 시설공간을 어떻게 설계·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활동들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각종 교육원리를 고려한 교과교실의 최적 형태 안출을 위한 기본 개념도

2. 교과교실제의 확충에 대한 정책 제안

교과교실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의 문제이고, 교육시설은 교육의 핵심요소인 교사와 학생,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돋는 교육과정 및 수업과 밀접하다. 즉 교육과정 운영

1) 업무 수행 원리 기반 – 교사 공간의 최적화

업무 수행 원리는 교사 공간과 관련이 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전체 교무실에 함께 모여 있던 교사들이 각 교과 교사연구실로 흩어지고, 학생들은 학급교실에 있다가 홈베이스, 휴게 공간 등으로 흩어지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교사들이 전체 교무실에서 각종 공

문처리, 학교경영지원 등을 수행했으나, 교과교실제는 교감과 일부 부장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이 교사연구실로 들어가거나 학생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과수업지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의 생활 지도를 강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전문화가 교과교실제의 핵심인 것이다. 교사 공간은 교무실, 교무지원센터, 학년 교무실, 교사 연구실의 유무에 따라서, 또한 이를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혼합하여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4가지의 교사 업무 공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지원센터와 교과교사연구실이 확보되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가 용이하도록 학년 교무실이 마련되면 좋겠으나 아직 교과교실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므로 학교 형편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교사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 교사 업무 공간 유형 분류

유형	교사업무공간	교무실	교무지원센터	학년교무실	교사연구실
1	전체 교무실	●			
2	교무지원센터 + 학년교무실		●	●	
3	교무지원센터 + 교사연구실		●		●
4	교무지원센터 + 학년교무실 + 교사연구실		●	●	●

만약, 학급수가 적어 교과별 교사 수가 적은 경우는 유사계열 교과의 교사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도 고려하고, 학급수가 대규모여서 교과별 교사수가 많은 경우(영어, 국어, 수학 등)는 2개의 연구실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한다. 문제는 교과 교실에 상주하는 교사와 학급 교실에 더 긴 시간을 있어야 하는 교사 활동 사이의 조화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자기 교과 교실 따로, 교과별 교무실 따로, 학급 교실이 따로 있는 경우 이런 조화는 더욱 필요하다. 활동 동선을 고려한 구역화(zoning)는 그래서 필요하다. 아울러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각 교과별 시간 강사도 같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과 지도 원리 기반 – 시간 운영 · 수업 방법의 최적화

교과교실제는 기존의 교사가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학생이 이동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들어난 학생의 이동횟수를 줄여주어 피곤함을 덜어주고, 학생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소속감과 안녕감을 느끼며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 휴게공간을 강화하고 담임과의 계속적인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교실의 효율적인 배치, 학생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업시간표의 마련(블럭타임, 연속수업 등), 교과내용에 따른 수업시간 길이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블록타임제는 교과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다. 수업방법에 변화가 없는 연속수업 등은 교과교실제와 무관하고 단지 이동횟수를 줄이는 것에 머무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블록타임에 알맞은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집중이수는 전학기에 걸쳐 분산 수업하던 것을 몇 개의 학기로 집중하여 수업하는 것이므로 학기당 수업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주로 블록타임과 같이 운영된다. 중학교 선택과목처럼 1학기만 수업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교과목들은 다른 교과목들과 학기마다 교체하여 교실을 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집중이수는 교과교실을 보다 여유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수준별 수업은 이동 수업이라는 점에서 이미 교과교실제와 매우 친화성이 높은 제도이다. 그러나, 진로별로 할 것을 수준별로 하는 경우 수업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과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과내용과 수업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수준별 수업의关键인 것이다.

한편, 교과교실의 모양은 기존의 직사각형에서 현재의 크기보다 더 큰 정사각형 교실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크기도 대, 중, 소 등 여러 가지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의 지적 학습이나 경쟁력의 향상보다는 학생들 간의 집단적·사회적 상호작용, 인간관계 형성과 그들의 정서와 건강 및 사회성을 강조하는 협동학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교과 지도 원리를 고려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생 지도 원리 기반 – 학교급별 최적화

학생 지도 원리는 학생 발달 단계의 문제이고, 발달 단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급의 교육과 관계된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보면, 중학교와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문제로써 이들 학교급은 초등과 다르고 대학과도 다르며, 고교는 중학교와도 학교 운영 원리나 교육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최적의 효과와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실의 형태나 그 운영(제공) 형태도 달라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특성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포함하며, 이것은 곧 교육과정 운영 원리를 담고 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양식도 달라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교급별 교육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설(교과교실)의 적절한 형태

구 분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의 목적	보호와 양육	기초 교육	기본 교육	진학 및 직업 교육	전문 직업교육
교육과정(교과발달)	미분화	통합 및 분화	기본 교과 중심 + 분화된 선택과목	세분화 (진로별 진학 과정과 직업 학과)	전문화
수업의 특징	놀이와 활동	활동, 경험	개념, 원리	이론과 실제	강의, 실험/실습/실기
교수자의 주역할	보호자로서 담임	담임과 일부 고교전담	담임=교과담임	교과담임 > 담임	강좌별 전담교수 및 연구
학생	유아기 보호	아동기 담임에 의한 기초 생활 지도	청소년 전기 담임의 생활지도와 교과담임의 수업지도	청소년후기 (준성인기) 교과담임의 수업지도	청소년후기 (성인기) 교수의 강의, 지도교수제
교실공간	반별 교실 공동활동공간 교사공동공간	학급 교실과 특별교실 교실내 교사공간 학년별 교무실	학급교실, 특별교실 수준별 수업 교실 학년별 교무실 교과별 교무실 학급교실과 사물함	교과교실 교과별 교무실 진로지도실 학생용 별도 공간 (사물함)	이론 강의실과 실험실, 세미나실, 연구실

3. 고교 중심의 교과교실의 확충

위에 소개한 조사연구결과나 교육의 각종 원리에 비추면, 중학교는 교과교실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고교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 교육과정의 발달 단계,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과교실이 적절히 제공될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급 별 교육목적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보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집단별로 다른 진로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에 따라 교과교실은 달라야 한다. 또한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를 얼마나 문화, 세분화, 전문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배려를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 등의 발생 빈도나 강도를 보더라도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어떤 학교급 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경향을 보이므로, 중학교 시기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연장되어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에 의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학생 생활 인성 지도 등에 대한 담임교사의 밀착 지도가 교과 수업 지도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학교 교사들은 교과 수업 지도를 초등학교보다는 더 비중 있게 하되, 학생 생활 인성 진로 지도도 이에 못지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고교는 진로별 교육기로서 교과의 세분화 정도도 높고, 학생들은 준성인기로서 자신의 진로 결정 및 이에 대한 준비 부담이 높아진다. 즉 중학교에 비해 질풍노도의 혼란을 덜 겪고 직업이든 진학이든 진로가 결정되면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과 수업 지도나 진로 지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준성인기가 되어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 자기주도성, 독립성이 높아져 교사의 학생 생활 및 행동 지도에 대한 부담이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가 학급교실과 특별교실로 꾸려간다면, 중학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해지는 영어, 수학 등 수준별 분반 이동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이 더 제공되어야 하

며, 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담임교사에 의한 밀착 지도와 학생 간 소속감·안정감·유대감을 제공하는 학급에서의 학습과 생활 형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교는 진로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과 수업 지도가 중학교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심화된 형태로 제공되므로, 학생에 대한 지도도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과 준비 지도로 초점이 옮겨가서 담임교사의 전통적인 역할과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고교, 특히 진학계 고교는 중학교보다 교과 교실이 더 발달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특성고나 대학보다는 덜 전문적이어야 된다. 다시 교과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실험과 관찰을 하는 과학과, 조사 및 집단 토론행동을 하는 사회과, 수준별 분반 이동 수업을 하는 영어과는 교과교실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과교실은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특별교실에 수준별 이동수업 교실을 더하여 교과교실을 운영하여 전통적인 학급 담임 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비해 고교는 특별교실, 수준별 분반 이동 수업 교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도 진로에 따라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모든” 교과에서 교과교실이 필요하다. 고교는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겠지만 교과교실을 만들어 제공함에 있어 중학교보다는 교과교실이 더 필요한 학교급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학교급에 따라 학생 공간, 교사 공간, 수업 공간의 차이가 나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와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특성화고교가 개설하는 전공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학교별로 시설을 달리하듯이, 향후 진학계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면 지역내 학교간에 역할 분담과 협력하여 개설하는 계열이나 과정이 다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에 모든 시설을 고루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이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시설도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모든 학교에 모든 시설을 고교 수준에서 교과 특성에 맞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학교간에 교육과정 개설과 이에 따른 시설과 설비도 역할분담을 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을 갖추는 길이 될 것이다.

학교는 학원(學園)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학습, 교제, 휴식하는데 위안이 되는 장소로 꾸며져야 한다. 수목이 울창하고 연못이 있고 물이 흐르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을 단순히 수용하는 공간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수업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등을 적정화하여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엉뚱한 곳에 과잉투자하기 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및 학교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교실제는 학교 시설을 선진화하는 첫걸음이다.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교육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존듀이

SPECIAL
PROJECT

기획특집 1

위기의 아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



◆ 디지털 신인류, 10대들의 심리 특성

강동소아정신과 원장 김영화

◆ 통계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생활·문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지

◆ 소년법정에서 만난 아이들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은주

◆ 학생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운영

동암중학교 교사 이현희

◆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성과와 과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장학사 유충열

디지털 신인류 10대들의 심리 특성

십대들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제멋대로이다. 10대들은 매 순간 크고 작은 모험과 마주치며 이따금씩 영문 모를 선택을 한다.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고속 질주를 즐기거나, 귀와 몸 곳곳에 구멍을 뚫고,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걱정되고 분통터지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글_ 강동소아정신과 원장 | 김영화



뇌과학이 십대들의 뇌를 들여다 보다.

최근 뇌 영상 촬영 장치가 개발되면서 연구원들은 10대의 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뇌의 물리적 발달과 활동 양상을 추적했다. 그 결과 10대들의 이상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다시 말해 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10대들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성인으로 제대로 자라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뇌의 성숙 과정은 청소년기 내내 지속된다. 12세에서 25세 사이에 대대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10대들이 어른들과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뇌가 대대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뇌 조직과 신경망이 향상되고, 더 빠르고 정교한 기관이 되기 위해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뇌 상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의 열 가지 상식을 기억해 두자.

10대의 뇌에 대한 상식 10가지

1. 10대의 뇌는 어른에 비해 즐거운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 쉽게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2. 10대의 학업성취나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자는 부모이며, 특히 어머니이다.
3. 자극에 예민하며 특히 술, 담배, 마약은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4. 10대의 뇌는 학습을 통해 많이 쓸수록 더욱 정교하게 발달한다.
5.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꼭 필요하다.
6. 10대의 뇌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들 수 있다. 이때는 부모와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
7. 즐거운 기분은 뇌에 빨리 전달되며 분노를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8. 양쪽 손을 모두 쓰는 10대는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잘 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다.
9.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10대가 더 긍정적이고 성공에 대한 동기도 높아진다.
10. 10대의 뇌는 부모의 얼굴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쉽게 오해한다.
따라서 10대 자녀와 대화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청소년기

우리는 흔히 12세부터 18세 사이에 있는 10대들을 청소년으로 통칭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세부터 25세까지를 청소년이라 말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대학교, 대학원, 어학연수 등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도 자연히 길어진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1990년대에 처음으로 10대를 대상으로 청소년 뇌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을 촬영한 결과 인간의 뇌는 정확하게 12세에서 25세 사이에 대대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는 뇌가 대대적으로 변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뇌 조직과 신경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후기 청소년의 뇌에는 천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이 천억 개의 뉴런은 다시 천조에 달하는 연결들을 만들어 낸다. 상상해 보라. 천조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망보다 더 많은 수다. 단 한 살짜리 아이의 뇌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연결을 만드는데 반해 10대의 뇌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 뉴런을 연결한다. 전두엽이 뇌에서 주도권을 잡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뇌는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청소년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세포 연결의 15% 정도를 가지치기로 잘라낸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하루는 어른스러운 말을 하다가도 다음날은 그 생각을 완전히 잊고 다시 애처럼 구는 것은 뇌 세포의 변화 때문이다. 이 과정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한다. 이로써 뇌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은 차츰 얇아지게 되는데 효율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대뇌피질은 의식적이고 복합적인 사고 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뇌의 기관이니, 뇌가 효율성을 높이는 동안 깊이 있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러한 변화가 다 합해지면서 뇌는 전체적으로 더 빠르고 정교한 기관이 된다.

10대의 뇌가 가진 특징

-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하기 쉽다.
- 충동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잘 한다.
- 사람과 사물을 잘못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다.
-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요란한 복장을 입거나
연예인을 쫓아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청소년들은 기존 세대와 달리 어떤 생각들을 하며 자랄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뇌의 구조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최근 아이들은 상당히 낯선 모양새를 하고 거리를 누빈다. 최신 유행하는 스마트폰이나 MP3와 헤드폰을 들고 새로 나온 비디오 게임과 팝 음악을 생각하며 거리를 활보한다. 머릿속에는 메신저와 만화, 블로그, 최신 전자기기 등 여타의 현대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리 새로운 문화나 기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그리고 부모나 가족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완전한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이전보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과잉보호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날마다 자라는 청소년의 뇌는 불안정하다.

뇌의 성숙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뇌는 사춘기 내내 자란다. 뇌 영상 촬영 결과를 보면 뇌의 물리적 변화는 시각과 운동, 본능적 처리 과정 같이 행동과 관련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 인접 부위에서 시작된다. 이어 근래에 진화되었고 보다 복잡한 사고 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옮겨가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발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한다면 10대들은 충동, 욕망, 목적, 이기심, 규칙, 윤리, 그리고 이타심까지 더 능숙하게 조절하게 되어 좀더 복잡하게, 적어도 가끔은 더 혁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10대의 뇌는 이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새롭게 바뀐 이 모든 뇌의 체계는 몹시 불안정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쟁쟁 아귀가 맞게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해 10대는 전반적으로 인생 경험이 부족한 데다 새롭게 변화하는 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서서히 배워가는 중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피로, 달라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뇌 기능의 미숙함’이라 했다. 10대들이 커지는 체구에 익숙해질 때 이따금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대들의 이상하고 갑작스러우며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 기저에 깔린 뇌의 발달 과정에 의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십대들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매년 삼천 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감행한다. 이 아이들은 숙식 해결을 위해 폭력이나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려 7만 명에 다다른다. 소년 범들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추세이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 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들의 비행 앞에서 참담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된다. 이러한 감정은 자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를 가정 교육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십대의 불안정한 뇌가 위험한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십대들은 도난이나 폭행과 같은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 방화·기물파손·절도·집단 폭행·폭주족 등이 십대들이 많이 저지르는 문제행동이다. 모든 십대들이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아주 심각한 방식으로 여러 번 잘못된 행동을 반복 한다. 회를 자주 내고 욕설을 쉽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할 수도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다. 어릴 때부터 뚜렷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동물을 학대하고 동생을 때리고 친구를 다치게 한다.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르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범죄에 쉽게 휘말리게 되고, 절도·강간·폭행 등 심각한 범죄 행동을 보인다.



십대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미국은 지난 2005년 3월 1일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십대는 성인의 뇌를 갖고 있지 않기에 성인과 같은 벌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뇌 발달 연구 결과 십대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부족했다. 또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십대의 자녀가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되면 경찰에 구금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관찰하고 있어야 하고 자녀의 문제 행동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옆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녀가 혼자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공격성이 너무 심하여 즉각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과의 입원도 고려 할 수 있다. 입원을 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감독과 치료를 받게 된다. 응급상황인 경우 정신과에 입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디지털 원주민인가 아니면 디지털 이주민인가?”

요즘에는 두 살짜리 아기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 흔히 사람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디지털 미디어 세대, 일명 넷 세대로 부르며 그 이전의 세대와 구분 짓는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갖고 놀고, 인터넷과 함께 생활하는 세대이다. 이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논문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을 언급했다.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이란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한다. 이후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를 지칭하는 말로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이 일반화되었는데, 특히 2009년에 돈 텁스콧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을 쓰면서 디지털 원주민은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된 말이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익숙하다. 어른들이 책이나 편지 등 문자에 익숙한 만큼 그들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다. 디지털은 어른들에게 새롭게 익혀야 할 외국어에 가깝지만 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한 모국어이다. 돈의 주장에 따르면 넷 세대는 성장기 동안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학습방식을 따르기에 뇌가 전혀 다를 것으로 보았다. 뇌의 구조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라고.

**새로운 인류인 10대는
뇌가 다르다.**



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 90년대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보편화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은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들의 성장환경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다른 것이다. 이러한 성장환경의 차이는 10대들의 두뇌 구조를 기준의 세대와 다르게 만들었다. 인터넷은 아이들에게 살 것, 일할 곳, 친구와 이야기할 시간, 그리고 심지어 되고 싶은 사람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다른 세대들은 판매 채널, 제품 종류, 브랜드 등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느끼지만 10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10대는 모든 것을 자기 개성에 맞게 맞춤 제작한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를 추구한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아이들은 청중이기보다는 주연 배우이길 원한다. 또한 월드컵 거리 응원이라던가, 최근 촛불 시위에 보였던 신세대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엿볼 수 있듯 10대들은 개인 차원에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넷 세대는 인터넷에 그저 접속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인터넷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다.



10대는 공부와 친구관계에서 놀이를 원한다.

10대는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공부에만 몰입한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놀 때 놀고 공부 할 때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놀이와 공부의 이분법적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공부 자체가 놀이나 게임처럼 도전적이고 재미있기를 바란다. 반면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몰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을 주어진 과업에 어떻게 몰입시킬지를 보여준다.

10대는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수준 높은 게임을 즐기며 성장한다. 흔히 ‘요새 아이들은 주위가 산만해’라는 말을 한다. 수업 시간에 도저히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 레벨을 올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잠까지 설쳐가며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집중력 장애 환자가 아니다. 아이들은 도전적이고 재미있으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10대는 빠른 속도를 중요시한다.

10대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 답장을 기다리던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이들은 즉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또한 이들이 즐기며 성장한 게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따른다. 이들은 방금했던 게임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익숙하다. 또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도 이들은 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 되어 있는 페이지를 그때그때 넘나들며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면서 자라왔다. 많은 부분에서 이들에게 ‘실시간 반응’ 이란 개념은 당연한 것이다. 10대들을 말할 때 흔히 ‘참을성이 없다’라

는 말을 하지만 빠른 속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너무 느리게 보일 것이다.

가상의 세계를 좋아하는 십대들

인터넷 도입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의사소통 기회의 발현으로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화된 미디어, 즉 인터넷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또 한 번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1인 미디어란 '네티즌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미니홈피로 불리는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와 블로그로 불리는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꼽자면 인터넷의 개인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을 보다 쉽게, 그리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동기로 개인화가 진행되었으며,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묻혀 있던 개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도입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의사소통 기회를 열었다면, 1인 미디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를 바라는 욕구가 발현된 결과이다. 특히 인터넷 속의 블로그는 자신을 개방해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 곳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현실에서보다 좀 더 솔직하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

실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니홈피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살펴보면 사진첩이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리가 12.1%를 차지했다. 사진첩 사용은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방명록을 통해 나에 관한 일상 사나 소식을 알리고 친구 소식을 주고받는 기능을 추구한다. 이러한 자기 드러내기 욕구와 친구와의 관계 맺기 욕구는 10대의 블로그 이용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인터넷 세상에서는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각광받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는 스킨, 배경음악, 사진, 글 등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며 현실에서 보여주기 힘든 모습까지 과시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편집 검열해 사진을 올리면서 비교적 일관된 주체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포토샵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자기를 더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니홈피의 방문자 수를 통해 자기 인기를 과시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장하기의 특성 역시 10대들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시킨다.

메신저 대화 : 애착과 유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공간은 동호회와 메신저 대화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현실적인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특별한 규칙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처럼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현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선호된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유달리 메신저 대화에 푹 빠져 지낸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네이트온 등의 무료 메신저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카카오톡 등의 무료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10대 아이들은 발달 특징상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친구에게로 애착이 전이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유아원을 가는 시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의 유대관계보다는 친구 간의 유대관계에 더욱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의미를 크게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추세에서 온라인 메신저는 청소년들에게 대화가 24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는 판타지를 심어주었고 이 매체의 영향으로 10대 아이들은 실제로 친구들과 24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현실보다 나은 꿈의 매체로 인해 아이들은 이 메신저의 바다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짧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이나 자음의 생략, 혹은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언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개인의 사고와 뇌 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고와 뇌 발달 정도는 다시 개인의 언어에 영향을 주는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처럼 파괴된 언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고를 왜곡시키고 뇌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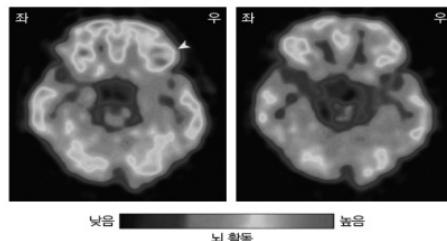


스마트폰중독이란?

10대의 아이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기를 힘들어한다. 아니,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거나 바로 옆에 없는 경우 불안 증세까지 호소한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기계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충동 조절이 어려운 10대들에게 휴대폰 중독이 어떠한 역기능을 가져올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무료 메시지 기능의 카카오톡,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중독과 그에 따른 역기능은 수 배 이상 커진다.

휴대폰 사용은 뇌 활동에 변화를 준다.

휴대폰 사용은 뇌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등 뇌 활동에 변화를 준다. 뇌 MRI 촬영 결과를 살펴 보면 뇌의 변화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이 휴대전화를 쓰지 않은 상태, 왼쪽 사진이 50분가량 통화한 뒤의 상태이다.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포도당이 사용된 부분이다. 뇌는 포도당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돌아가는데, 붉은 색이 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뇌 활동이 활발했다는 뜻이며 부정적인 자극이 지속적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뇌 주변은 혈관이 둘러싸고 있어 뇌를 보호하고 있다. 뇌혈관은 독소물질이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진동과 파장을 막아준다. 그러나 전자파는 이러한 뇌혈관을 뚫는다. 따라서 뇌에 2차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컴퓨터 앞에서는 공감능력을 키울 수 없다.

요즘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논다. 그리고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무수한 정보를 접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손쉽게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21세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지낸다. 스크린을 통한 많은 시청각적인 자극도 아이들의 거울 세포에 끊임없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으로 얻은 자극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성장을 자극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의 문제는 스크린 앞에서는 풍부한 이해심을 배울 수 없으며, 세상을 체험할 수도 없다. 풍부한 이해심으로 세상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거울 세포에 대한 공명 반응을 더불어 체험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청소년의 발달 과제 중에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청소년들 중에서 네 가지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발달 과제 중 친구들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놀라운 신경생리학적인 장비인 거울 세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거울 세포는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거울처럼 반사해야 하고, 가능한 한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반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0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선정되었었다. 엘시스테마는 빈곤층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제공하고 오케스트라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중에 약 60%는 빈민층이었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한 협동의 인간관계를 배움으로써 폭력과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었다. 엘시스테마의 활동은 예술적 활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여한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 되어 전체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일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청소년의 네가지 발달과제를 완수하려면!

청소년기에는 네 가지 발달 과제가 주어진다. 첫째는 훌쩍 커버린 자기 신체에 적응해야 하고, 둘째는 아동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아 정체성으로 자아라는 개념과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는 친구들과 잘 사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자기의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통계로 보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생활·문화¹⁾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식, 문화, 경험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되어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2013년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9,52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중 일부를 소개한다.



글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지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수면시간 :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 12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간 11분, 일반계고등학생 5시 27분.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수면부족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2분(초등학생 10시 34분, 중학생 11시 27분, 일반계고등학생²⁾ 12시 29분, 특성화고등학생 12시 10분), 평균 기상시간은 6시 34분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 7시 10분, 중학생 7시 2분, 일반계고등학생 6시 20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 21분).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6분이었는데,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12분, 특성화고등학생 6시간 11분, 일반계고등학생은 5시간 27분 순으로, 학업 부담이 있는 학교급일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2.8%였는데, 특히 고등학생(일반계고 69.5%, 특성화고 69.1%)의 경우 10명 중 7명은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도 연구보고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의 연구결과 일부를 요약한 것임.

2) 이 글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를 통칭한 것임.

초등학생 과반수 이상이 방과후에도 2시간 이상 공부, 10명 중 2.9명은 3시간 이상 공부

평일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공부시간을 1시간 미만부터 6시간 이상까지 1시간 간격으로 구간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하루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52.2%, 중학생 58.4%, 일반고등학생 58.8%, 자율고등학생 68.3%, 특목고등학생 70.6%,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28.9%, 중학생 33.3%, 일반고등학생 38.3%, 자율고등학생 51.3%, 특목고등학생 54.5%였으며,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15.1%, 중학생 15.7%, 일반고등학생 22.4%, 특목고등학생 30.5%, 자율고등학생 34.6%, 5시간 공부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6.9%, 중학생 6.5%, 일반고등학생 9.8%, 특목고등학생 12.9%, 자율고등학생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6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응답도 초등학생 2.7%, 중학생 2.4%, 일반고등학생 9.8%, 자율고등학생 6.1%, 특목고등학생 9.4%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이 중학생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10명 중 2.3명, 일반계고등학생 4.8명은 평일 하루 여가시간 1시간 미만

하루 중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9.7%로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70.2%의 아동·청소년이 최소 1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으나 2시간 이상 여가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39.4%로 급격히 줄어든다. 여가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경우는 초등학생 22.5%, 중학생 21.8%, 일반계고등학생 48.4%, 특성화고등학생 20.2%로 나타났다. 하루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초등학생 31.0%, 중학생 24.2%, 일반계고등학생 7.5%, 특성화고등학생 33.5%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초·중·일반계고 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문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중·고등학생이 41.4%로 나타난 가운데(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를 원인별로 알아보았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69.3%였으며,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 51.6%, 외모 및 신체조건 29.2%, 또래와의 관계 21.9%, 가정불화 18.8%,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2.6%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문제(46.2%)와 또래와의 관계가(20.7%)가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학업문제 74.2%, 미래에 대한 불안 53.0%, 외모 및 신체조건 31.0% 순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은 학업문제 87.2%, 미래에 대한 불안 81.5%, 외모 및 신체조건 36.1%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77.4%, 학업문제 68.5%, 외모 및 신체조건 42.6%, 경제적인 어려움 31.9%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7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은 학업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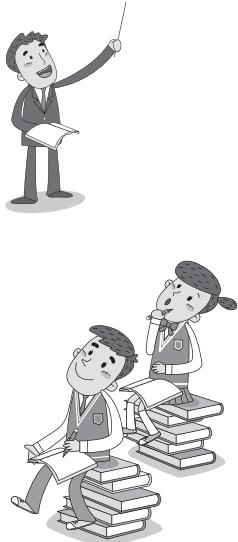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9%(가끔 생각 32.3%, 자주 생각 4.6%)로 나타났고, 여학생(45.8%)이 남학생(28.9%)보다 자살생각 빈도가 더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 37.3%, 중학생 36.9%, 특성화고등학생 34.9%의 순으로 일반계고등학생의 자살생각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규모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학업성적 면에서는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자살생각 빈도가 높았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으로는 학업성적(전체 40.4%, 중학생 34.0%, 일반계고등학생 50.5%, 특성화고등학생 27.1%)과 가족 간의 갈등(전체 27.6%, 중학생 33.7%, 일반계고등학생 20.3%, 특성화고등학생 28.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중위층인 경우는 학업 성적으로 인해, 하위층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거리 대화상대 : 친구(41.6%), 어머니(34.4%), 대화상대 없음(9.3%), 담임선생님(1.0%)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9.3%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친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34.4%, 형제·자매 5.4%, 아버지 5.3%의 순이었고, 담임선생님(1.0%), 학교 상담선생님(0.8%), 이웃이나 친척(0.6%), 청소년 상담관련 센터(0.4%)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와 고민을 나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와 고민을 나눈다(중 46.1%, 고 51.5%)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생활

10명 중 5명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학교수업이 싫어서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였다. 초등학생(35.2%)과 중학생(49.9%)보다는 고등학생(57.4%)이, 성적이 높은 학생(39.4%)보다는 낮은 학생(62.5%)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41.8%)보다는 낮은 학생(62.1%)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4%의 다수가 '학교 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답하였다(중복 응답). 다음으로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57.5%)',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40%)',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37.3%)', '성적이 좋지 않아서(24.4%)'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다른 취미활동 관심'에 중·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 규율'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학업중단 생각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23.2%로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6.9%, 고등학생 29.2%(일반계 고등학생 29.0%, 특성화고등학생 30.3%)로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꼴로 학업중단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 청소년의 활동 · 문화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기',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은 '게임', 일반계고등학생은 '공부'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친구와 놀기가 4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V 시청 46.6%,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43.4%, 집에서 휴식 38.8%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공부가 이들 다음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 · 예술행사 관람(9.1%), 독서(8.6%), 여행(5.1%) 등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3가지 활동 중복응답). 성별 차이로는 남학생은 게임과 운동을, 여학생은 휴대전화로 통화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 · 중학생은 친구와 노는 것을, 고등학생은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 TV를 보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한 1순위 응답만을 보면, 게임(20.5%), 친구와 놀기(18.9%), TV 시청(16.6%), 공부(10.5%), 집에서 휴식(9.9%) 순으로 나타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기(23.4%) → TV 시청(18.3%) 순으로, 중학생은 게임(25.4%) → 친구와 놀기(18.9%) 순으로, 일반고 학생은 게임(17.7%) → 공부(16.7%) 순으로, 특목고 학생은 공부(28.1%) → TV 시청(15.2%) 순으로, 자율고 학생은 공부(25.3%) → 게임(16.8%)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게임(26.0%) → 친구와 놀기(20.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를 포함한 일반계고등학생의 1순위 활동은 공부(17.9%), 게임(17.1%), TV 시청(15.2%), 집에서 휴식(13.9%), 친구와 놀기(13.8%) 등의 순으로, 휴일에도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공부'로 나타났다.

10명 중 6~7명은 최근 1년간 청소년시설 이용경험이 없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율 · 자치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조사결과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한번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이 62.3%에 달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28.3%에 이르러 한달에 한두 번 이상 이용하는 실질적인 이용자는 9.4% 정도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초등학생 56.6%, 중학생 59.9%, 일반계고등학생 69.3%, 특성화고등학생 69.7%),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0명 중 5.4명, 일반계고등학생 10명 중 7명 정도 청소년 여가 · 문화 시설 · 공간 부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여가 · 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한 지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을 한 학생

은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1.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2%에 달하나 중학생은 45.2%, 일반계고등학생은 31.5%, 특성화고등학생은 39.0%에 그쳤다.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가·문화 시설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청소년단체 활동학생은 초등학생 10명 중 2명, 중학생 0.6명, 고등학생 0.5명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1%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응답학생은 9.5%에 불과하였다. 9.3%의 응답자는 가입은 하였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여학생(10.2%)이 남학생(8.9%)보다 많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았으며(초등학생 19.8%, 중학생 5.7%, 고등학생 4.7%),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단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12.7%, 중 9.6%, 하 6.0%).

최근 1년간 취미나 문화관련 동아리활동은 10명 중 6~7명이 경험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및 학교内外 동아리 모두 포함)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는 70.1%로 나타났다. 여학생(72.2%)이 남학생(69.7%)보다 동아리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단체 참여율과는 달리 초등학생(67.5%)보다는 중학생(73.1%)과 일반계고등학생(73.1%)들의 동아리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활동(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지지도 : 가정 60.1%, 학교 69.5%



응답자 가정의 60.1%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다섯 가정 중 두 가정에 해당하는 39.9%는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81.4%)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반면 중학생(49.6%)은 일반계고등학생(54.8%) 보다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체로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9.5%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초등학생 83.5%, 중학생 64.7%, 일반계고등학생 63.7%), 특성화고등학생은 57.5%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정도가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의 참여

중 · 고등학생 10명 중 2~3명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회이나 모임 가입활동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 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의 활동 빈도를 물어보았다.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 토론' 27.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20.1%,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8.1%로 나타나 10명 중 2~3명의 아동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과 행사 참여 등의 활동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참여한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동 ·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초등학생은 '시간부족', 중 · 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51.6%, '그렇지 않다' 48.4%로 보장받고 있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아동 · 청소년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75.6%, 중학생 47.7%, 일반계고등학생 33.4%, 특성화고등학생 44.3%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계고등학생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장받는

다는 응답이 높았다(상 57.1%, 중 50.3%, 하 39.8%).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5.7%,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부모님(보호자) 반대' 3.6%, '학교 반대' 1.6% 순위의 응답율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시간부족(42.6%)'이 가장 큰 이유였고, 중학생(40.4%)과 고등학생(42.4%)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다.



한국의 아동 · 청소년은 행복한가

행복하다 : 초등학생 89.3 > 중학생 80.3% > 일반계고등학생 75.1% > 특성화고등학생 73.8%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현재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 · 청소년은 81.1%였으며, 초등학생은 89.3%가, 중학생은 80.3%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일반계고등학생은 75.1%, 특성화고등학생은 73.8%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7.3%)이 가장 커고, 그 다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6%)의 순이었다. 학교유형별 이유를 보면, 초등학생은 학업부담(37.0%),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7.8%),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6.9%)의 순으로,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은 학업부담(37.4%, 42.8%), 미래에 대한 불안(15.5%, 33.9%),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3.5%, 4.4%)의 순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36.9%), 학업부담(13.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인권존중도 67.6%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초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를 생활영역별로 물어본 결과,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우리나라 전체(6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자신과 밀접한 생활영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학교유형별 응답을 보면, 중학생(70.6%), 일반계고등학생(67.4%), 초등학생(66.3%), 특성화고등학생(58.2%)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글을 나오며

한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은 학업부담 속에서 살고 있다. 수면과 여가시간은 부족하고 방과 후에도 공부로 시간을 보내며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공부'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생의 공부시간이 중학생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학업경쟁은 한참 뛰어 놓아야 할 저학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며, 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은 많지 않다. '시간부족'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으로 청소년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꿈과 끼를 키우는 데 효과적인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는 60% 선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양한 정보와 자원에의 접근 정도가 낮고 주관적 인권존중 정도나 행복감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비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응답이 81.1%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격려해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학교는 존중과 소통이 있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이 실수할 기회,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 줌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를 받고 있는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최초의 한국정부 심의결과 '경쟁적 교육제도는 재능과 소질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격과 재능의 최대한 계발과 인권 존중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정기보고서 심의결과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교육상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지금 논의되는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탄생한 창의적 체험활동 또한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근본적인 입시경쟁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고리를 풀어야하는 만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이고 강력하며 뚜심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



소년법정에서 만난 아이들



글_ 서울가정법원 판사 | 최 은 주

“저는 1월 7일 날 재판을 보았습니다. 1월 7일 그전날 떨리었지만 재판날 저는 소년분류심사원 2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무서웠습니다. 또는 제잘못인데도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에 처벌 덕분에 깨닳았습니다. 아프신 몸 이끌며 면회오시는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힘드신 몸 들고 오시는 할머니 그거에 크게 깡통을 먹은 것이며 사고쳐도 풀려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다 잊고 사회에서 죄짓지 말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일 출소 재판을 보니 소년원 갈 생각에 떨었습니다. 입원기간을 늦추고 머리를 밀고오신 아버지 저는 용기를 가지고 1. 4호 학교 복학 명령으로 사회에 빛을 더였습니다. 매우 좋았고 매주 금요일 법원에서 따견 나온 선생님을 7일에 한번씩 만나야 한다는 말에 귀찮았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고마운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다”¹⁾

위 글을 쓴 아이는 96년생 남자아이로 2012. 9. 아버지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로 재판을 받았다. 아직 아이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비록 아이가 이번 사건 이전에 소년재판을 받은 경력은 없지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도 아니고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건이어서 아이를 단단히 혼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조사절차 없이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 아이와 보호자를 소환했다²⁾ 아이는 소년법정에 출석하자마자 저지른 비행에

1) 아이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겼다.

대한 꾸중을 듣고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³⁾.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 당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유예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거의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살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 4살 때 이혼을 했고 아이는 그 후 아버지와 살았다.

엄마와 연락은 끊어졌고, 아버지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재혼했다 다시 이혼했고 다시 다른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새엄마가 시어머니, 즉 아이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여관 일을 돋고 생활비를 받아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위암이 대장암까지 전이된 상태로 암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면서 판사가 의도한대로 아이는 난생 처음 집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엄격한 규칙과 빠빠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13. 1. 23. 재판에서 1호(위탁보호위원⁴⁾), 4호(보호관찰 1년) 처분을 한 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학업이 중단되어 있고,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위탁보호위원 처분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게 하는 4호 처분을 명과했다. 다행히 아이는 새벽 시간에도 카톡으로 위탁보호위원에게 2시간 동안 ‘힘들다, 죽고 싶다’고 울기도 하는 등 위탁보호위원을 의지하며 잘 따랐다. 게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아픈 아버지,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한국 물정에 어둡고 나이도 어리지만 시어머니를 돋고 살림을 하는 베트남 새엄마에 대해서 연민도 가지게 되었고

학교에서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상담 중인 동생을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아버지는 지난 여름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는 잘 이겨냈다. 아이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고 검정고시로 중,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후 예술대를 가겠다는 진로를 세웠다. 위탁보호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위탁보호위원 처분은 한 차례 연장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제가 한창 방황을 하던 때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거 같은데 아직도 엉그저께 일인 것만 같아요. 그만큼 생생하고 또렷해요. 이정도까지 내가 일을 벌릴 줄은 그때만 해도 당연히 상상도 못했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의연하고 떳떳했던 제 모습이 어찌나 뻔뻔했던지 실감이 많이 되는 지금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처음에 받을 때는 꼭 가야만 하나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고 꾀를 부리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친구들한테도 상담받는 사실을 숨겼어요. 이제 내 주위에는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도 나쁜 짓을 하는 친구도 없는데 나만 이 친구들 사이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만 같아서 상담받는 몇 주는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은 잘못들을 반성하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숨기고 감추는 것이 제일 잘못된 일이라고는 것도 알았구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상담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겠다고 하니 친구들도 저를

2)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그 목적은 소년형사사건과 달리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기밀에 앞서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치게 된다.

3)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으로 최대 2개월까지 사실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구속과는 달리 신병학보의 목적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재비행기능성 등의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위탁기간 동안 소년에 대한 여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된다.

4) 위탁보호위원 처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고령, 질병 혹은 생업 등으로 소년을 제대로 돌볼 수 없거나(구조적 결손)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가 약하여 실질적으로 소년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기능적 결손)에 보호자를 대신하거나 보호자를 보조하여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처분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약 100명에 이르는 위탁보호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법원이 1호 위탁보호위원 처분을 하는 경우 아이를 인수하여 6개월(연장하는 경우 1년까지) 동안 아이를 지도하고 상담한다. 위탁보호위원은 위탁기간 내내 아이를 1주일에 한 번을 기준으로 대면 면담을 하면서 1달에 한 번씩 담당판사에게 일지를 제출 한다. 판사는 일지를 매번 확인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해했고 지금의 친구들로부터 제가 많이 나아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틀어진 성격도 고쳐지고 학교 제시간에 등교하고 결석하지 않는 등 그전에는 이런 당연한 일상생활조차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빠도 제가 변한 모습을 알아봐주시고 저를 다시 믿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학교출결뿐만 아니라 중3이니만큼 학업에도 제가 힘들는데까지 열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셨는데 제가 노력하고 서툴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조금씩 저를 달리 보십니다. 작년처럼 친구들에게만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지려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점차 나아질 수 있을거라 믿을거고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98년생 여자아이다.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휴대폰을 뺏거나 훔쳐 용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화 좀 빌려 줄래?”라고 말한 뒤 통화를 하는 척 하다 훔쳐 달아난 일로 재판을 받았다. 여러 번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영장을 발부한 끝에 재판을 했고 1호 위탁보호위원 처분을 했다. 그 후에도 처음에는 아이가 위탁보호위원의 상담을 회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탁기간 6개월 동안 기대 이상으로 안정되었고 이제 방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역시 위탁보호위원에게 감사했고 위탁보호위원 처분을 종료했다.

위탁보호위원들이 호소하는 주된 애로사항은 거짓말과 상담회피다. 늦잠자서 못 갔다, 깜빡 약속을 잊었다, 휴대폰을 분실했다, 제사 때문에 시골에 가야 한다는 등 여러 핑계를 둘러대고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끊어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놀다가 상담하는 날만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고…….

아이들은 위탁보호위원과의 상담을 받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처분이 변경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따라와 주지 않는다. 마지못해 시간만 때우려는 경우도 많다. 처음부터 상담에 협조적이고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하는 청소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위탁보호위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그리고 아이들은 알아보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마음을 닫고 밀어내고 어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벼룩없이 굴고……. 아무리 센 척하던 애들도 애들은 애들인 것 같다. 어느 순간 애들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관건은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 지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다.



“…… ○○○에 있을 때 이럴게 편지를 썼을 때가 문득 생각나네요…… 이언 심사원에 있을 때 어느 정도 10호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달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짠사님께도 죄송했구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요. …… 부모님이랑은 잘 지내요. 엄마는

저를 또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면회도 3번 오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오셨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야위어 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 나오면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서 잘 지내는게 아빠한테도 잘 하는 거겠죠? 어 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게 월씬 더 나은 것도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친오빠도 이번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될까봐 걱정도 되고 …… ○○○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한게 후회되지만 지금부터 더 잘 할거예요…….”

이 아이는 인터넷 사기(물건이 없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 줌)로 소년재판을 받았다. 오랜 기간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나이도 있어서 검정고시를 하라고 6호(아동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 처분을 해서 ○○○에서 지내게 되었다. 마음잡고 생활을 잘 하는가 싶었는데 외부에 공예 배우러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 이탈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역에서 도망을 갔다. 몇 달만에 다시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에 대한 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방황이 길었지만 아이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자기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을 한 판사에게 편지도 보내고 10호 처분을 받은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기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도록 잘못을 해서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 동안 소년재판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집이 아닌 시설로, 소년원으로 보내서 사실상 감금상태에 두었지만 아이들은 신통하게도 판사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 더 나아가 이번 처분이 자신에게 새로운 계기를, 기회를 준 것이라 받아들이고 열심히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기술도 배운다. 이래서 소년부 판사는 10대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가 보다.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 비행을 하면 소년재

판을 받는다(물론 사안이 중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년재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관계능력과 소통능력이 미흡한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학교는 이미 유예, 자퇴, 퇴학 등으로 중단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결상황이 매우 불량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로 이미 조치를 받았거나 잣은 교칙 위반 등으로 벌점이 많이 쌓여 있다. 가정환경은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으로 결손이 있고, 경제적·정서적인 빈곤이 있으며 가정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소년부 판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아무리 말썽장이라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만나면 반갑다. 주변에 아이를 이끌어줄 어른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부 선생님도 계시고 …… ‘아이가 아직은 학교에 흥미를 느끼고 있거나 적어도 친한 친구라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와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와 버린 아이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나이가 어리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 집안에는 있기 싫고 결국 길거리를 배회하고 가출로 이어진다. 이 아이들은 가정도 울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거리의 청소년이 된다. 도처에 범죄의 유혹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침질방에서 강간을 당하고도 자기가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을 나왔고, 그로 인해 임신까지 했다고 할 때는 정말 기가 막혔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업무처리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의 처리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생님을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년재판에서 만난 아이들 중 이미 오래 전에 학교를 벗어난 아이일수록 자신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 경우가 많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럽단다. 수업시간이고 시험시간이고 엎드려 잠만 자는 자기를 아무도 깨우지 않더라는 말도 한다. 유예되기 전 정말 학교 안을 거냐고 전화를 걸어준 사회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학교 오라는 전화를 걸어 주었던, 내버려 두었던 그 아이가 학업 유예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졸업시키려고 했던 선생님이 있었다는 기억은 10대의 끝자락에 선 그 아이에게 몇 안 되는 따뜻한 기억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년보호사건뿐 아니라 가정보호사건도 담당하다 보니 부모와 아이들 모두 재판하는 일이 생긴다. 몇 년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딸들과 살고 있는 엄마는 남편 사망 후 힘들 때마다 마시던 술로 이제 알콜중독이 되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조절이 안되면서 딸들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했다. 딸들은 참고 살지만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상 경찰이 출동하여 엄마를 경찰서로 데려가면 매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경찰이 보기에도 미성년 딸들에게는 엄마 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매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몇 번 계속되자 수사기관은 이번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기록을 보니 서둘러 엄마를 아이들과 격리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알콜중독 아버지가 아이들과 엄마를 학대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아버지를 소환해서 알콜병원에 입원시켜 가족들과 격리시키고 치료하면 될 일이지만 엄마를 그렇게 하면 아이들만 남을 상황이었다(소년사건을 하면서 보호자가 모두 없는 집에 딸 아이만 살고 있다가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우선 조사를 해봤더니 상황이 좋지 않았다. 큰아이는 새벽 시간에 친구와 함께 성인남자의 패딩점퍼를 몰래 가지고 도망간 일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있었고, 작은아이는 집을 나가 쉼터에 있다고 했다.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엄마였는데 엄마의 알콜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출이 되었다. 일단 엄마는 빨리 알콜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보내고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동원해 보호를 해야 했다. 기특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모두 학교는 그만두지 않고 다니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방지하면 아이들 모두 비행소년, 가출소년이 되고 학업이 중단되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을 모두 재판하게 되는 일도 많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있고 엄마는 학습된 무기력, 중증의 우울증 등 학대받은 여성의 정후를 보이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집에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가정의 딸 셋을 모두 재판했던 경우도 있고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어지고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는 일거리를 따라 지방에 머물고 어쩌다 집에 왔다. 누나와 남동생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을 모두 재판했던 경우도 있고 쌍둥이 형제를 모두 재판했던 일도 있었다.

소년비행 문제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백하다. 어떤 소년부 판사

는 이런 말을 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소년법이 정한 처분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처분은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는 처분이라고.

소년부 판사를 하다보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청소년들을 만난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설마…… 하면서 믿지 않았을 사연이 많다.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와 딸이 한 집에 사는데 엄마의 남자친구가 딸을 성추행하다가 강간을하게 되었다. 아이는 성추행은 감내하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그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릴 수 없었다고 한다. 강간까지 당하고 난 후 엄마에게 알렸고 결국 그 남자는 실형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실형을 살고 나오자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가출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 형제를 매번 심부름을 보내고 어린 딸을 추행해 오다 맏아들이 이를 목격했다. 엄마에게 알렸지만 엄마는 입을 다물라고 하며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했다. 맏아들은 신고를 했고 법정에 증인으로도 섰다.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엄마는 항소심 계속 중 남편을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살했다. 맏아들은 방황을 시작했다. 그러다 소년재판을 받았다.

엄마와 아빠는 늘 싸운다. 말싸움으로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집안에 남아나는 물건이 없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은 유명하다. 길을 걷다가 이웃 사람들이 쳐다보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돈도 없다. 그래서 마냥 길을 쏘다닌다. 그러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본드도 불고 후배들 돈도 뺏는다. 뺏은 돈으로 밥도 사먹고 PC방도 간다. 외박으로 시작해서 가출로 이어지고 결국 무단결석으로 학교는 유예된다. 점점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돈이 필요하다. 스

마트폰을 절도해서 팔면 돈이 된다니까 한번 해본다. 성공하니 자신감이 생긴다.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점점 대담해지고 급기야 야간에 아이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 유리를 깨고 스마트폰을 쓸어 담았다.

처음 기록을 볼 때 기록 앞부분에 나오는 범죄사실을 읽을 때는 화가 많이 난다. 아직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탄식도 한다. 그러다가 아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 누구라도 이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달리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본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회를 주고 싶다. 어차피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소년재판에는 오지 않는다.⁵⁾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데 소년부 판사들이 너무 온정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청소년이 다시는 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사건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형량을 높이고 소년교도소에 많이 보내면 소년비행이 줄어들 것인가?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는 협박이 '잘못하면 소년원 간다'는 것보다 더 두려울까? 10대 아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성인에 비해 훨씬 충동적이며 앞뒤 분간을 못하고 일단 일을 저지른다. 위하효과⁶⁾가 크지 않은 이유다. 무엇보다 10대에 비행을 한 아이들 중 대부분은 성인이 되기 전 범죄의 세계에서, 비행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 울타리를 좀 넉넉하게 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철이 나도록 이런 저런 방법을 써가며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년재판 역시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믿는다. ◎

5) 만 14세가 넘은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를 하기도 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도 한다. 기소가 된 후에는 형사법원이 통상의 형사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한 후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즉 수사기관이 형사법원에 기소한 경우에도 형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죽벌소년의 경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은 죽벌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6)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권력에 근거한 처벌의 두려움을 가지게끔 하여 범죄를 억지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다.

학생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운영

2월 초 연구학교로 지정된 후 또래조정 주제를 접했을 때 모든 선생님들의 반응은 똑같았다. “또래조정이 뭐야?”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또래조정에 대해 아는 선생님이 전무후무했으니 다들 이 개념에 대해 궁금해 했다. 또래상담이나 솔리언 또래상담의 한 부류인가 하는 추측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또래조정에 대한 연수를 받고 나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개념은 이해되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 또래조정 연구시범 학교를 시작하면서 안남고, 인천효성고, 동암중, 인천동양중은 서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합동보고회를 준비하면서 네 학교가 서로 의견을 교류하다보니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 또래조정 운영에 대한 결론이 그려졌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가? 네 학교가 머리를 맞대니 또래조정 운영노하우가 정리되었다. 또래조정 개념이 생소한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래조정을 시도하고자 계획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또래조정 개념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글_ 동암중학교 교사 | 이현희



또래조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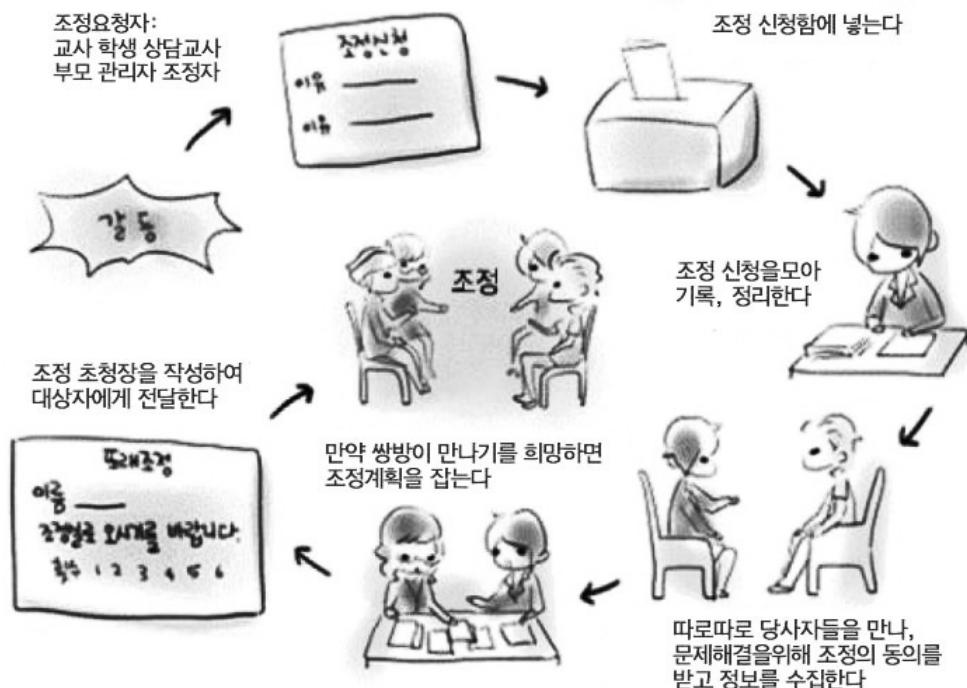
또래조정은 1970년대 후반 미국 대법원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제도화 된 조정이라는 개념을 학교 내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즉, 동년배(같은 또래)가 겪고 있는 갈등을 또래 학생이 제삼자의 관점에서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또래조정이라는 개념은 또래상담, 또래법정과 자칫 혼동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 1] 또래조정, 또래상담, 또래법정의 차이점

또래조정	또래상담	또래법정
갈등 당사자에게 조정자가 절차와 방법제시	개인적인 고민을 또래 상담자에게만 털어놓고 상담	또래청소년이 참여인단으로 배석, 사건의 발생과정과 당사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해결방안 결정
갈등 당사자가 의사표현을 통해 속마음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안을 제시하여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냄		
특징 제3자 관여, 당사자 합의	특징 합의과정 없음	특징 제3자 관여, 제3자 결정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상담은 합의 과정 없이 갈등 당사자와 상담자 간 일대일 대화로 문제점을 의논하고, 또래법정은 제삼자가 사건 발생 과정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직접 결정해준다. 반면 또래조정은 갈등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또래조정자는 그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다.

다음은 또래조정의 일반적인 절차를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또래조정 과정

또래조정의 교육적 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의 갈등은 대개 교사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학생 간의 갈등이 미리 포착되면 교사 관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갈등은 학생 간의 문제로 남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결국 학교폭력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또래조정은 이러한 학생 간의 갈등을 조기 발견하고 교사 개입 없이 학생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게 하므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가 있다.

1. 갈등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2.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듣게 되므로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긴다.
3.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밝혀내므로 갈등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4. 갈등 당사자 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5. 갈등상황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교별 또래조정 운영

4개교 또래조정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했다.

[표 2] 4개 학교별 또래조정 운영 형태

구 분	안남고 (남녀공학)	인천효성고 (남녀공학)	동암중 (남학교)	인천동양중 (남녀공학)
또래조정자 선발방법	모집 공모, 담임 추천 (조정위원회 선발)	모집 공모, 담임 추천 (교우관계도 활용 추천)	담임 추천, 친구 추천 (각 반 2명씩 선발)	모집 공모, 담임 추천, 친구추천
또래조정자 선발인원	1학년 9명 2학년 14명 3학년 6명	1학년 17명	1학년 12명 2학년 12명 3학년 12명	1학년 15명 2학년 22명 3학년 21명
또래조정자 교육 시간	24차시 (‘13.4.26 ~ 6.29) – 또래조정반 창체 동아리로 운영 – 창체시간을 활용한 교육	24차시 (‘13.5.10 ~ 7.14) – 또래조정반 자율 동아리로 운영 – 토요일 교육일정 진행	24차시 (‘13.5.4 ~ 6.15) – 창체 동아리로 또래조정 동아리 운영 – 조정자가 타 동아리에 증복된 경우 타 동아리로 활동함 – 토요일 교육일정 진행	24차시 (‘13.4.3 ~ 5.22) – 또래조정반 창체 동아리로 운영 – 창체시간을 활용한 교육
또래조정 교육 담당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기본교육) 전문상담교사 (주수지도)	전문상담사 (기본교육)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주수지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기본교육, 주수지도)	
또래조정 발대식 (또래조정 교육 (수료 후 진행)	‘13.7.12	‘13.8.26	‘13.6.25	‘13.6.19
	임명장 수여, 선서식, 배지 수여식	임명장 수여, 선서식, 배지 수여식	임명장 수여, 선서식,	임명장 수여, 선서식, 배지 수여식
또래조정 사례	8회	8회	30회	28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교별 또래조정 운영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또래조정자 선발 방식 및 선발

인원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다. 또래조정자 교육 역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전문 강사 지도하에 24차시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또래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달리 개인의 감정표출방법이 다르고,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며, 또래 친구에게 갈등상황을 털어놓고 조정 받는다는 사실에 민감하여 사례 수가 적게 나타났다.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학생들 간 소소한 다툼이 많아 사례 수가 많이 나타났다.

또래조정을 운영하다보니

각 학교에서 또래조정을 운영하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어려운 점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1. 또래조정자 교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4차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또래조정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래조정자 교육에 거의 2~3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기본교육 이후 모의 조정실습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또래조정 교육은 3~4개월이 걸린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3월에 조정자를 선발하여 교육시키는데 거의 한 학기를 투자해야 한다.

2. 또래조정자 선발 및 교육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학교에서 학생들 간 갈등은 새 학기에 시작되어 서로의 소통이 부족한 3~4월에 많이 나타나므로 또래조정자 선발과 교육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또래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효과도 좋을 것이다.

3. 조정사례가 발생한 경우 조정시간을 내기 어렵다.

학생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있다. 지속적인 경우는 [그림 1]의 과정대로 조정활동이 진행되지만, 일시적인 경우는 바로 조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 조정시간을 내어 참여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갈등상황이 발생한 즉시 조정활동을 하려면 수업시간 결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을 적시에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학생보다 교사에 의한 조정신청이 많고, 조정신청 사례가 적어 조정실습 기회가 적다.

또래조정에 대한 홍보를 학교별로 다양하게 진행했지만, 학생이 직접 조정신청하기 보다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 의한 조정신청이 많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갈등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갈등 당사자와 대면을 꺼려하여 조정신청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별로 또래조정이 도입된 단계이므로 학생들이 또래조정의 가시적 효과를 체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교사의 조정신청이 많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조정신청 사례가 적어 조정실습 기회가 적었다.

또래조정을 운영했더니

또래조정을 운영하면서 각 학교가 경험한 효과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갈등 당사자의 심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었다.
- 조정자들은 조정활동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어려웠지만 조정활동을 할수록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 갈등 당사자와 조정자 모두 조정활동에 만족도가 높았다.
- 학생 간 다툼이 줄고 폭력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던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래조정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야~
침든일은 또래조정으로
대화해 보자~



또래조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1. 또래조정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로 운영한다.

또래조정자들을 창체 동아리로 편성하면 조정자 교육시간 확보가 수월하며, 조정 평가회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가질 수 있어 효과적이다. 안남고와 인천동양중이 바로 그렇게 운영하여 창체 시간에 24차시 조정자 교육을 진행했다. 반면 인천효성고와 동암중은 몇몇 또래조정자 학생들이 이미 타 동아리에 가입된 관계로 창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과 후나 토요일에 조정자 교육 일정을 잡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교육 이수시간 확보 문제로 학생들의 출석에 신경써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 학생의 자발적 신청이 있기 전까지 교사가 또래조정을 신청하도록 한다.

또래조정이 초기에 도입되다보면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 학생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나 반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조정신청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교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일단 학생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학생 간의 갈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정을 신청하여 학급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래조정의 효과를 학생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그 전까지 교사가 조정신청을 하는 게 낫다.

3. 또래조정 과정은 교육지침대로 되지 않는다.

또래조정 과정은 실제 [그림 1]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학생 간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가 있고 일시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그림 1]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후자의 경우는 즉시 이루어지는 게 좋다. 따라서, [그림 1]의 순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4. 또래조정에 대한 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또래조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게 한다.

또래조정에 대한 효과를 교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교 전체적으로 또래조정에 대한 협조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선 교사가 또래조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선도위원회 이전에 또래조정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되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회부되기 전 단계로 또래조정 단계를 거치면 또래조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폭력발생 비율이 줄게 된다.

6. 학교급별에 따라 또래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또래조정 사례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또래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심할 필요는 없다. 단, 또래조정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또래조정 운영결과는 성공이다.

또래조정 논의를 끝마치며…….

올해 또래조정을 운영 해 본 결과 네 학교 선생님들 모두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꼭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록 연구학교 운영 때문에 또래조정을 도입하기 했지만, 운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은영 선생님은 본인이 직접 관찰한 한 학생의 변화를 얘기했다. 작은 체구지만 친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띤 학생이 또래조정자 교육을 받고 활동해 나가는 동안 인내심이 생기고 전보다 성격이 유순해져 공격적인 언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김남희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도위원회에 갈등상황이 접수되기 전에 또래들끼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욕설과 주먹이 먼저 오갔을 텐데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또래조정이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신과의 갈등, 타인과의 갈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내용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요즘 자신의 말은 핏대 세워 주장하지만 남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학생들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학생 간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면 자연히 학교 내 폭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또래조정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친 학교들의 사례를 통해 모든 학교에 또래조정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요즘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성과와 과제



글_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장학사 | 유 총 렐



I . 글의 열기

2011년 한 중학생의 자살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7월 23일 발표하였고 우리 교육청도 8월 23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1.6%로 나타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피해 응답률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보고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실시한 승진가산점 문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권보호 문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민원 문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견 등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달무리가 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질을 둘러싼 부수적인 것들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인천의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 인천의 학교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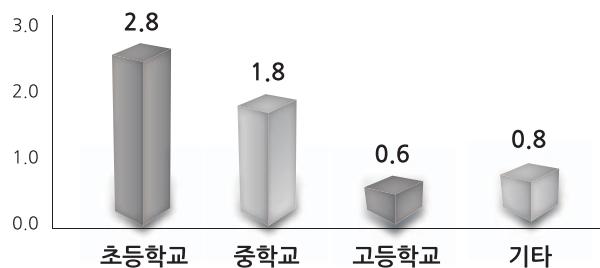
1. 학교폭력 실태 및 분석

구분	설문대상	참여인원	참여율	피해응답 학생수	피해응답 비율	비 고	
						전국	참여율 : 73.7% 피해응답율 : 8.5%
'12년 2차	299,168	240,880	80.5%	15,122	6.28%	전국	참여율 : 81.7% 피해응답율 : 2.2%
'13년 1차	290,194	253,253	87.3%	4,047	1.6%	전국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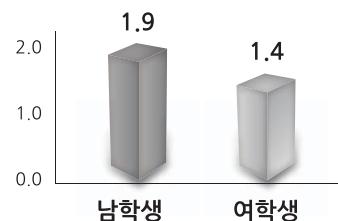
가. 학교폭력 피해 응답학생 분석

1) 학교 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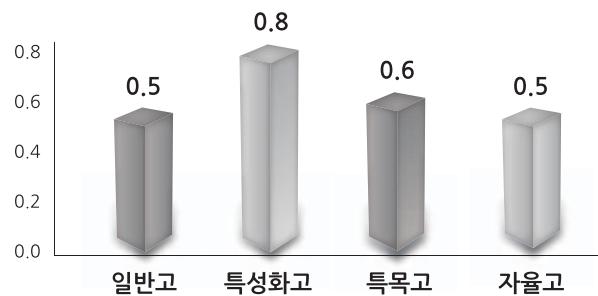
초 1,955명(2.8%)>중 1,547명(1.8%)>기타 4명(0.8%)>고 541명(0.6%)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피해 응답률이 낮아졌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피해 응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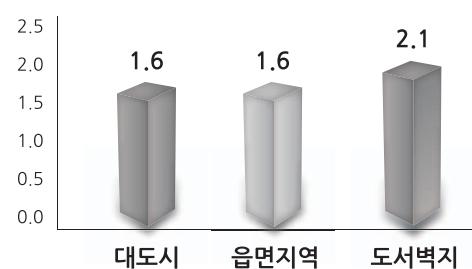
남 학생 2,371명 (1.9%)>여 학생 1,676(1.4%) 순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다.

3) 고교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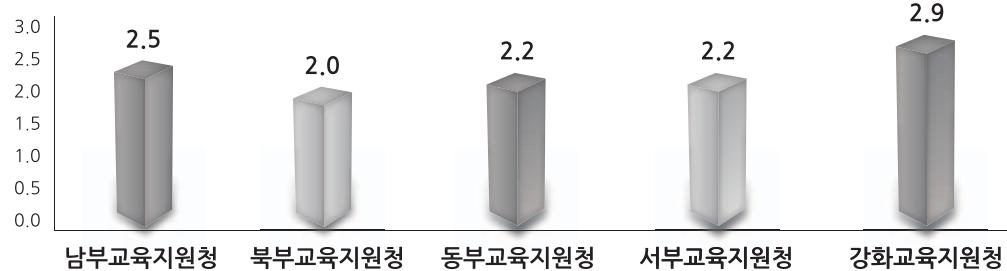
특성화고 149명(0.8%)>특목고 24명(0.6%)>일반고 344명(0.5%), 자율고 24명(0.5%) 순으로 고교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4) 지역 규모별



도서벽지 97명(2.1%)>대도시 3,937명(1.6%), 읍면지역 13명(1.6%) 순으로 도서벽지에서 피해 응답률이 약간 높다.

5) 교육지원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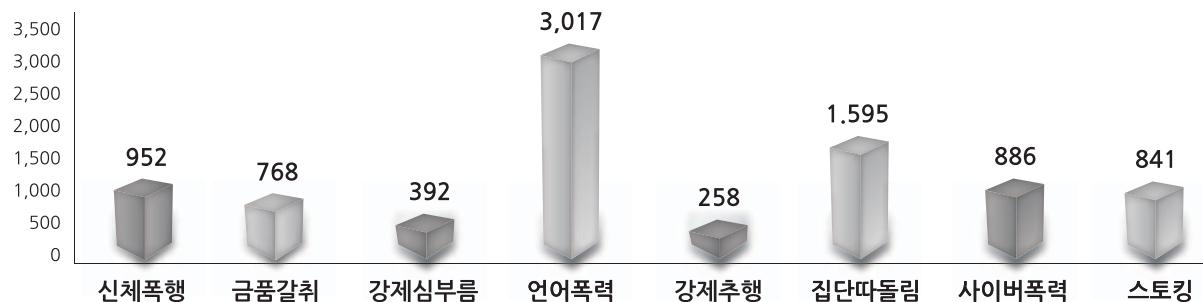


강화 76명(2.9%)>남부 680명(2.5%)>동부 1,058명(2.2%), 서부 1,063명(2.2%)>북부 619명(2.0%) 순으로 강화 지역에서 피해 응답률이 조금 높다.

나. 학교폭력 유형별 분석

1) 피해 유형

구분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언어폭력	강제추행·성추행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피해 유형	952 (23.5%)	768 (19%)	392 (9.7%)	3,017 (74.5%)	258 (6.4%)	1,595 (39.4%)	886 (21.9%)	841 (20.8%)



피해경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017명, 7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단 따돌림(1,595명, 39.4%) 순으로 나타나, 언어순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가해 유형

구분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신부름	언어폭력	강제추행·성추행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가해 유형	361 (17.4%)	280 (13.5%)	270 (13.0%)	947 (45.6%)	112 (5.4%)	1,064 (51.3%)	427 (20.6%)	280 (13.5%)

가해경험 유형도 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집단따돌림(1,064명, 51.3%)과 언어폭력(947명, 45.6%)이 가장 많았다.

다. 발생 장소 및 시간별 분석

1) 장소

구분	교실안	운동장	화장실	복도	기술사	학교내다른곳	학원	오락실 PC방	놀이터 공원	인터넷	집	기타
피해 장소	1,545 (38.2%)	185 (4.6%)	95 (2.3%)	300 (7.4%)	19 (0.5%)	602 (14.9%)	161 (4.0%)	80 (2.0%)	258 (6.4%)	318 (7.9%)	83 (2.1%)	40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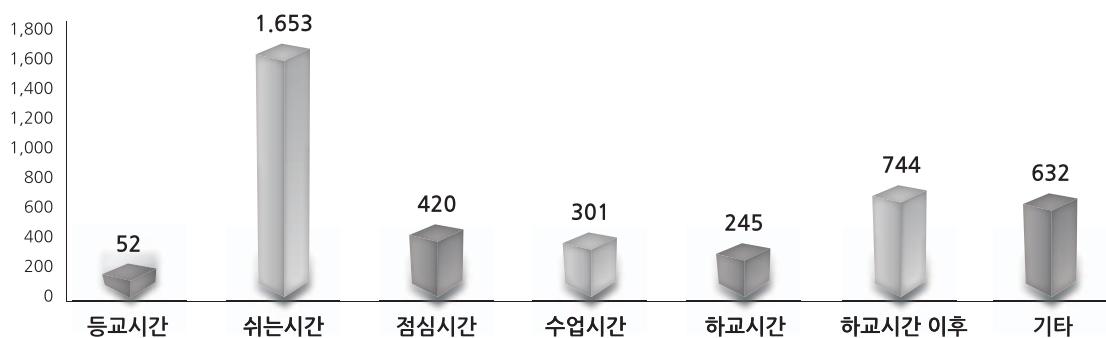


피해 장소로는 교실 안(1,545명, 38.2%)과 학교 내 다른 장소(602명, 14.9%)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시간

구분	등교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하교시간	하교시간 이후	기타
피해 시간	52 (1.3%)	1,653 (40.8%)	420 (10.4%)	301 (7.4%)	245 (6.1%)	744 (18.4%)	632 (15.6%)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1,653명, 40.8%)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수업 전후, 쉬는 시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라. 학교폭력 인식 수준 분석

1) 피해학생 인식

구분	전혀 힘들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평균
피해 인식	234 (5.8%)	283 (7.0%)	969 (23.9%)	1,270 (31.4%)	1,291 (31.9%)	3.77

피해를 당한 후 많이 힘들었다(1,291명, 31.9%)>조금 힘들었다(1,270명, 31.4%) 순으로 나타났다.

2) 피해자 공감 인식

구분	힘들었을 것 같다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해본적이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피해 공감	1,543 (74.4%)	70 (3.4%)	367 (17.7%)	95 (4.6%)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공감 인식이 74.4%를 차지했다.

3) 목격학생 인식

구분	말렸다	가족(보호자)알렸다	친구(선배)알렸다	교사, 알림함, 보안관에신고	117, 전문기관에 알렸다	모른척피했다	같이괴롭혔다
목격후 반응	4,573 (31.8%)	2,396 (16.6%)	2,370 (16.5%)	2,810 (19.5%)	514 (3.6%)	5,015 (34.8%)	181 (1.3%)

목격학생은 모른 척 했다가 34.8%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1. 교육청 대책의 주안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12.2.22~)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비율이 2012년 10.3%에서 2013년 1.6%로 감소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2012년 대책의 분석과 20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대책에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대책(13년 7월 23일 발표)과 201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13년 3월) 조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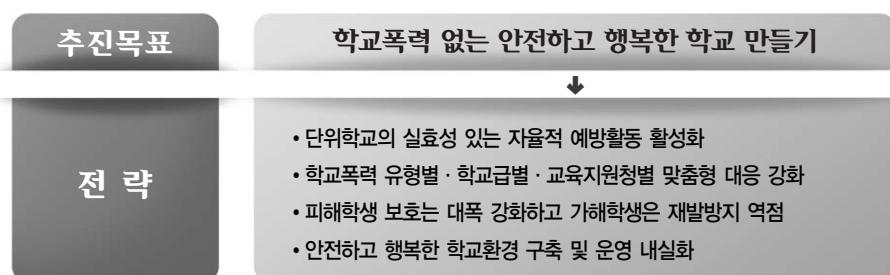
이 대책은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유형별·학교급별·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피해학생의 적극적 보호, 가해학생의 재발방지,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대책의 주요 내용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10대 과제와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대책 10대 과제

1) 추진 목표 및 전략



2) 중점 추진과제

- | | |
|------------------------|----------------------|
| ①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 ②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
| ③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적합한 대응 | ④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 ⑤ 피해학생별 특별보호 및 지원책 마련 | ⑥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조치 강화 |
| ⑦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조성 | ⑧ 학교역량 제고 및 관리 감독 철저 |
| ⑨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⑩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나. 중점 추진 내용

- 1)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서 10시간 운영 (2014년에 27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2017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
- 2)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별 예방 대책 수립 추진
- 3) 학생들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안전지킴이 운영, 또래상담 및 자치법정 활성화
-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 가해학생 선도 조치 결과를 현재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한 것을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반성 정도에 따라 졸업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함
- 5)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는 5개교를 시범 운영하며, 2014년에는 희망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함
-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깨동무학교 지정 운영(2013년에는 60개교를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임)
- 7)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피그말리온센터를 운영하고 가해학생 치유지원을 위한 부자일체 감동 캠프 지속적 운영
- 8) 학교안전공제회의 선치료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범위(간병급여)와 기관을 확대(전국)
- 9) 집단따돌림의 경우 처벌에 앞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이는 법 개정 후에 시행)
- 10)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과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참여유도
- 11) 언어순화 운동 자발적 참여 학교 110개교를 운영하여 언어폭력 예방에 주력하도록 함
- 12) 모든 교사에게는 5년 단위로 주기적인 상담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13) 은폐·축소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점검단 구성 운영

**IV. 학교폭력대책 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안****1. 승진기산점제도**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연 0.1점씩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점 부여대상자는 교원 정원의 40%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담임이 80%, 학교폭력 이외의 교원에 20%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가산점 부여 대상자 범위가 넓고, 실제로 학교폭력의 공과가 큰 학생부장과 차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승진기산점을 인사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심의를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폭력예방 및 해결 기여교원에 대한 승진기산점 제도는 현재 교육부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2.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시행 즉시 학생부(NEIS)에 기재하여 관리하되, 경미한 조치(1호, 2호, 3호, 7호)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퇴학(9호)을 제외한 기타 조치(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반면, 재심과 행정 심판이 증가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도 있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을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 저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초등학교의 가해·피해 조치를 중·고등학교와 획일화하여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발달단계 특성상 사소한 과롭힘과 사회적 친교 행동의 구분이 모호한 시기이므로 초등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현재의 학교 폭력 정의에 모두 해당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이 선도 조치를 받는 등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서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가해·피해학생 치유 지원 문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된 경우에 긍정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의 경우 피해

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더 많은 따돌림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위해 교우관계를 회복기간을 두고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화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회복기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선도 조치에 불복 증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 조치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재심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한 사건에 대한 조치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는 물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보완할 제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할 외부기관을 별도로 두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글의 닫기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소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여기고 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이 있듯 학교도 형제나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행복한 곳이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 중 학교 가는 길이 두렵고 학교가 무섭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를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고, 겪어본 일을 면 추억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에 직면한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할 때 생각과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에 폭력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은 담임선생님이었다. 담임선생님의 권위와 신뢰의 회복을 통해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육은 그대의 머리 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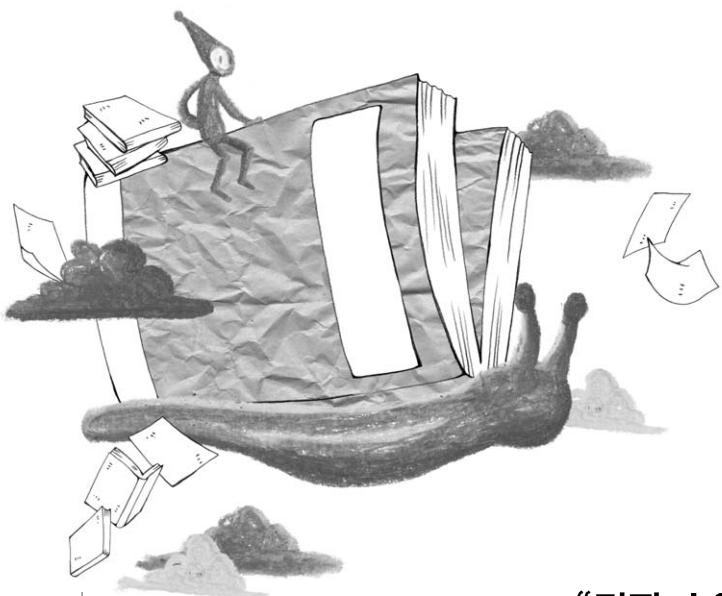
- 칼릴 지브란

기획특집 2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활동



- ◊ 꿈과 끼가 움트는 교실의 작은 변화, 행복수업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홍영일
-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school-to-work 프로젝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정책관 한홍섭
- ◊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학교 적용 방안
부평동중학교 교장 이상복
- ◊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장 윤성한
- ◊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중등교육 적용 방향
인천초은고등학교 수석교사 나일수
- ◊ 중하위권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사 정재철
- ◊ 인천 과학우수아 지도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장훈동



꿈과 끼가 움트는 교실의 작은 변화, 행복수업

“진짜 수업 같애요.”

이제 막 행복수업을 마친 한 아이가 들려주는 행복수업 이야기이다. “그럼 다른 수업은 가짜 수업이라는 뜻이니?”라고 물으니, “다른 수업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고, 또 배운 내용이 사회에 나가면 별로 써먹지 못하기도 하지만, 행복수업은 실제 도움이 되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이에 질세라 또 한 아이도 자신의 소감을 들려준다.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 수업!”

행복수업이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행복을 가르치는 수업을 말한다. 행복수업은 수업을 단순히 흥미와 즐거움으로 채우는 행복한 수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행복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잠시 그 취지를 뒤돌아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_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 흥 영 일

자살률 OECD 국가 1위, 청소년 불행지수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 국가가 이곳이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는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을 잃는다.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방송 매체에서는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폭력 등으로 인한 중고등학생의 자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고, 흡연과 게임, 인터넷 중독 등에 시달리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우리 아이들이다. 이와 같은 삶의 질 저하의 문제는 각종 통계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3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이유를 성적과 진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4%로 절반이 넘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물질적 행복도는 OECD 국가에서 4위를 차지한 데 반해, 주관적 행복도는 4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존감을 되찾고, 교우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 ‘힐링’이 필요한 이들이 교사이다.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은 학업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우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데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학교에서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나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성인의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막연한 신념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기성세대들도 최근 행복을 찾아 나섰다. 수년 전 ‘웰빙’의 트렌드를 지나 지금은 ‘힐링’, ‘행복’이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 누구보다 ‘힐링’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교사이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교육현장에 무언가 개선의 여지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교사의 행복감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모토를 내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단에 선다. 꿈과 희망을 가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여러 사회적 제반조건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꿈과 희망을 가꾸지 않는 사회적 현실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얹혀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옥죄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모든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돋는데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점점 행복이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작금의 교육 현실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 해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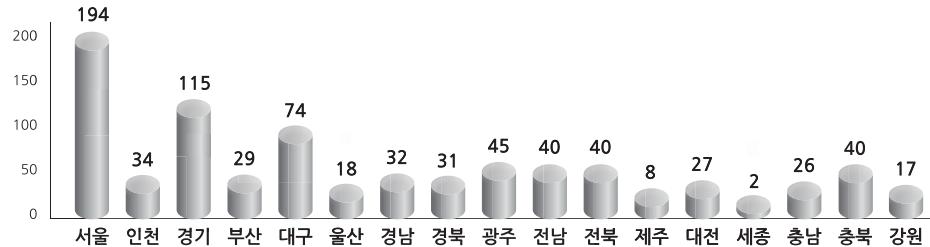


모색해야겠지만, 이미 행복하지 않은, 교직의 사명감을 다시 찾고 초심을 다시 세우려는 선생님들부터 먼저 행복을 배우고 아이들도 함께 배우는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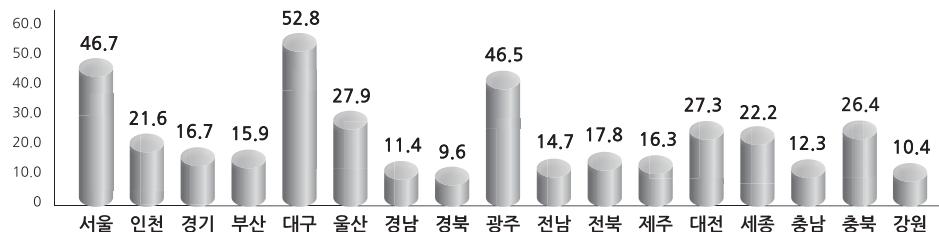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모토로 2011년 8월 무더운 여름에 서울대 문화관에서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하나 둘 모여든 교사들은 하나같이 상기된 모습, 무언가 찾는 모습,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모여든 교사가 400명이 넘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2011년도에 청소년을 위한 행복수업 교재 『행복교과서』를 발간하고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행복 대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교사들의 기대에 힘입어 전국 18개교에서 행복수업 시범학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학교 아이들은 행복수업을 반겼다.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실에서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은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다. 반기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한 교사는 행복수업을 하게되면서 진짜 해보고 싶은 수업을 하게 되어 행복했고, 또한 아이들과 행복수업을 하면서 정작 교사 자신이 먼저 행복해졌다고 한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행복수업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교사연수부터 철저히 진행하였다. “행복을 배우자”고 전국에서 모여든 교사가 3천여 명. 2년간 행복수업 교사연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연수를 통해 행복이란 것이 ‘바로 내 곁에,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 교사들은 학교로 되돌아가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2년간 행복수업을 실시하였거나 진행 중인 학교가 누적 통계로 770여 개교에 이른다. 2013학년도 2학기에만 300개교가 행복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행복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들이다. 중학교부터 시작한 행복수업은 이제 전국 중학교의 22%, 5개 중 1개교가 행복수업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2년간 누적 시도별 행복수업 실시학교(단위: 개교)
(총 772개교/중학교 695개교 포함)



2년간 시도별 행복수업 실시 중학교 관내 비율(단위: %)
(전국 중학교 수 대비 22%)



전국 17개 시도별 행복수업 실시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로서 관내 중학교의 과반이 행복수업을 실시해왔다.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교육청 차원에서 행복수업 확산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행복수업 교사연수를 기반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그 뒤로 서울과 광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2014년도에는 행복수업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1학기에 행복수업 시범학교를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초등용 행복교과서를 수정보완한 후에 2학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수업 현장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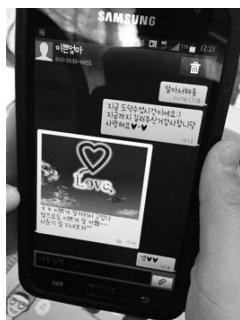
“스트레스 같은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행복한 걸 몰랐어요. 그냥 딱 좋을 때가 용돈 받을 때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놀 때였는데, 요즘에는 안 행복한 일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진다는 걸 많이 알려주니까 안 좋을 일 있을 때마다 행복교과서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생각이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일시적인 행복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앉아만 있어도 행복한 이런 것…….”

행복수업은 행복을 직접 가르친다.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에서부터 목표세우기, 음미하기, 몰입하기, 그리고 관계를 돋독히 하고 나누고 배풀며 용서하기 수업에 이르기까지 총 9개 주제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연습한다.’ 행복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체험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다. **행복수업은 무엇이 행복이라 고 가르치기보다는 직접 느끼고 연습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소에 감사의 표현을 못했던 부모님께
감사톡 보내기 활동을 하는 행복수업 시간



행복수업 시간에 친구, 선생님, 가족들에게
감사엽서를 쓰는 아이들



친구들이 룰링페이퍼에 적어준 자신의 장점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모방시
써보기 활동을 하는 행복수업 시간

“행복해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엔…… 근데 이제는 교우관계나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행복은 진짜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라고 행복수업하고서 그걸 차차 깨달은 것 같아요.”



관계 돈독히 하기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깊게 포옹하기 활동을 하는 아이들

행복수업은 이처럼 아이들의 친구 간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0여 년간 전국교사모임과 활동을 해온 한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의 길을 찾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사실 행복수업이 현존하는 학교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만능인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행복을 배우고 연습해가다보면 어느새 변화된 모습이 현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인천동방중학교에서 2년째 행복수업을 하고 있는 배은희 교사는 이러한 긍정적 신념을 이렇게 밝힌다.

“일단은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거의 전원이 그게 변화 아닐까요?”

배은희 교사는 행복수업을 통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아이들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었고,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믿어진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믿게 되니, 아이들이 나를 따라주더라고 한다. 교직 30년차에 명예퇴직을 고민하던 교사가 이제 행복 교사로서 다시금 꿈을 가지게 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수업은 ○○○ 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애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에요.”

이제 방금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다. 행복수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친구들 사이가 다 가까워졌고, 선생님과도 더 친해졌다고 한다. 다른 수업에 비해서 소통할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부연설명도 덧붙인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지향하는 행복수업의 이미지를 행복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변해주는 것 같다. 기성세대가 어떤 수식어를 써서 멋들어지게 표현한들 이 아이들의 순박하고 꾸밈없는 표현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 아이들의 느낌을 따라가 주는 것이 이제 어른들의 몫이다.



교사의 행복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1880년 미국의 빈민보호소에 14살 시각장애 소녀가 있었다.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콜 중독자,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 소녀는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그녀가 바로, ‘기적의 여인’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48년 동안 함께 한 스승 앤 설리번이다.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본 스승은 제자에게도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몇 년간의 힘겨운 재활 시간을 보낸 후, 클럽 코치를 전전하던 무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한국 수영 사상 최초 그랜드 슬램’의 주인공 박태환 선수를 7살부터 가르친 스승 노민상 감독이다. 함께 하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가대표감독 은퇴 기자회견,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마무리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 태환이가 있어 행복했다.” 행복은 서로 서로 전염되는 힘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을 연습하자.

‘행복한’ 수업이기에 앞서 ‘행복을 직접 가르치는’ 수업이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연습하는’ 수업이다. 오버뷰 이펙트(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지구는 그 어떤 경계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었고 나와 같은 이들이 사는 터전입니다. 이제 그 어떤 갈등이나 다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수개월간 작업을 하다가 내려온 우주인들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이다. 더 이상 물질적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 된 지금, 더 이상 경쟁의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해피엔딩의 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이것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의 방향이자 목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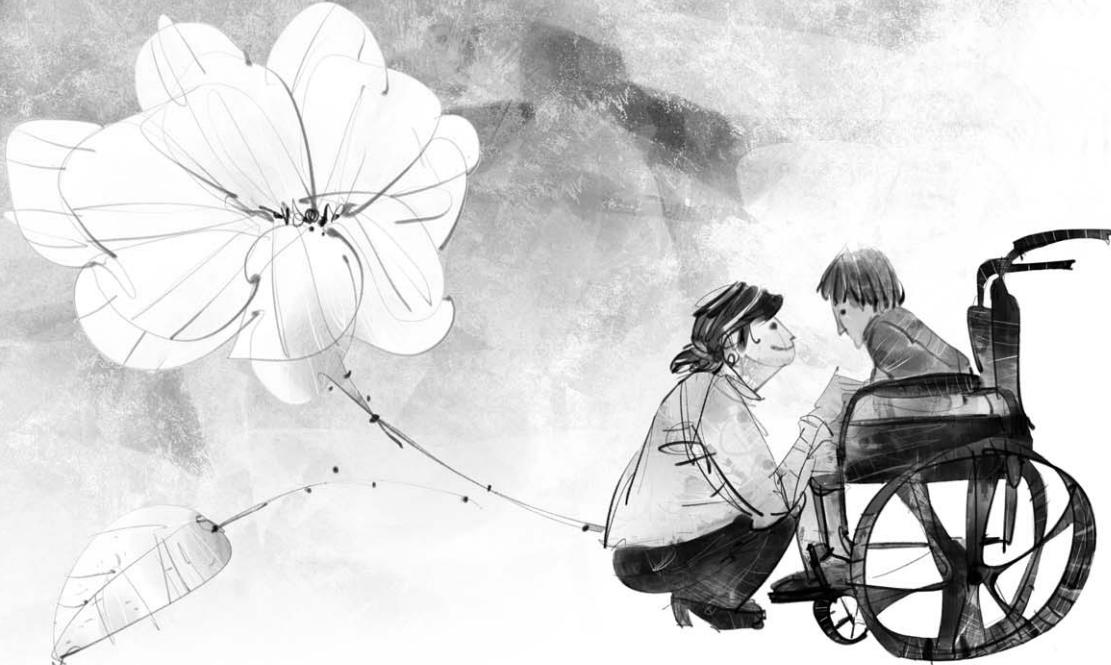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보물섬〉,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영국 작가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연습이다.

– 헤르만 헤세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School-to-Work 프로젝트



글_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 한 흥 섭

장애학생의 행복 미래 실현 School-to-Work 프로젝트

특수교육의 최종목표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이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감정, 꿈, 생각 등을 실제로 이루고, 지역사회와의 일원으로 온전히 흡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꿈이 실제로 실현되었나?’ 그리고 ‘사회 속의 일원으로 통합되었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직업’이라는 창(window)을 통해서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 꿈 실현, 그리고 능력 발휘를 통한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을 의미하며, 직업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행복 미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취업률 저조, 특수학급 배치 장애학생에 대한 대책 미흡, 진로체험 및 직업실습 기관의 부족, 장애학생 맞춤형 취업직종의 발굴 부족 등이다. 또한 학교와 직업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환경구성의 필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등도 제기되어 왔다.

우리교육청은 이상의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장애학생의 배움터·일터·삶터로 이어지는 진로직업교육 구현을 위해 School-to-wor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2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의 효과 역시 기대되는 본 프로젝트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School-to-work 프로젝트의 추진과제

첫째,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

진로교육의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환경 조성

둘째, 다양하고 특성화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인성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직업교육 실시

산업체 연계 직업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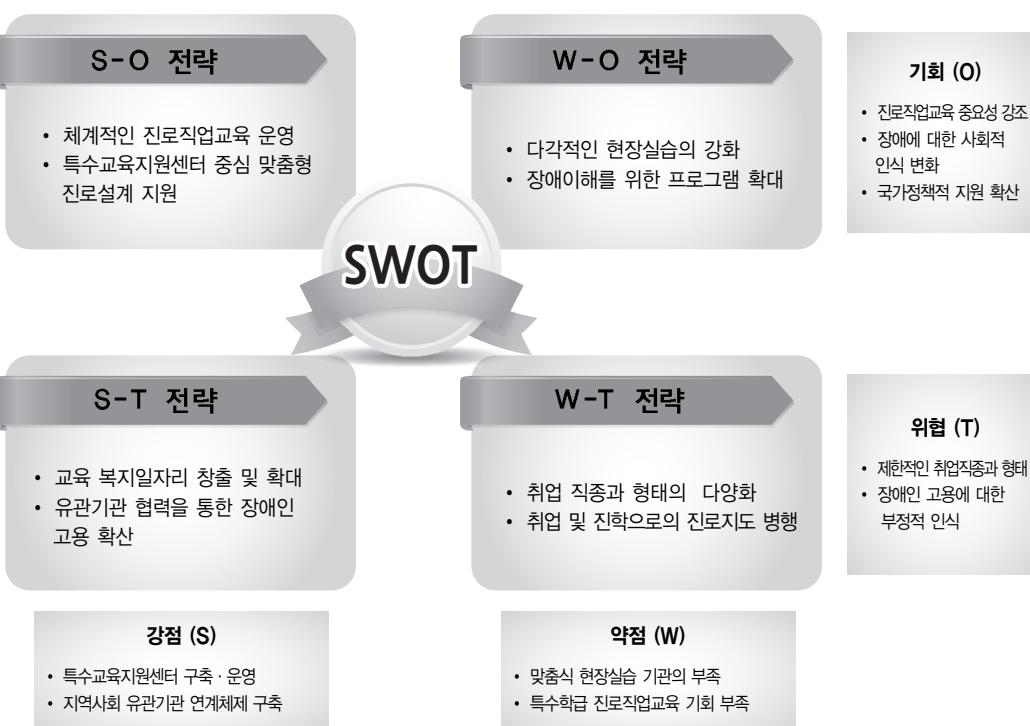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취업 및 전문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 인턴제 운영

취업기회 확대

전문교육 기회 확대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School-to-Work 프로젝트의 추진내용

1. 진로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과정 이상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과정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며, 직업교육과정 작성 시, 지역사회 사업체 분포,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직종 및 직무 분석, 학생 분석 등을 토대로 취업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교사의 전문성 신장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주제연구, 자료개발, 학생 캠프 운영 지원 등을 하며, 교사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교수-학습 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한다. 2012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 등으로 총 18종의 자료를 2013년에는 총 5종의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 Career Zone 구축

직업체험·직업실습을 위한 진로활동실을 7개 특수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정생활, 진로탐색, 직업생활, 여가·사회생활에 걸쳐 조리실습실, 세탁청소실습실, 정보교육실습실, 기초작업 실습실, 체력단련실 등 7교에 총 131개실을 구축하여 체험과 실습을 지원한다.

■ 진로교육의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총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46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직업교육실, 상담실, 일상생활 체험실 등 전문교육지원 시설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해

첫째, 맞춤형 진단시스템을 운영한다. 장애학생 개인별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고, 직업 흥미, 직업 준비도 등의 직무능력종합평기를 통해 장애학생의 잠재적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둘째,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교사,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장애학생 직업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강사 및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제과제빵, 서비스직무, 공예, 조립포장, 북아트, 도예, 요리, 바리스타, 댄스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유관기관 협력체제 지원사업 운영

문화예술 교육지원, 농촌직업체험 기회 제공, 적성·흥미·진로체험, 직업교육 실습·고용 지원, 교사연수 및 진학 정보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복지관, 지역사회기관, 산업체 등 총 80여개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 장애인식 개선활동

다각적인 장애이해 프로그램 추진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 장애인 예술가·공연, 장애학생 재능발표, 강연 등을 일반학생, 일반교사, 일반시민 대상으로 실시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인천시청, 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 주최
- 일반학생 장애인식개선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장애인권교육 강사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대회 실시 : 일반학생 대상 인권보호 사진 & UCC 공모전과 일반학교 대상 인권보호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2.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자립능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심리정서 치료지원, 일상 생활능력 인증제,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자신감 UP 연합캠프, 자립생활 훈련 등을 학교급별로 특색있게 실시한다. 또한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재능탐색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악, 공예 등 진로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재능발견을 위한 미술대회, 정보화경진대회, 장애청소년체육대회, 예술제 등의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재능 탐색을 위한 오케스트라도 운영한다.

■ 2+1 디딤돌 직업전환교육 실시

2+1 디딤돌 직업전환교육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2년은 학교중심으로, 1년은 산업체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중심의 2년은 장애정도에 따라 학교, 보호작업장, 복지관 등에서 교육받으며, 산업체중심의 1년은 각종 산업체에서 교육받는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란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인근 지역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다. 강화에 있는 강남영상미디어고를 거점학교로 운영하여 인근 소규모학교의 장애학생에게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한다. 5개 직업교육실 구축, 8개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지역 벨트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 농촌형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도 우리마을』과 MOU를 체결,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의 농업 및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농업 직업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콩나물 재배, 양계, 농사짓기, 화분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2박3일 실습, 일일체험, 방학캠프 등으로 운영하며, 학부모교실도 운영한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2013년 상반기 학생 만족도는 94%, 교사만족도는 98%다.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장애학생의 안정적 실습기관 확보 및 1차 연계 취업기관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미추홀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540평 규모의 총 20개 실습실을 구축하여 민간기업을 교내에 유치하여 인천관내 전체 특수학교 (급) 대상으로 실습지원을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물품조립·납품, 천연비누, 제과제빵 생산·판매, 카페운영을 통해 예절훈련, 서비스훈련, 단계적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다양한 직업기능의 숙련 및 현장형 직업태도 함양을 위한 것이다.

3. 취업 및 전문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 인턴제(With-Job 사업) 운영

산업체 인턴제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실습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고3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One-Click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턴제 운영 협력업체를 발굴, 기업소개 자료 및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인턴제 희망학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맞춤형 틈새직종 발굴

장애학생의 취업유형 다양화를 위해 취업가능 틈새직종(50종)을 발굴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분	기존 직종	틈새 직종
공공기관복지일자리 (24종)	시설관리 사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판기관리운영, 학교정원관리 등 - 학교기업업무보조, 도서관사서보조 등
	교육 및 서비스보조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보조, 교육보조 - 우편물 분류 및 배달, 침술 및 안마 등 - 천연비누, 된장, 고추장, 콩나물, 제빵 등
산업체일자리(26종)	공예, 제조조립, 운반 포장, 농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공예, 목공예, 커피제조, 물품운반, 콘센트조립, 완구조립, 문구류포장, 채소채집 및 가공, 바리스타 등

직종에 따라 반일근무제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도 마련하였다.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1일 4시간, 주5일 근무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각급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식당보조직, 도서관 사서보조직, 청소업무 보조직 등에 2012년 20명, 2013년 80명의 장애학생의 취업을 원하였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형태를 다양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직무 유형에는 학교급식실 보조, 사서보조, 행정업무 보조, 청소보조, 특수교육보조, 교무보조, 통학버스 보조, 특별실 관리 보조, Health-Keeper(시각장애인 안마사) 등이 포함된다.

■ 전문분야 취업을 위한 진학지원

다양한 진로개척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장애인특별전형 정보수집·분석, 학부모 동반 전문교육기관 및 학과 안내, 사례별 정보 제공을 위한 졸업생 초청 간담회, 전문가 초빙 맞춤식 진학지도 및 사회적응교육, 진학비빔밥회 참여로 진학상담 기회 제공 등을 실시한다. 전문분야 취업확대를 위한 진학지원 사업 운영 결과, 2013년 2월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2011년 대비 특수학급 68.7%, 특수학교 15.3% 증가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단기 추진계획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급기관과 각급학교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실시 하며,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전일근무제 등도 운영한다.
-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 진로교육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취업진학정보 연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장기 추진계획

-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 정보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업진학지도를 체계화한다. ◎





부평동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학교 적용 방안



I. 자유학기제의 이해

글_ 부평동중학교 교장 | 이 상 복

1.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 속에서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진정한 행복 교육의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과 교과 성적에만 집중해 온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공교육 내에서 진정한 행복교육 실현 방안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가 제시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제도로 행복교육의 실현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

이러한 교육적 맥락에서 행복교육의 첫걸음으로서 학교 교육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강화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통해 학습 방법을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수업 방법 마련을 통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 별로 학생의 기초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학교에 맞는 수업지도 방안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을 수업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자유학기제의 기대 효과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셋째,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이다.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협업 학습을 통해 사회성 및 인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시설을 이용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둠 협동 학습을 통한 교우관계 개선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교사·학생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자기 이해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

로 학습 동기를 찾아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과 지나치게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풍토가 개선되고,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공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부평동중의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1. 교육과정 재구성

2013자유학기제 정책추진학교로 선정되고 그 추진 단계에서 부평동중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유학기제의 근간인 교육과정의 유연화 취지에 맞게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오전에 이루어지는 기본 교과목 수를 12개 과목에서 국·도·사·수·과·영 6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방법을 토론, 문제해결학습, 모둠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 위주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다양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오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진로 탐색–마음성찰–문화·예술·체육 활동의 3-TRACK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학생들 개개인의 저마다 적성과 소질을 반영한 직접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학생 맞춤형으로 직업 체험을 3차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따로 떨어져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보적 관계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였다. 즉, 자율과정을 통해 발현된 학생 개개인의 생산적인 에너지가 학생 활동 중심 교과수업에 탄력을 주고 이것이 축적되면 서 선순환의 효용이 커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2.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구안

교육부에서 제시한 여러 개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중 부평동중이 선택한 운영모형은 진로와 동아리 활동 모형을 혼합한 진로·동아리 활동 혼합 모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진로·동아리 운영 모형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학년 2학기 예정 시수(기본교과 편성시간 중심)

과목	본시수	예정시수
국어	5	-1
도덕	2	-1
사회	3	
수학	4	
과학	3	
체육	3	-3
음악	1	-1
미술	2	-2
기술·가정	2	-2
한문	1	-1
영어	4	
창체	3	+11
합계	33	11
		33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3. 세부 추진 내용

가. 오전 기본 교과 교육과정

차시	요일	기본교과	세부 추진 내용	수업장면
1~4 교시	월 ~ 금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넘치는 융합교실 운영으로 교과 간 블록 타임을 구성하고 STEAM 프로그램 운영 문제해결 학습, 토론 학습, 모둠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위주의 다양한 수업 방법 구안 및 실행 교과 학습 내용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해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계기 부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관통하는 과목별, 단원별 진로 요소 추출, 진로 활동 중심 연계 수업 	

나.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추출 및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 간 융합 수업 실시

- 6개 교과, 10개 단원 융합 수업 진행 <※ 예시: 영어과 융합 수업의 내용>

영어	Lesson7. Yuri's New Hobby	→	Lesson7. Yuri's New Hobby
	Lesson9. Enjoy Korean Culture		Lesson8. Be a Good Internet User
	Lesson8. Be a Good Internet User		Lesson9. Enjoy Korean Culture
	Lesson10. Do You Know Why		Lesson10. Do You Know Why
	Lesson11. My Special Talent		Lesson11. My Special Talent

영어	적용 수업모형	융합계획 (자율선택활동 및 체험활동)			시기
		교과명	단원명	내용	
Lesson 7	프로젝트 수업	도덕	2. 삶의 소중함과 도덕	도덕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배워 영어에서 I want to... 구문을 활용하여 버킷 리스트 만들기	9월 1주
Lesson 9	프로젝트 수업	사회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치고 영어에서 건전한 문화의식으로 한국문화 소개 글 쓰기	9월 2주
Lesson 8	프로젝트 수업	국어	2-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국어에서 청소년 인터넷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하여 의견을 나눈 뒤 영어에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decahedron 제작해보기	9월 5주

다. 오후 자율과정

차시	요일	구분	세부내용
5-7 교시	월	두근두근...미래열음1 (진로탐색)	• SCEP-창의적 진로개발 워크북 '내 마음의 champ 여행'
5-6 교시	화	두근두근...미래열음2 (진로체험)	•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으로 〈건축학 개론〉(창의 공작 기계),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 교내 프로그램 3개반 운영 'Wi-Fi 창업가 정신'
5-6 교시	수	가만가만...마음성찰	• 자기소개, MBTI검사, 낙부이치치 만나기, 꿈!김수영! 독서를 통한 마음과 관계들여다 보기 • 단무도, 원예체험, 장애체험, 음악치료
4-7 교시	목	콩닥콩닥...행복채움 (스포츠활동)	•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수영, 스키, 볼링 프로그램(3주 순환) • 아이돌 육상선수권 대회, 모두의 패드민턴, 꿈나무 탁구대회, 태볼 퍼스티벌(운동장)
5-7 교시	금	콩닥콩닥...행복채움 (문화예술 활동)	• 9개 학생 선택 동아리활동 -학생희망 중심 동아리 조직(요리반,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술반1, 미술반2, 뮤직클럽, 만화 애니메이션, 아트클럽, 풋살)

요일별 학생 활동 모습



(월) '내 마음의 champ 여행'

(화) 'Wi-Fi 창업가 정신'

(수) '마음성찰'

(목) '스포츠활동 (스키)'

(금)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4. 운영 성과

- 가.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나. 토론수업, 문제해결 학습, 모둠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위주의 교실 수업 및 교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및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이 강화되었다.
- 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능력이 배양 되었다.
- 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변화 하는 지역 사회 직업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체험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마.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였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구현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바. 학부모·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교육활동 방안 마련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5. 운영상의 문제점

-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평가의 변화에 대처하는 교원의 인식이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의 부담 및 과거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소 냉소적이고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 나. 동일 학기 내 학년의 차이에 따라 두 개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운영되어 두 개 학년을 걸쳐서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 및 시간표상 변동이 여의치 않아 오전 기본교과 담당교사들이 1교시부터 4교시를 연이어 해야 하는 시간상의 물리적 어려움과 기본교과와 자율선택 프로그램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피로감이 크다.
- 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역 내 직업장들과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발굴, 섭외의 어려움이 크며 외부 체험활동 운영 시 학생 인솔 및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다.
- 라. 학생들이 지필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남은 물론 오후의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인해 다소 들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유 학기제를 자칫 ‘노는 학기’로 잘못 인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 마. 직업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동아리 활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교육 기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III.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한 제언

몇 차례의 시행착오와 거듭되는 보완 끝에 탄생된 부평동중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편성 과정에 들인 수고와 정성이 혀 되지 않게 학생들로부터의 반응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학생들은 1학기보다 한층 활기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들은 공부습관의 단절,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진 못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투입 후 자녀가 보이는 반응에 따른 신뢰감을 표현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내에서 진정한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항구적인 교육제도로 자유학기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폭주가 가져다주는 피로감 해소와 행정적 지원방안, 평가가 없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인 학생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 진정성 있고 체계적인 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진로 체험 인프라 구축 기준의 동아리 활동의 수준을 넘어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맞춤형 체험활동과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 모색등이 선결 과제이다. 이는 비단 부평동중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학기제 성공의 관건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 감지되는 학교 '밖' 분위기도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모두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조하거나 무관심한 분위기, 다른 하나는 '전면 시행까지는 어렵고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 혹은 '곧 거둬들이거나 대폭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사의 업무가증 측면을 배제하고 본다면 밖의 우려보다 안은 훨씬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되 기왕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채우고 덜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하고 만만하진 않지만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시도되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실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성하고 교과 간 융합교육 등 새로운 수업 모형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 과정 평가 등 꼼꼼하고 새롭게 평가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합하여 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생 자율선

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 대학의 연구진들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 선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바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연구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학기 자유학기제의 운영 과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걱정한 만큼 자유학기제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우리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학교교육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위한 기업 내 전담 체험 부스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는 스스로 직업 체험장을 열 수 있는 여건과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또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협업 기관들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교육기부가 활성화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종체적인 협력과 노력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미 없는 지식 교육과 끝없는 경쟁 체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 안에서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행복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

I . 들어가는 말

21세기 사회를 우리는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지식기반사회란 지식이 중요 생산 수단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뜻한다(이근호 외, 2012).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인해 21세기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제는 그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실익도 없다. 지식의 소유보다는 양질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즉,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전인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와 능력의 신장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학교 교육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글_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장 | 윤 성 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과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교과 간의 연계 부족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 필 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도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역량’이 주목받으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과 내용 지식의 전달을 넘

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이광우, 2013).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교 단위에서 역량을 어떻게 선정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아직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다소 시론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서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을 포괄하여 핵심역량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2.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현재 학습자들의 생활환경이 미래에 있다면 그들이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돋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거나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으므로, 비정규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¹⁾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교과 내용 지식의 습득을 넘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돋는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지식과 행위,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학문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길러야 할 학생의 역량이 교과 내용과 대등하게 교육과정 구성요소로 설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전제하며, 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 성취의 질 관리를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교과 내용 습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은 주로 교과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왔다. 따라서 교과가 교육과정의 목적을 결정해 왔으며,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다(소경희, 2012).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나 내용이 더 이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내용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교육

II . 역량 중심 교육과정

1. 역량

역량(competency)이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역량의 개념은 본래 직업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역량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과제 수행 맥락에 따라 적합한 자원을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역량은 절차화된 지식이나 기능의 반복적 재생 능력이 아니라 효과적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량은 개별 학습자의 차별화되거나 독특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초·중등학교를 통해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이며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이광우 외, 2009: 15). 즉, 핵심역량은 개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 능력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

1) 역량이 교육과정에 적용될 경우 아직은 시론적인 논의 수준인 터에 그 용어 역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역량 함양 교육과정’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과정 모델과 달리 지식이나 내용의 조직은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이 아니라, 교수 방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III.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1. 초·중등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역량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의 교육설계도이다. 그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실에서 그 나름으로 실천해 가는 기본 계획이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실현된 교육과정인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관점이 서로 잘 물린 톱니처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학교 교육이 교과서로 대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계발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교육과정 체계에서는 다소의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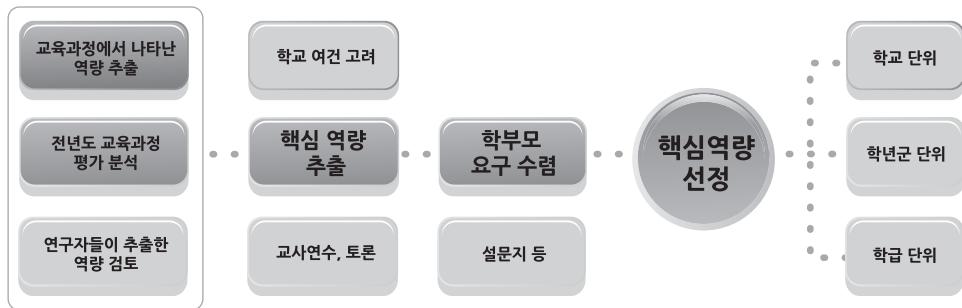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선행연구, 외국 사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미래 사회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이광우, 2012). 이를 역량 가운데 개별 학교에서 반드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발췌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역량

핵심역량 영역	하 위 요 소
창의력	창의적 사고 기능,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보처리능력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정보윤리, 매체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 관리, 관계형성, 리더십
자기관리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 선용, 건강 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기초적 쓰기, 수리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국제사회 문화 이해	우리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문화 향유 능력, 국제사회 이해, 외국어 소양
진로개발능력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2. 핵심역량의 선정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정해야 한다.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핵심역량은 초등학교의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 능력 같은 것들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핵심역량 요소들이 추출된다(이광우, 2012).

각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계발해야 할 핵심역량 요소(안)

구분	교과별 중점 역량 요소
국어	의사소통능력, 기초학습능력, 비판적 사고력
도덕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사회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수학	문제해결능력,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과학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실과	진로개발능력, 정보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체육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발달, 시민성(지역/글로벌)
음악	창의력, 자아정체성, 심미적 감수성
미술	창의력, 자아정체성, 심미적 감수성
영어	의사소통능력, 시민성(지역/글로벌), 기초학습능력

나.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 분석 결과 반영

대체로 이 부분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학교 교육목표야 말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그 학교에 고유한 역량의 총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교사,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정한 능력 함양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다.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 검토

아직 이 방면의 연구가 풍부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일은 학교 교육이 한쪽으로 경도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역량은 미래 사회 전망을 토대로 역량을 검토하고 이를 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도 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연구도 있다.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편(최상덕 외, 2012) 같은 것은 그에 속한다.

라. 핵심 역량 추출

이상과 같은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당해 학교의 핵심역량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추출된 역량이 바로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기 보다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특정 역량이 당해 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지, 지식 내용과 연관하여 길러질 수 있는 것인지, 평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교사들 간의 연수 및 진지한 토론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 학부모 의견 수렴

이상과 같이 추출된 역량들에 대해 학부모 설문 등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평가 시스템 구축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 핵심역량 선정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최종 핵심역량을 선정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정된 학교 단위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년군 또는 학급 단위에서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군 또는 학급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더욱 압축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교, 학년군, 학급 교육과정 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학교 교육과정은 여전히 교사 중심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교육과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 수업은 전혀 별개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반성적 성찰을 담고 있다. 교과 지식이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교과서 활용 수업으로 전환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과 간의 칸막이가 더 이상 의미 없으며 그 보다는 교과 간 융합을 통한 학습을 지향한다.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것들이 그 한 사례이다. 따라서 평가 역시 지식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후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길러졌는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IV.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각자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역량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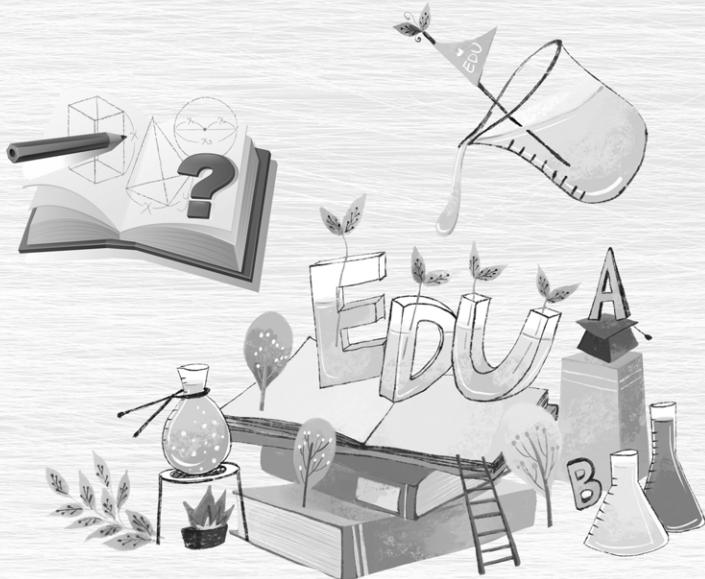
첫째, 핵심 역량 설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하는 인간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사회적 비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시된 비전을 토대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개발 그 자체가 수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교과 지식 및 기능 전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 프로젝트 학습, 통합학습(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적 접근), 팀 학습, 현장학습 등 참여적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 등의 핵심역량을 증진을 도모한다. 실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핵심역량 개발은 내용 선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량 기반 수업과 교과지식 중심 수업의 비교

역량 기반 수업	교과지식 중심 수업
■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강조	■ 학생의 개별적 성취를 강조
■ 학업성취 능력의 공통성 강조 – 이질집단 혼합편성, 개방적 접근	■ 학업성취능력의 차이성과 서열성 강조 – 계열화 선발, 탈락, 동질집단 수준별 편성
■ 모든 학생의 교육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 –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재원 확보	■ 교육비와 교육결과에 기초한 평가 – 학업우수아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 집단주의 지향 : 협동과 공동체적 사회 건설	■ 경쟁주의 지향 : 학교 간, 학생 간
■ 다양한 자질에 기초한 광범위한 가치 평가	■ 학업성취 능력에 기초한 가치의 평가

셋째, 핵심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모색이 요구된다. 핵심역량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전환에 따라 평가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교과 지식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을 통해 핵심역량을 개발했느냐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준거참조평가,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의 확대 등 평가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중등교육 적용 방향

1.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

교육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보다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장차 변화된 세상과 삶의 방식에 적절히 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최근 들어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이다. 달라진 21세기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로까지 불리면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질 높은 지식을 선별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축적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력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자(사회인)의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해온 ‘교과’ 아닌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 새로 제기되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단순히 교과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기 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더 기대한다.

2003년 OECD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러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 및 장치에 대해



글_ 인천초은고등학교
수석교사 | 나 일 수

논의하면서부터 국가적 맥락에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재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8월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교육비전과 전략」에서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적 감성 등과 같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특징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미래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10개의 핵심역량 영역을 설정하였고, 아울러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 10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009).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 (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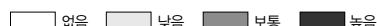
- ①창의력 ②문제해결력 ③의사소통능력 ④정보처리능력 ⑤대인관계능력
 ⑥자기관리능력 ⑦기초학습능력 ⑧시민의식 ⑨국제사회문화이해 ⑩진로개발능력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①창의력 ②문제해결력 ③의사소통능력 ④정보처리능력 ⑤대인관계능력
 ⑥자기관리능력 ⑦기초학습능력 ⑧시민의식 ⑨국제감각 ⑩진로개발능력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 국민의 지적 역량과 학습 역량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후로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적, 간접적으로 시도되었다. 핵심역량 증진이 개정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이광우 등, 2009), 국가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안에 이미 10가지 핵심역량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핵심역량에 관한 2007 개정 교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종합¹⁾



핵심역량 영역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의력									보통	
문제해결능력							보통		보통	
의사소통능력				보통		보통			보통	높음
정보처리능력			보통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높음		보통			보통			보통	
기초학습능력				보통					보통	보통
시민의식		높음	보통							
국제사회문화이해	보통		보통						보통	
진로개발능력										

1) 여러 교과에 반영되어 있는 역량과 특정 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정 교과가 특정 역량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수준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역량과 그렇지 않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분석 결과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과과정에는, 10가지 핵심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기존의 교과 교육과 역량 개발이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과 지식이야 말로 역량 개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준(지표)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산발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역량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자주인은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을 포함하며, 창의인은 기초능력 구비, 문제해결능력, 독창성과 새로운 가치창출 능력을 제시하며, 문화인은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세계인은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별 목표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핵심역량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이근호 등, 2012). 고등학교 목표에는, 제1항 “……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에서 ‘기초학습능력’과 ‘진로개척능력’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또한 제2항의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역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4항의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라는 역량 요소가 언급되어 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 핵심역량 요소들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 (가)항의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고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기초학습능력’과 ‘진로개발능력’의 역량이, (나)항의 “……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의 역량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항의 “……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에서 ‘정보처리능력’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라)항의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시민의식’과 ‘국제사회 문화이해’라는 핵심역량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특징

핵심역량(Core competency / Key competency)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역량들 가운데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필요하거나 혹은 여러 영역에 걸쳐 전이가 가능한 역량’을 가리키기 위하-

2)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 교육목표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역량은, (1)진로탐색능력, (2)기초능력, (3)문제해결력, (4)창의적 사고력, (5)의사소통능력, (6)민주시민의식의 6가지 정도이다.

여 사용된 용어이다(이광우 등, 2009). 핵심역량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핵심역량의 의미

미래사회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Core competency-based curriculum)이라는 개념은 미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적합하도록 개발되거나 설계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의 전달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 교육과정과 차별화된다. 즉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지식 전달의 관점이 아니라 교과 지식을 통한 핵심역량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우는 지식(교육내용)이 학교 혹은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연계되어 조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인 ‘대인관계능력’을 증진 혹은 계발하기 위하여 (교과별)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지식과 핵심역량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 먼저 다음 <표>에 제시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개순서	교육과정	목표	교육내용	비고
1950년대 전후	교수요목중심	-	교과목	-
1960년대 전후	생활 중심	사회생활 준비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의 필요를 반영)	사회 생활 (敎科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수행하게 될 실제적 活動)	■ “학교는 사회생활의 축소판” -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의 필요는 가변적임
1970년대 전후	교과 중심	교과지식의 습득	교과 지식 (해당 학문에 토대하여 위계성을 갖는 교육내용)	■ 특정 교과는 특정 역량의 함양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 지식 그 자체의 축적과 전달 - 교과별 분절된 지식 - 학습량의 과다 (위계화된 교과지식 체재·정보 · 지식의 폭발적 증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과지식을 수단으로 삼아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의 증진	핵심 역량 교과 지식	■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교육에 대한 반발 ■ 학교 교육과정과 실제적 삶에 요구되는 역량 간의 비연계성과 단절을 극복하고자 함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교육과정을 대체할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삶의 실제에 보다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다양한 미래의 삶의 영역에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다른 어떤 차원,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역량 교육과정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이 기계적으로 단순 지식과 정보의 양을 증가시켜왔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탈맥락적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즉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늘어만 가는 무의미한 지식과 정보의 단순 축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학습자의 편에서 의미 있게 선별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내용이 유의미한 것이 되게 하고, 활용능력을 갖도록 경험의 맥락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과 교육과정의 목적, 조직과 접근 방식에서 혁신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 교육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박민정, 2009).

먼저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지식 그 자체의 추구와 축적에 초점을 둔 전통 교육과정과는 달리,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역량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교과 교육 과정이 교육내용의 체계적인 전달과 관련된 교수목표 중심이라고 한다면, 핵심역량이 강조하는 교과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화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기보다는 “어떻게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둘째,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길러야 할 학생의 ‘역량’이 ‘교과내용’과 대등하게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습경험은 학생의 역량 계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총론 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의 내용과 학생의 역량을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내용지식과 함께 계발되어야 할 학생의 역량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내용 지식과 역량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가르쳐지도록 한다.

셋째,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조직하는 것과 아울러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식의 혁신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변화를 시도한다. 여기서는, 학문적인 내용 중심의 教師 주도적인 教授보다는 역량 중심의 學生學習에 초점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 전통적인 교과교육에서의 教科는 해당 學問의 측면에서 개념과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으며, 그것의 기본 경험은 내용에 기반한 코스였다. 교사들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며, 학생들은 대개 지식의 수동적인 수용자였다. 핵심역량 기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 그리고 제공된 教科보다는 학습의 過程 및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에 더 강조를 둔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 방법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사중심의 설명식 교육방법보다는 주어진 과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가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방법이 중요하다.

넷째,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한 얇의 형성뿐만 아니라 형성된 얕을 바탕으로 실천능력의 획득을 강조한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얕의 실천 능력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조직 양태와는 다른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기존 교과 교육과정이 견지해 왔던 교과별 분절적 체제는 종래의 산업화, 과학화 시대에서는 나름대로 안정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합한 것일 수 없으며, 개별 학문의 통제와 학문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구분을 떠나서 실제의 맥락에 적합한 지식의 계속적인 생성과 창출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한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기만 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배울 것이라는 순진한 가정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고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배울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능력들을 제대로 획득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나 학습했고, 그러한 학습의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학습력(學習力)’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3.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한 접근은 핵심역량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선행 연구(이광우 등, 2009; 이근호 등, 2012)에 비춰볼 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 방안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방안	주요 특징	장·단점	비고
1안 : 핵심역량에 따라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에서는 일관된 역량에 합의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한다. - 모든 교과가 모든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성과 강제성을 수반한다. 	전문가 집단에 서 반대 의견이 많음
2안 : 교과별 고유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교육과정 총론에만 10개 핵심 역량을 모두 제시하되, 교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안 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로 해당 교과에 직접 연관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각 교과를 재구조화한다. ■ 장점은 무엇보다 교과간 다양성과 교과내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 서 높은 공감을 받음
3안 : 혼합형 방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1안)의 접근을 따르도록 하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2안)의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다.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핵심역량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를 상당 부분 혁신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존중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총론 차원에서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교과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안이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나 그 실현 가능성에서 있어서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 핵심역량을 총론과 교과의 세부 편제 내용에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1안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안의 급진적인 방식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과를 대치하거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지식의 내용과 구조를 큰 폭으로 재구조화하는 경우이다. 2안의 온건한 방식은 교육과정 문서 차원에서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기존 교과 내용과 구성에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을 통한 변화보다는 주로 교수·학습 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교과가 핵심역량의 가장 중요한 경로임을 시사한다. 홍원표와 이근호(2010)는 이와 관련하여 교과교육의 목표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즉 오랫동안 신봉되어왔던 것처럼 교과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과가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입장으로의 선회를 말한다.



3)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의 적용 연한을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구현 방안(안)

단계	구성	구현 방안(안)
국가 교육과정	총 론	· 공통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교과 교육과정	· 교과 목표를 관련된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재진술 혹은 재구조화하고, 관련된 핵심역량을 해당 교과의 내용 체계표에 제시한다.
시 · 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의 강조점	·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중점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핵심역량을 제시한다.
학교 교육과정	교육목표	·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학년별 · 교과별 교육과정 계획	·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단원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 핵심역량이 반영된 단원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작성한다. ·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1. 핵심역량은 궁극적으로 학교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대강화된 핵심역량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행은 단위 학교나 개별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시도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에서 핵심역량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지나치게 작위적인 구분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학교나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구속하게 된다(이근호 등, 2012). 국가수준이나 시도 수준에서 대범주별 핵심역량 요소를 예시하는 수준에서 제시하는 까닭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교 또는 개별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때에는 학교 또는 개별 교사 수준에서 학생들의 적성,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핵심역량과 그에 따른 교과 내용을 선정 · 구상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또는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 핵심역량을 단위 학교교육에서 구현하려면, 교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개별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핵심역량을 재해석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정화한다.

핵심역량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가 아니라 ‘왜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최승현 등, 2011). 교과 내용이나 지식은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하나의 맥락이고 역량을 계발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과 지식을 어떤 식으로 맥락화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들을 길러줄 수 있는지는 교사 수준에서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교과 내용을 암기 수준에서 피상적으로 많이 가르치기 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감소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육내용 적정화는 이슈가 되어 왔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과다하다는 것이



다. 많은 학습내용은 지나친 학습부담이 되며 이는 결국 피상적인 학습이 되거나 탈 맥락적인 학습이 되어 학습한 내용을 필요한 장면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각 교과의 핵심개념이나 구조를 선정해서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분석·해석하고 평가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하는 등, 수업 자체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의 원활한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핵심역량 함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작성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를 매해 작성하지만 실제 그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은 물론 교실 수준에서 구현되자면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의 특성,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강조하려는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된 핵심역량을 함께 제시하며, 핵심역량까지 반영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작성한다.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양식)

일정	단원명	핵심역량	성취기준	교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성취수준

4.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내용 선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초점을 바꾸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무엇(교육내용)’을 다루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과 다양한 교수·학습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교사 위주의 수업방식과 획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역량 개발은 내용의 선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핵심역량의 개발은 ‘교과지식’ 그 자체의 습득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지식을 다루는 방식’에서, 곧 교사와 학생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핵심역량 교육과정은 ‘교과서’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이유와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방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관건이 되는 점은, ‘탈맥락적으로 단순하게 교과지식을傳授할 것인가’ 아니면, ‘교과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핵심역량을開發할 것인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역량은 교과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교과내용의 특성과 학습자의 요구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 교과지식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역량 향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핵심역량의 향양을 촉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핵심역량의 향양은 그에 합당한 평가 방법을 요구한다. 핵심역량의 도입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며 사실상 교육과정의 성패가 어떤 방식의 평가가 시행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역량,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역량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서술형 평가, 포토폴리오식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안의 도입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교육혁신위원회(2007), '미래비전과 전략'. 대통령지문 교육혁신위원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12-14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RRC 2008-7-2
-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소경희(2007),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의 과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과 학교 교육과 구성 방향, 교육부.
- 이광우·전제철·허경철·홍원표(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향양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상. 연구보고 RRC-2012-4.
- 최승현·곽영순·노은희(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국어, 수학,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11-1.

중하위권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UP!



글_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사 | 정재철

1.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초점을 맞춘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로 진학지도의 성패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에 비하여 진학지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진학에 대한 정보의 흥수에 빠져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상담에 임한다. 그렇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진학상담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교사를 찾아와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지도교사로부터 받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진로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지방 하위권 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등으로 진학하고 6개월이 채 못 되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위권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하위권 학생들에게 선택하는 진로 중 하나인 전문학교가 강조하는 학점운행제를 살펴봄으로써 하위권 학생의 진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2.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 현황 및 문제점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의 현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대학이나 전문학교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문학교 입학관계자가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안내 홍보를 위한 시간을 부탁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이유인 즉, 전문학교 입시홍보를 하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리고 책임감 없이 학생만 모집해서 데리고 가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입학관계자에게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홍보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전문학교의 중심 학과가 무엇이고, 취업은 어느 분야로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임선생님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전문학교에 대한 정확한 진로지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대도 이와중에 학생들의 전문학교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현재 일선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정보공개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이 20~30%정도 발생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전문학교로 진학한다.

나. 전문학교 입시 홍보가 학생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학교소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 3학년 담임교사는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서류를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8~9월에는 하위권 학생들의 심층입시상담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하위권 학생들은 입시의 사각지대에서 과포장된 작은 정보에도 쉽게 자신의 진

학을 결정하곤 한다.

라. 평생교육진흥법이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이래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사 207,272명, 전문학사 167,412명이 배출되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입시지도의 현장에서는 학점은행제가 아주 생소하고 마치 우리가 진학지도하는 아이들과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 전문학교 홍보에 필수적인 요소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일반편입)를 입시를 지도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학점은행제의 의미와 관련 사례

가.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000 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학점은행제의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社会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다. 학점은행제의 이용대상

고등학교졸업자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라. 학점은행제 관련 사례

2012년 말 3학년부장으로 정시입시 상담을 하던 중에 2010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K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K군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으로 3학년 때 수학을 지도한 학생이었다. 내신 평균등급은 5.0정도이고 수능고사 평균등급 역시 5.0정도 받았다. 당시에 K군의 성적으로 수시 및 정시에 진학할 곳은 지방대학 비인기학과밖에 없었다. K군은 주변의 평범한 진로를 택한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있는 ○○○항공전문학교 항공비파괴안전관리과로 진학하였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학점은행제에 의한 비파괴검사전문학사와 금속공학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비파괴검사,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자격증을 3개 취득하였다. 현재 관련업체에 스카우트 되어 취업이 보장된 상태이며 항공대 금속재료공학과 학사편입을 하여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자연이공계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냐고 물으니, 자신도 재학 중에 수학을 잘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는 능력과 끈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 600명 정도 입학해서 30~40%정도 목표를 성취한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학비는 2년 6개월 동안 2천5백만원 정도 들었다면서 옆에 계신 어머니와 웃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학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충고 한

마디를 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자신도 이를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어가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권유하였다.

4. 학점은행제의 운영 현황

가. 학습자 등록 현황

연도	1998~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학사	82,782	39,146	51,033	58,096	61,283	56,772	59,338	60,420	468,870
전문학사	76,867	12,376	18,022	25,073	34,237	39,802	62,087	73,351	341,815
계	159,649	51,522	69,055	83,169	95,520	96,574	121,425	133,771	810,685

나.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취득자 현황

학점인정제에 의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한다.

(단위 : 명)

연도	1999~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13전기	계
학사	18,108	12,883	20,708	24,748	31,442	26,051	19,478	19,687	12,580	185,685
전문학사	19,154	4,657	5,493	7,957	13,633	21,912	29,126	37,569	24,102	163,603
계	37,262	17,540	26,201	32,705	45,075	47,963	48,604	57,256	36,682	349,288

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취득자 현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위 : 명)

연도	2001~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13전기	계
학사	475	589	800	1,126	1,469	2,086	2,616	2,902	3,291	3,977	2,256	21,587
전문학사	176	178	353	427	339	365	425	496	459	367	224	3,809
계	651	767	1,153	1,553	1,808	2,451	3,041	3,398	3,750	4,344	2,480	25,396

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학사과정 학습자는 60,420명이 등록하여 23,664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문학사과정 학습자는 73,351명이 등록하여 37,936명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준일 : 2013. 4월 기준)

5. 학점인정 교육 기관

가. 교육기관 현황(전국)

2013년 4월 현재 국가에서 인가한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 관 유 형		기 관 수
대학 등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42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82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원	2
	인정직업훈련원	102
학 원	기술계학원	21
	사회계학원	12
	예술계학원	10
	고등기술학교	1
	군 교육훈련시설	28
	정부 · 지자체 등 교육시설	16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9
	특수학교	4
	평생교육시설	131
	합 계	573

*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전국에 573개, 인천에 18개, 서울에 234개, 경기도 91개 있음.

나. 인천지역 학점인정 교육기관 현황

2013년 4월 현재 국가에서 인가한 인천지역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 2013. 4월 기준)

지역	평 가 인 정 기 관 명	유 형	평가인정과목수
1 인천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메디컬캠퍼스)	대학부설사회교육원	82
2 인천	대한상공회의소인천인력개발원	인정직업훈련원	88
3 인천	동경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훈련원	17
4 인천	서울사이버신학	원격교육	34
5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대학부설사회교육원	80
6 인천	예일종합예술원부설예일음악예술원	평생교육시설	15
7 인천	인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대학부설사회교육원	84
8 인천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훈련원	146
9 인천	인천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	40
10 인천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인정직업훈련원	14
11 인천	인천직업능력교육원(고용부)	인정직업훈련원	10
12 인천	인천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훈련원	58
13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전문대학부설사회교육원	28
14 인천	인하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대학부설사회교육원	91
15 인천	인하향공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훈련원	30
16 인천	중앙직업전문학교(인천)	인정직업훈련원	78
17 인천	중앙직업전문학교(인천)(고용부)	인정직업훈련원	12
18 인천	한국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부평)	인정직업훈련원	58

6. 지도 방향 및 제언

첫째,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전문학교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 편입하기 쉬운 환상이 되지 않도록 진학지도교사는 정확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학의 사각지대에서 마땅한 대안도 없이 좌절하고 있는 하위권 학생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학지도자료로 통계처리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근무하는 단위학교의 졸업생 몇 명이 전문학교로 진학하였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진학결과의 통계처리에 전문학교(학점인정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도 정부에서 통계처리하여 일선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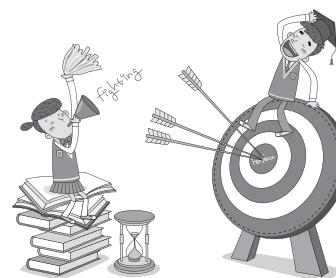
셋째, 일반고에서 대부분 교사는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3학년 담임교사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알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3학년 담임교사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진학의 방향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학점은행제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를 졸업하고 가정형 편상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학점은행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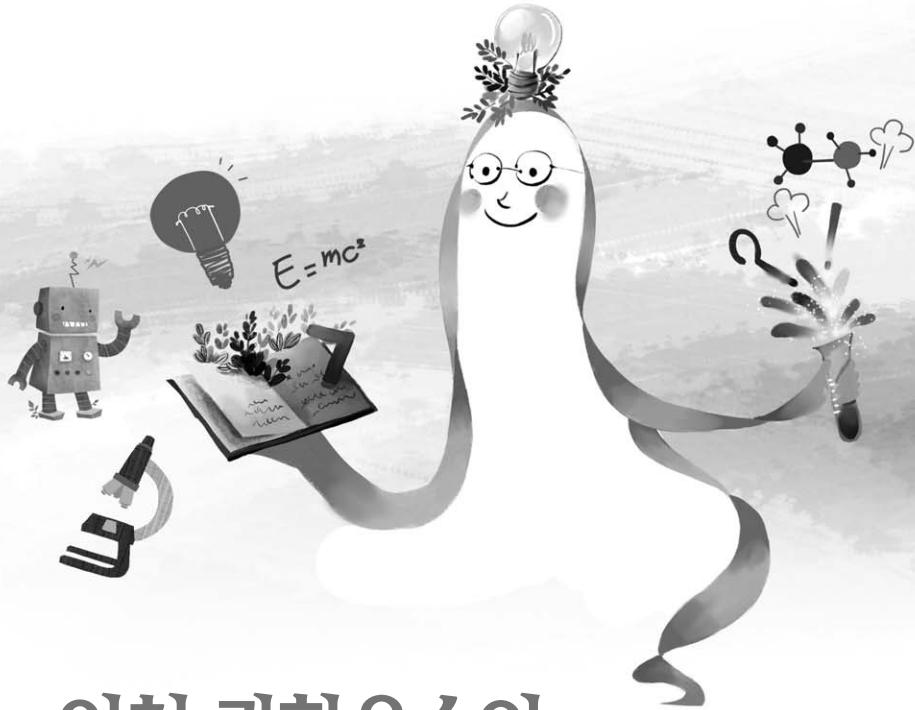
넷째, 진로목표가 새롭게 설정된 학생들 중에는 이제껏 예상할 수 없는 정열을 쏟아부은 결과 고등학교 시절과 전혀 다른 목표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학점은행제를 이해하고 전문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교시절과 다른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여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7. 본인 의지와 진학지도의 중요성

전문학교 진학에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진학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여 진학한 학생들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전문학사학위 취득정도에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하든 아니면 학위를 취득하고 편입을 하든,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전문학교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곳에도 목표를 성취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입시정보의 홍수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하느라 정신없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3학년 과정을 보낸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에 흥미를 잃었던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재미를 재발견한 학생들이 다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만나본 A군이 고3때 자신의 진로에 힘을 실어준 3학년 부장 선생님에게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인천 과학우수아 지도 현황과 과제



글_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 장 훈 동

들어가면서

얼마 전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흥미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지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결과가 이어졌다. 또 다른 일간지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87%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대학교 진학 그 자체를 강조한 사회 구조에 의해 대학 진학 자체가 공부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성공 여부를 단지 일류대학에 진학한 인원수로 판가름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데 바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래된 고민은 새 정부의 교육 비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새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개별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성장시

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들 중 어려서 과학자를 꿈꾸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막연한 꿈으로 끝나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꿈꾸어 왔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꿈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을까?’ , ‘학교는 그들이 과연 과학자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 ‘우리는 과학자가 꿈인 그들에게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오는 문제 풀이만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는 수업을 하지는 않았는가?’ 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해 인천 과학교육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인천 과학교육의 변화 노력과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어떤 학생들을 과학우수아라고 할까?

최근 인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학교육의 방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지식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으로 대변되는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는 학교 과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과학우수아라고 불리는 학생들이다. 과학우수아를 대상으로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일반 학생들의 과학 수업 현장까지 파급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과학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우선 어떤 학생들을 ‘과학우수아’라고 하는지 정의가 필요하다. 과거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영재인가?’ 하는 물음이었

다.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영재교육 대상자가 나오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재의 정의는 바로 영재교육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영재다’라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영재의 정의는 영재교육 분야, 수용규모, 교육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학우수아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과학우수아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결국 단위 학교의 교육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과거 미국 연방 정부의 국립 영재교육 연구소 소장인 렌줄리에 의한 영재의 정의는 우리가 학교 단위의 과학우수아를 규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렌줄리는 실제로 사회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극단적으로 높을 필요는 없는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창의성’ , ‘높은 과제 집착력’들이다. 렌줄리는 이 세 특성 중 한 특성에서는 적어도 상위 2% 이내에 속하고 나머지 특성에서 상위 15% 이내에 속하면 영재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과학우수아를 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의 변화의 틀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교사들의 노력으로 변하는 인천 과학교육 – 인천여고 사례를 중심으로

얼마 전 과학중점학교운영협의회에 참가하여 정년을 앞둔 노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집을 들고 과학실을 출입하던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연구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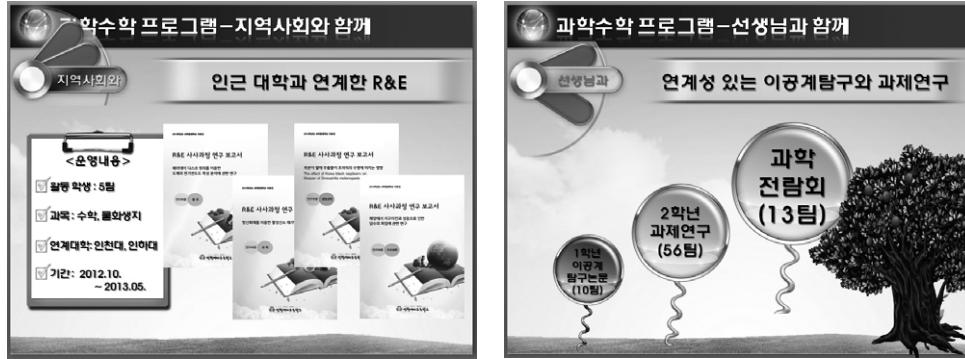


험하면서 무언가를 찾아 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나 자신도 교과서와 문제지만이 과학교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였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교사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이제야 멋있는 과학교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벌써 정년이 다가오고 있어 무척이나 아쉽다.”라고 행복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을 뵈 적이 있다.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답변자들의 상황과 직위에 따라 아주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선생님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가 좋은 선생님들이 유능한 과학교사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역시 그럴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교사들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과학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지도 역량이 하나 더 있다. 학생들, 특히 과학우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과학적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탐구활동 지도역량이 필요하다.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여자고등학교의 지도 사례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탐구활동 지도 역량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다. 과학중점학교 운영이라는 행·재정적 지원의 유리함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학교사들의 지도 역량과 과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노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운 교육적 성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여고에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수학 연구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이공계 탐구 논문 쓰기’와 학기당 2단위로 두학기를 운영하고 있는 ‘과제연구 활동’과 ‘인근 대학과 연계한 R&E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교과별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연구 활동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과학전람회 등과 같은 각종 연구대회에 출품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욕을 자극하였다. 그 결과 변화된 입시 제도에 대응하는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되었다.



인천 과학교육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가? – 각종 대회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한 과학교육의 변화의 노력이 과학중점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학교과학동아리를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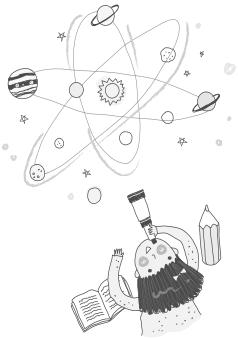
최근 접수된 2014년 과학전람회 출품계획서 제출 편수가 과거의 2배에 가까운 약 670편 정도가 접수 되었고, 2013년 「33회 인천과학전람회」는 지금까지 하루에 치러진 대회가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종 팀별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

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보인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와 과학교사들의 노력으로 최근 2년간 인천 과학교육의 성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과학전람회 2년 연속 전국대회 출품 작품의 절반이 특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타 시도와 다르게 교원 부문이 있어 교사들의 승진과 관련된 연구대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우리 인천의 경우 벌써 몇 년째 전국대회 출품 작품이 모두 학생 작품으로 출품되고 있다. 교사 자신보다는 학생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인천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할 뿐이다. 인천의 학생들이 이렇게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과학교사들의 지도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표 2012~2013년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입상 작품 목록]

2012년					2013년				
분야	부문	제목	학교명	상종	분야	부문	제목	학교명	상종
학생	물리	액체 방울이 동일 액체 위에 떨어질 때 왜 떠다닐까?	부광고등학교	특상	학생	환경	세대별(2G, 3G, 4G) 핸드폰의 전자파 발생과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인천여자 고등학교	최우수
학생	화학	팥찜질팩의 팥은 왜 익지 않고 뜨거워질까?	만성중학교	특상	학생	식물	꽃며느리밥풀 (<i>Melampyrum roseum Maxim.</i>)을 왜 반기생식물이라고 부를까?	남인천 여자중학교	특상
학생	동물	긴호랑거미 거미줄에 있는 Stabilimentum의 자외선 차단 효과에 관한 연구	인천과학고등학교	특상	학생	화학	이온 수용액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농도측정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원당고등학교	특상



[표 2012~2013년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입상 작품 목록]

2012년					2013년				
분야	부문	제목	학교명	상종	분야	부문	제목	학교명	상종
학생	농림수산	Streptomyces가 Rhizinaundulata에 미치는 항생효과에 관한 연구	인천과학고등학교	특상	학생	화학	젖은 종이가 건조될 때 장력변화에 대한 탐구	인천중학교	특상
학생	농림수산	꽃게 비린내 제거 방법 탐구	연평초등학교	특상	학생	동물	물명나방 2종의 구조와 생태에 대한 비교 연구	신송고등학교	특상
학생	식물	발효된 은행나무 열매를 이용한 해충방제 효과에 대한 탐구	구월여자중학교	특상	학생	식물	밤 껌질을 이용한 치아 바이오 필름 형성 억제에 관한 연구	인천과학고등학교	특상
학생	식물	강낭콩의 방충효과에 대한 연구	인천사립초등학교	특상	학생	지구과학	비너스가 남긴 벌자국 – 2012 금성 일면 통과에 따른 과학적 고찰	인천 진산과학 고등학교	특상
학생	지구과학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천체스펙트럼 촬영 및 행성의 대기 연구	인천과학고등학교	특상	학생	농림수산	고덕 건축물의 성당 지붕 양식을 활용한 히중과 풍貌에 강한 차세대 비닐하우스의 제안	기좌고등학교	특상
학생	산업 및 에너지	3D가상현실구현을 위한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제작 – 군사훈련용으로의 응용	인천고등학교	특상	학생	산업 및 에너지	저속 비행이 가능한 'SS705' 비행체에 관한 연구	부일중학교	특상
학생	환경	외래 달팽이가 수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천신현고등학교	특상					

이러한 수상 실적은 한국과교총 주관으로 개최된 학생창의력 경진대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각 부분별 최우수상 수상 상황을 보면 인천 과학교육의 발전상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표 2012~2013년 인천 학생들의 학생과학창의력경진대회 입상실적]

(인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3학년	과고 영재고
2012	동상 (5)	최우수 (1) 금상 (1) 은상 (3) 동상 (1)	최우수 (1) 금상 (1)	최우수 (1) 금상 (1) 동상 (1)	최우수 (1) 금상 (1) 동상 (1)	동상 (2)	최우수 (1) 금상 (1) 동상 (1)	최우수 (1) 금상 (2) 동상 (1)	최우수 (1)
2013	금상 (2) 은상 (1) 동상 (2)	금상 (1) 은상 (1)	은상 (1) 동상 (1)	금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2)	최우수 (1) 동상 (1)	동상 (1)	최우수 (1) 은상 (3) 동상 (4)	동상 (2)

2013년에는 조금 주춤하였지만 인천 학생들의 입상 실적을 살펴보면 타시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대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 인천 과학교사들의 과학우수학생 지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과학우수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것에 유념하여야 하는가?

하지만 과학우수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의 신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은 ‘비람직한 창의적 사고력이란 그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가 탄탄해야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 기본 바탕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창의력이라기보다는 공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돌을 주재료로 사용하던 시대의 사람에게 자동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한 상태이어야만 문제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상상력에 의하여 문제를 분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이란 논리적인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만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교육 중에는 부분적으로 습득된 여러 지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창의성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습득한 여러 지식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능력도 역시 과학우

수 학생과 보통 학생들을 구분하는 좋은 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우수 학생들의 지도에서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충실향 기초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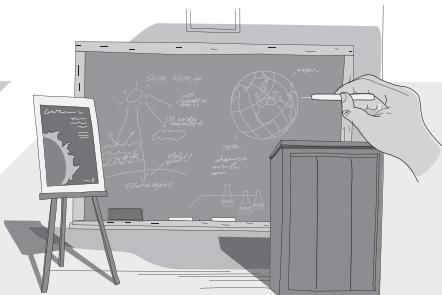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단적 사고의 중요성이다. 과거에 발표되었던 과학 논문과 최근의 과학 논문들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 형태나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과학적 성과를 내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하나의 관심 주제에 대하여 과학자 1인의 사고와 연구의 성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현대에는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팀별 활동과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과의 집단적 사고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

나가면서

언젠가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학교의 과학 실은 365일 불이 꺼져 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학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봉사와 희생이 없이는 이러한 과학우수 학생들의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기에 인천 과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과학교육의 발전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인천교육 발전 방향



글_ 인천학술진흥재단 이사장 | 가용현

1. 인천교육의 연원

올해로 인천은 정명(定名) 600년을 맞는다. 백제초기 비류의 도읍지로 1413년(태종13년)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 조용하던 어촌에 불과하던 제물포 포구가 1883년 개항을 전후하여 국가의 관문으로 외래문화의 유입 창구가 되면서부터 항구도시로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져왔다. 개항 이후 인천교육은 어떠한 성장과 발전 과정을 거쳐 왔을까? 유학사상을 강조하던 조선 시대에 전국에는 수백 개의 서원이 있었지만 인천에는 인천향교와 부평향교 그리고 학산 서원만이 있을 정도로 교육기관이 적었다. 근대 학교교육은 구한말 개화기인 개항기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인천항을 통하여 일본인과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거류하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서양인 중에는 선교사들이 많았고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서양식 교육이 도입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1882년 내리교회에서 활동하던 목사의 부인이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영화학당’을 연 것이 서양식 교육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공립학교는 1895년에 고종칙령으로 수업연한 4년의 새로운 형태의 학제에 의한 ‘한성외국어학교인천지교’(인천고의 전신)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인천시사’에 의하면 당시 인천 인구가 9500명이었는데 일본인이 4.700명, 중국인이 570명, 서양인이 60명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본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당시에는 구한말에 개교한 영화여학교와 인천공립상업학교를 비롯하여 23개의 학교가 있었으나 해방 후 변혁기를 맞아 학제가 바뀌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학교로 정착 발전하여 왔다.



2. 지역발전과 교육

서양식 신교육이 유입되고 공립학교가 설립되는 등 근대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일찍이 신교육이 자리를 잡았고 교육활동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교육환경도 크게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우수학생의 유출이 많아지고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양적 성장이 교육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인천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적 상위학생의 유출이 매년 늘어나다보니 교육의 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인하여 교육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애향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인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부평·주안 등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전국 각지에서 인력이 몰려들고 도시규모는 급속하게 팽창되어 갔다. 도시의 발전 과정이긴 하지만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1975년에

80만 명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180만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도서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과 항만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결여 시키고 서울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현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육성과와 연결되어 입시철만 되면 인천교육은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대학 입시성적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현실 속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탓할 수도 없다. 수도권 일류 대학 진학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부의 장차관이나 공공 기관장들의 지역별 출신 학교에서까지도 우리 인천은 도시 규모에 못 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 인근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는데 비하여 인천지역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50년대 인천소재 모 고등학교 입시에서 관내 중학교는 인천중, 동인천중 등 12개교에 불과했고 경기·충청 등 전국 각지의 86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던 시기의 성과와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인천교육에 대하여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학생이나 지역주민에 대하여 신뢰를 주고 우리 지

역의 인재를 우리가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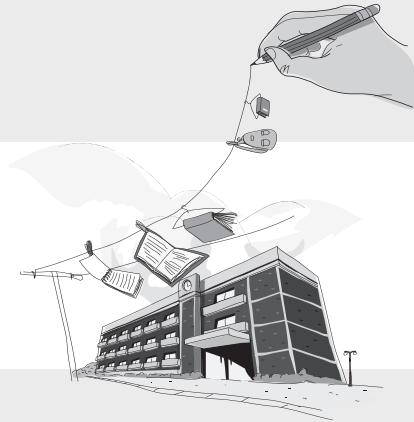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우수 인재의 유출을 줄이면서 애향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보면 수백 명에 달하던 타 지역 고교 진학생 수가 대폭 줄어 금학년도에는 90여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걸 보면 교육정책이나 특목고 신설 등으로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희망적 징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나 시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개발, 관련기관과의 협조, 시민과의 소통, 학교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신뢰를 높여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 변화와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정책도 개발되고 추진되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천이 글로벌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도시로서 변모하는데 대해 이해하고 교육발전의 좋은 기회라고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되었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외국자본과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인적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설치도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유·초·중등 과정인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 송도 지역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이미 개교하였으며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가 설립 승인 받았고

미국유타대학이 설립예정이고 러시아 등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편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한 11개의 국제기구가 송도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외국인 전용 복합레저 단지가 영종도에 건립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대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장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엄청난 변화가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기업이 생기고 유명대학과 국제기구가 들어오면서 지구촌 인재들이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하고 국제적 전문인을 만들기 위한 모델개발과 국제교류의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교육발전을 위하여

인구 규모로만 본다면 3대 도시에 해당하는 큰 도시가 되었으나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에 대한 신뢰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다. 기초교육이나 전문교육 등에서 안정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연구 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학 입시로 학력 전체를 불신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학교교육에서 학력 향상에 주력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은 행정기관을 통한 정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는 있으나 파급효



과는 크지 않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전통과 정서에 따른 정책 개발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접근방식으로 가시적 성과를 높여 애향심으로 연계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구 선생이 간했던 감옥이 인천이었다는 역사적 사실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인천 시민으로서는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야구장까지 건립 기부한다니 박수가 나온다. 애향심이 지역주의가 아닌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승화된다면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대한 정체성 정립과 문화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장학재단이 나름대로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다. 행정기관 지원단체로는 인천시 산하의 장학기구인 '인천장학재단'이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인천학술진흥재단'이 있다. 인천장학재단의 경우 인천시에서 매년 기금을 확충하여 상당액의 기금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1989년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

금 지급과 우수교원을 발굴,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문화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기관 지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금확보 방안으로 후원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재단 운영의 취지를 이해하는 교직원과 독지가들의 참여가 늘어나 지난 2년간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해 금년도에만 초중고생 6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원연구서클 3개 팀에 2천여만 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펼쳐 이어가고 있다. 후원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우수 지역인재를 유치시키는 효과는 물론 교육의 신뢰성 이 확보되고 교육자의 자존심도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학교교육이 도입된 후 130년 동안 인천교육은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초중고등학교만 500여 개교에 학생 40여만 명 교원 2만 명이 넘는 교육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하여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루어 놓은 교육성과가 대학입시에 가려지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사회 변화와 지역발전에도 눈을 돌려야 하고 애향심 고취를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인천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이 다소 나쁘지만 교육에 믿음이 가서 인천에 정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교육자들이 있지 않을까? ◎

인천교육에 바란다



글_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 박 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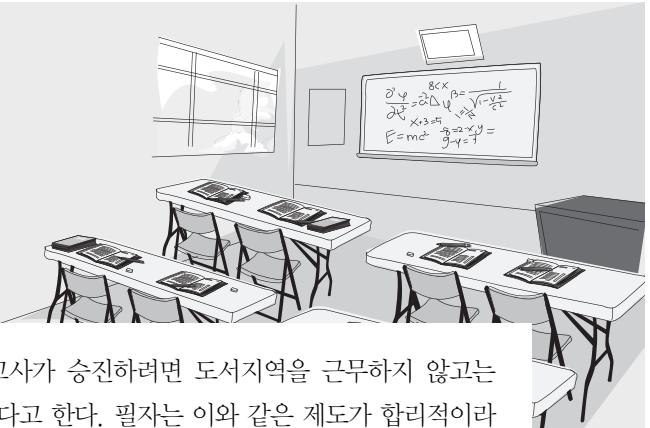


필자는 자녀를 인천지역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며 지역소재 사범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로서 인천교육을 경험해 왔다. 그 경험만으로 인천교육의 전반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연수원, 인사제도,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한 고교의 이전문제 그리고 대학입시 등에 대해 평소 느낀 바를 풀어내고자 한다. 인천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소망하는 필자의 진솔한 입장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연수원과 교사전문성 향상

현재 시·도 사이의 교육경쟁은 연수원 간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최종 주자는 교사이고 그 정책의 성공여부는 교사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입학의 수시와 정시 구조에서 논술지도나 ‘수리 가’ 영역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든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교사대상 심화 연수를 실시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수능 이후 3월이면 발표되는 시도 간 성적비교에서 인천이 모든 영역에서 하위권을 보이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되겠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연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해주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20년 이상 교육연수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정책의 귀결이라 여긴다. 연수원이



교사들이 수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연수의 시기와 질이 타 교육청 연수원에 비하여 뒤쳐졌고 그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학력저하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 지역 교사들이 연수원에서 열리는 연수에 참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어졌지만 전에는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었다. 1990년 개원 이래 20여 년간 그 접근성 때문에 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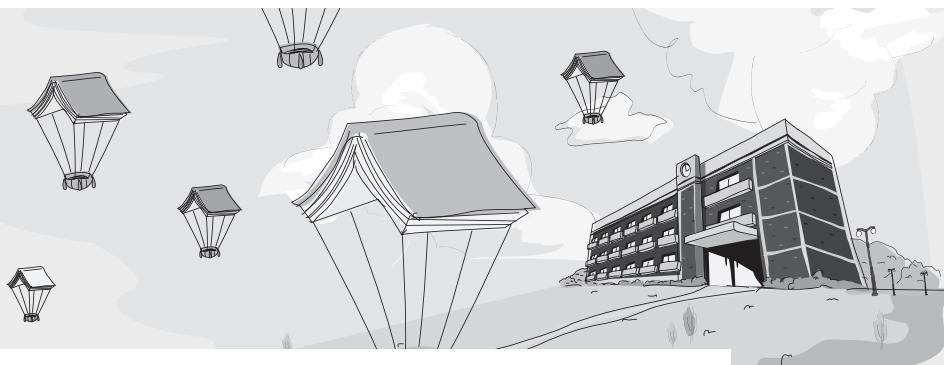
그동안 인천교육계는 연수원의 위치 문제 즉 현장 교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로그인이나 개인정보입력과 같은 절차가 있으면 이내 귀찮아 발길을 돌리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연수원을 시내 지하철 역 근처로 옮겨와 필요한 양질의 연수를 교사들이 퇴근 이후나 주말, 방학 중에 수시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사가 연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늘어나면 연수 참여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인천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도서지역 근무와 승진제도

전문직이나 교감승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안과 예측 가능성은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이 있다. 인천에

서 교사가 승진하려면 도서지역을 근무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유능한 교사들이 2, 3년씩 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교감 인사가 정체되어 이것도 승진에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한다. 그토록 유능한 교사들을 섬에서 2, 3년씩 근무하게 하는 승진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제 교육청은 도서지역 근무 가산점 제도를 재고하고, 섬 지역주민들은 섬에서 근무할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혹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섬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할 때,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섬에 근무한다고 판단하여 교육자를 대하는 기본예절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 유능한 40, 50대 교사들이 명예롭게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석교사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혁신학교 등에서 교감·교장으로 교육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경기도의 선례를 연구하여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교사의 승진과 관련한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개방화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개혁과 시도는 당장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발전을 위한 다소간의 고통은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고교이전 문제

필자가 동인천역 앞을 지날 때 현수막을 보고 안 일이지만, 1970년대에는 인천에서 최고로 변화한 지역이었던 남구가 현재는 낙후한 구도심으로 전락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제물포고교의 이전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제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경제력이나 지역상권이 아니라 그 동안 제교의 정책이나 구성원에는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우연치 않게 이 시기에 필자는 부산에 있는 경남고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경남고와 제교의 정말 똑같은 문제를 동문, 교육청, 지역구청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해본 적이 있다. 이때 생각을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제교가 현행 영재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수학·과학 중점학교를 운영했다면 어땠을까? 영재학급 운영은 제교 재학생이나 수학·물리교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도전적인 관리자를 조건으로 개방형 공모로 모집하여 제교를 맡겼다면 결과는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교 근처의 한 여고도 송도신도시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들었다. 필자는 오히려 이를 학교가 떠난 그 자리에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포철고와 같은 사립고가 들어설 수만 있다면 이 두 학교의 이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의 등장이 오히려 신포동 등의 동인천 지역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발달의 지속적 촉진을 위한 초·중등 교육 연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상호 긴밀한 연결은 학생의 바람직한 학습발달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 학습 상에 문제가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 적절한 대응 없이 바로 중학교로 진학한다. 중학교에서는 입학생들이 과거 초등학교 재학 시 어디서 어떤 학습장애가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기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지도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게다가 수준별 수업 하반은 정규교사가 아닌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습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결정된다. 즉, 학습장애로 인하여 특성화고교에 진학 못하고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초등에서 결정되고 현재의 초등과 단절된 중학교 교육 틀에서 이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히 수학·과학 교육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수학·과학교사 간의 교류와 연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의 편제 개편 때 초등과 중등을 아울러 창의인성교육지원과와 교수학습지원과를 구성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효율적인 입시 정책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 성과는 인천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현실적인 척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인천교육의 입시 성과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먼저 정확한 진학통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 등에 최종 등록한 인천출신 학생을 재학생과 재수생으로 구별하되 당연히 고려대(세종캠퍼스)나 연세대(원주캠퍼스)의 지방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수는 별도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정규교과시간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명문고교 육성을 위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였지만 그 결과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소

식을 접했다. 이는 이 문제가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필자는 도입 당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실패를 예전했는데 그 이유는 입시는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그 이후였기 때문이다. 즉, 인천의 학력문제는 그동안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을 지원하고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닌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에 시교육청이 팔을 걷고 달려들어야 한다.

끝으로 입시전문가인 고3부장이나 진로진학담당 교사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주변을 보면 고3부장 몇 번하고 몸에 이상이 있어 자신을 둘러보면 나이는 이미 50을 넘어 있고, 이른바 자신이 ‘교포(교장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그 전문성을 축척하고 유지 발전하겠는가? 부산시나 서울시처럼 진로진학 분야 유능한 전문가를 별도로 전문직으로 뽑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정식 교육청 조직에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사회 변화의 바람이 인재양성 방향에 주는 시사점



퍼플 세대의 등장

지난 9월, 조선호텔에서 메세나협회 주최 조찬회가 열렸다.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대표께서 디자인세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날 김영세 대표는 최근에 발간된 저서인 ‘퍼플 피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종래의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다음 직업군으로 퍼플칼라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퍼플은 우리말로 보라색인데 보라는 파랑과 빨강, 즉 신의 예지와 자애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을 합친 색이라고 한다.

김영세대표가 정의하는 퍼플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신인류들이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행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근무형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한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에서 가치를 발견해내고 일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완벽한 혁신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글_ 코글로닷컴 회장 | 이 금 륭

‘C-제너레이션’ 시대의 도래

김영세 대표는 이들을 ‘C-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였다. 종래 우리는 세대별로 행동양식을 영어 이니셜로 표현하였다. ‘X-제너레이션’은 65~76년에 태



어난 세대로서 90년대 중반에 많이 쓰였다. 더글러스 커플랜드가 91년에 발표한 소설 '제너레이션 X'에서 따온 것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 뜻대로 행동하는 럭비공 같은 세대를 의미하였다. 또 'N-제너레이션' 이란 단어도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돈 탐스콧이 97년에 쓴 그의 저서 『디지털성장: 넷세대의 등장』에서 나온 단어로 '가상공간을 무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인터넷 세대로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세대'를 의미한다.

김영세 대표가 주장하는 'C-제너레이션'의 특징은 아마 Creation 즉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Facebook, Twitter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대들을 의미할 것이다. 세상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에서 연결된 자와 연결되지 못한 자의 격차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이러한 제너레이션이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메가트랜드 관점에서 영어 이니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인류사회에 메가트랜드를 설명하는데 알기 쉽게 제시한 분은 엘빈 토플러 박사이다. 그는 평생을 "The Wave Of Wealth"라고 하는 "부의 물결"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특히 1980년에 발

간된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사회를 예견한 명저이다. '제1의 물결'을 농업혁명으로 '제2의 물결'을 공업혁명, '제3의 물결'을 정보화 혁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영어 이니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공업화 사회는 'M'의 시대

우선 '제2의 물결'인 공업화 사회는 어떤 단어로 표현 할 수 있을까? 이는 'M-Society'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물결'인 공업혁명은 제조업이 부를 이룩하는 1) Manufacturing 사회이다. 무언가 유형적인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과 노동과 시설로 대표되는 이 시기는 공장을 갖고 생산품을 만드는 사람이 부를 이룩한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재벌들도 이 시기에 탄생했다. 또한 2) Mass Communication이 각광받는 시기이다. TV와 신문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대량의 정보를 제공한다. 3) Memory가 뛰어난 사람이 인재로 취급받는 시대이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현재가 'Walking Dictionary'라고 불리는 시대로서 모든 시험 문제가 암기력을 요구한다. 4) Male 즉 남성중심의 사회이다. 블루칼라로 대표되는 이 시기

에는 모든 면에서 남성우위의 사회가 형성되고 남성들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이 밖에도 Mass Production, Manual 등 ‘M’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정보와 지식 사회는 ‘I’의 시대

다음으로 ‘제3의 물결’인 정보와 지식 사회는 ‘I-Socie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 Information 혁명이다. 1970년대 중반 컴퓨터의 상용화로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가 시스템으로 가능해지면서 정보의 입수와 처리가 공장과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IBM, MS, ORACLE과 같은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Information System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경쟁력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2) Intelligence라는 의미의 지식사회도 이 시기에 중요한 흐름이다. 원래 정보라는 뜻에는 영어로 Data-Information-Intelligence라는 뜻으로 이어지는데 객관적 정보를 수집한 뒤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 자신의 콘텐츠를 Intelligence라고 한다. 우리가 지식사회, 지식재산을 이야기 할 때의 지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 역량의 차이는 이 Intelligence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Internet도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이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발명품인 Internet은 I-society의 핵심이다. 이 밖에도 International, I-Phone 등도 I-Society에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창조와 상상력의 사회는 ‘C’의 시대

마지막으로 ‘제4의 물결’인 창조와 상상력의 사회는 “C-Society”라고 할 수 있다. 1) Creation 즉 창조이다. ‘제4의 물결’의 핵심단어로서 종래의 단순한 데이터와 이성 논리 사회에서 차별화를 포함한 생각의 틀을 바꿈으로서 인간의 감성을 감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창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사고 한계를 넘어서 독특하고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다.



2) Culture 즉 문화도 이 시대의 키워드이다. 감성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는 예술과 문화가 융성되어야 한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화중심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다. 국정지표로 문화융성이 나오게 된 것도 시대적 조류이다.

3) Customer 즉 고객중심의 사회이다. ‘제4의 물결’은 고객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회사의 존립이 어렵다. 고객은 각종 SNS를 통하여 서비스의 만족과 불만족을 나타내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스티브잡스 사후에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베조스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회사 신입사원 모집에도 아마존을 “이 세상에서 고객을 가장 존중하는 회사”로 표시할 정도로 고객 감동의 최일선에 있다. 또 이러한 고객의 행동양식을 연구하여 데이터화 하는 것이 빅데이터로 유망한 분야이다.

4) Collaboration, Convergencency 등도 이 시대의 키워드이다. 창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협력이나 융합이 필수적이다. 만일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이 없다면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수평적 통합을 기하여 새로운 기술과 국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5) Connectivity 즉 연결이다. 이제는 글로벌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Facebook 회원만 10억 명이 넘었다. 카카오톡을 통하여 무료문자와 국제통화를 할 수 있다.

‘C-Society’ 시대의 Champion, Corea!

이제 세계는 리얼타임으로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Society에서는 변화를 의미하는 Change, 공헌을 의미하는 Contribution, 도전을 의미하는 Challenge 등이 있으며 Contents라는 단어도 자주 쓰이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C-Society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 Corea가 Champion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학교를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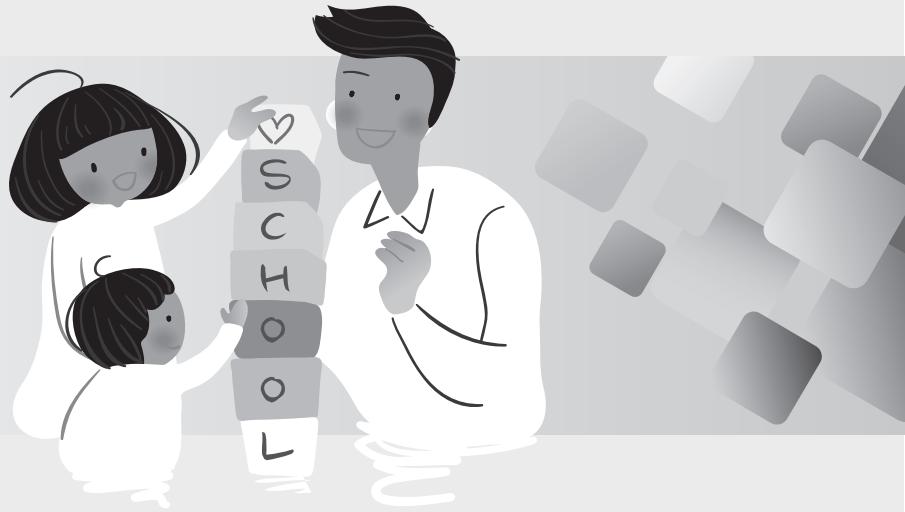


글_ 만성중학교 학부모 | 권 흥 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인천대공원을 아이들하고 걷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님으로부터 원고 의뢰를 받았다. 학교와 인연을 맺어 온지 15여 년을 뒤돌아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기 위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남들 앞에 내세울 만큼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부끄럽기 짹이 없어 글쓰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부족한 글이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년 동안의 학부모 운영위원 활동

큰녀석이 5학년이 되었을 쯤,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문득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육성회장(지금의 학교운영위원장)을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다. 학부모가 되어 그 옛날 마련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이 무척이나 행복하였다. ‘내가 학부모운영위원 일을 한다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행복한 추억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정실을 찾아 등록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껏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연이 되어 봉사하고 있다. 15여 년의 운영위원 활동 중 8년 동안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남자인 필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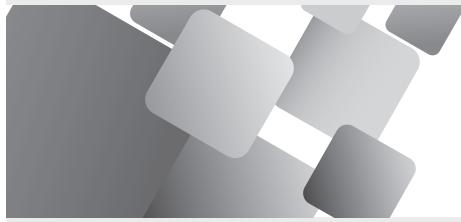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8년 동안 하니 가끔 신입생 1학년 어머니는 필자가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아침 일찍 나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지키는 일이 힘들었지만 안내에 따라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들과 손을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대표로 경찰서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가니 경찰관이 하는 말 “여기는 녹색어머니회 모임자리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하고 물었다. 녹색어머니회 참석차 왔다고 인사를 하자 녹색어머니회에 아빠가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중학교 때는 교복공동구매로 참여했고 고등학교 때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학교를 위해 일을 하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일을 보았던 경험으로 인해 최근에는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 단장과 학부모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필자는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학교현실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리한 생각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학교 참여의 빛과 그림자

얼마 전 뉴스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높으면 오히려 자녀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덕성여대 김두환 교수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았다.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부모들의 학교 참여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도 부모들이 교사나 진학 관련 정보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경우 학교 만족도가 낮았다. 연구팀은 부모가 자신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을 학생들은 감시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부정적인 모습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어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일을 할 때 무슨 감투라도 쓴 양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학교를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런 모습을 본 학생들은 부모가 학교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초·중·고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학부모 운영위원 가운데도 덜 성숙한 학생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초



등학교 때의 학교운영위원회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이라는 직함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점검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감투로만 생각하여 봉사하는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학교 행사에만 나타나 내빈석만을 지키는 일부 학부모 운영위원회들은 학부모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했다.

중학교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 전체를 살펴보는 활동이 아닌 자신의 아이 하나만 보고 자기 자녀의 성공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노력하거나 일희일비하는 모습으로 학교 전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전체를 통찰하는 모습으로 어느 누구의 아이가 잘 되었다면 함께 축하도 했다. 그리고 학교전체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 서로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위원회들과 학교와의 갈등이 학생들의 귀에 들어가고 혀된 소문만 무성해져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여러 학교에서 보았다. 물론 학부모와 학교가 잘 화합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많이 보았다. 충남 거산초등학교 방문을 통해서는 학부모님의 역할이 학교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고, 강화 가내초등학교에서는 고개 숙여 존경을 드리고 싶은 열정적인 오늘의 스승상을 만나 행복감에 젖어들기도 했다.

학교 참여의 지혜

15년 동안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며 크게 깨달은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한다.

첫째,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학부모이건, 그렇지 않은 일반 학부모이건 모두 생계 활동 못지않게 ‘가화만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학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로 인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힘을 소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가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범죄행위는 성인들의 범죄수법을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 외에도 ‘보살핌’의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것으로 진보하고 있으나 ‘수업’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감당하기 버거운 점이 많은 현실이다.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겨 놓고 부모로서 방관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둘째,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일을 감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은근히 과시하려고 정치인들을 학교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초대하거나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시청, 교육청에 들어가 학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여 학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학교의 문제를 무조건 감싸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학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하고 교육적으로 학부모가 행동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을 보여주고 존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존경의 대상이 사라진 지 오래 된 듯하다. 사회 지도자들의 비리가 매스컴을 통해 신랄하게 들춰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존경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래에 들어 많은 걱정을 받고 있는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도 바로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은 인식하고 실천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학교는 단체 활동을 통하여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에 기반을 두어 옮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훈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그 학생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스펙을 만들어 대학에 진학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앞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다섯째, ‘자기주장’ 못지않게 ‘귀기울여 듣기’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자기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는 듯하다. 정치인들을 보나 학교 현장에서 학부

모님이나 학생들을 보아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보하고 남의 말에 귀기울여서 소통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는 자폐증 친구들, 우울증 친구들 등 소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린다. 상담실에서 선생님을 대신해 멘토 역할까지 한다고 한다. 이런 우리 아이들 두고 수준에 안 맞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따돌림 시키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는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또래들 보다 생각이 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장성한 아이가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지금 당장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학부모 운영위원이건 아니건,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한 번이라도 눈을 맞추어 대화하기를 권한다. 아이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귀기울여 경청하고 맞장구치는 것부터 실천하기를 제안한다. 학교에 참여 할 때는 반드시 전교생이 내 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된 뒤에 학교와 상의하여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꿈꾸는 섬, 선재도



글_ 사진가 | 김 연 용

도시 생활을 하는 내내, 갯내가 그리웠다. 학창시절, 버스가 학교를 지나 소래 포구를 지나칠 즈음이면, 창틀으로 밀려들어오는 그 비릿한 내에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뛰어내렸다. 어떤 이들은 입을 소매로 틀어막기도 하지만 난 그리운 고향 생각에 큰 숨 한번 쉬고 진하면 진할수록 눈물겨운 그 갯내를 한껏 맡는다. 가방을 깔고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멀리 고깃배들 사이로 희미하게 선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내 텔털털 조개 캐러 가는 경운기와 굽은 혀리로 그 뒤를 쫓는 어머니가 주르륵 흘러내린다. 아, 나의 고향 선재도. 이곳은 선녀가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섬이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신선 선(仙)에 재주 재(才)라는 의미가 있으니 맞는 말 듯싶다.

4대째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내려온 것은, 도시에서 학교 생활을 중단한 십여 년 전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도움이라도 될 성

싶어, 무작정 내려와 선재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였다. 모든 게 서툴렀다. 놀 거리라고는 하나 없는 이 시골에서의 삶은 따분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아버지와의 고기잡이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쉽지 만은 않았다. 바다에 나가시기 시작할 무렵, 아버지에게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생명줄’. 집에서부터 바다에 쳐 둔 그물 까지는 자그마치 10리. 그러자면 8km의 길고 퉁퉁한 줄이 필요했다. 우선 그물가게를 찾아 가벼우면서도 질기고, 갈고리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표면이 매끄러운 줄을 골랐다. 우리는 집에서 어장까지 그 줄을 길게 연결했다.

아버지는 쇠갈고리로 줄을 훑으며 집과 어장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쇠갈고리와 ‘생명줄’의 마찰 열로 인해, 제아무리 질긴 줄이라도 못 배기고 끊어지고 말았다. 여러 번 바다로 나가시던 도중에 줄이 끊어져 천지간을 해매던 아버지를 보기도 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여러 차례 혐한 고비를 넘기시더니, 아버지만의 지혜가 하나둘씩 쌓이셨다. 이마에 닿는 햇볕과 두 뺨에 스치는 바람만으로도 집과 어장의 방향을 가늠하시더니, 나중에는 생명줄이 끊어져 있더라도 갈고리를 휘둘러 끊어진 부분을 찾아 다시 이으시기도 하셨다.

아버지는 안 보이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는 듯 어장까지 손수 만들어 가셨다. 의지를 가진 아버지에게는 앞 못 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럭이며 놀래미 등이



쏠쏠하게 잡히니 살림에도 제법 보탬이 되었다. 바다 일에 보람을 느끼신 아버지는 어장을 넓혀 나가셨다. 눈 먼 아버지에게 바다 일은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모두들 불안해하며 말렸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 한 가닥 빛이 되는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다.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이 바다를 난 ‘아버지의 바다’라 불렀다.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도시로 나가고 싶은 젊음의 욕망을 차마 억누를 수 없어 괴롭게 지내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바닷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나를 지켜보던 윗마을 동네 어르신이 다가와서 물었다.

“젊은 놈이 뭐하는데 얼굴을 찡그리노?”

“예.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도우며 살고 있는 아랫마을 사람인데요. 넓은 도시로 나가서 못 다한 미술 공부와 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섬에 갇혀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벼락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네가 살고 있는 이 풍광이 그림이고 저 바다가 철학인데 어딜 가서 스승을 만나겠다는 거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바람에 매우 놀랐다. 어르신이 떠난 바닷가에 앉아 다시 섬들을 바라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저 섬들이 수천 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겠지. 세상 어디에든 그들만의 리그는 있는 법이니까.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일까 바다를 나가보면 자연의 현상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지랑이 아래에서 조개를 줍는 아낙들이, 한가로이 갯벌에서 쉬고 있는 철새의 무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없었다. 스스로 굳게 닫아두었던 감각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며 아버지의 삶을, 내가 느끼는 고향을 사진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집 마당에서 모랫길로 이어진 목섬이라는 섬은 내가 찍은 섬 사진들 중 가장 많은데 모세의 기적을 하루에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무인도다. 목 줄기처럼 모랫길이 길게 늘어져 있어 목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도 따뜻한 날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 그 모랫길을 산책하곤 한다. 물이 들어오면 그 길이 간혀 다시 섬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 무인도 갯벌 체험에 정신 팔려 그 목섬에 몇 시간 동안 간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경우들도 생긴다.

얼마 전엔 바닷길 열리고 너른 갯벌이 펼쳐진 이른 아침. 친구와 해초라도 따다 먹을까하고 어장으로 나섰다. 제법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길을 잃을까 두려움도 함께 밀려 왔다. 갯벌은 위치를 알아차릴 그 무엇도 없는 사막 같아서, 길을 잊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소식을 접해본 터라 더욱 그랬다. 주위에 있던 어장 나온 주민들도 용성대기 시작했다. 물으로 나오려고 허둥지둥 방향을 찾는 동안……. 모두가 안개 속에 간혀 버렸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평화롭던 갯벌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눈을 감거라!’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귀를 의심하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는 감각에 모든 것을 늘 맡기셨기





때문에 안개 속의 어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풍당당하게 다니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야 해!'

친구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멀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차가운 바람의 방향, 놀란 마음에 움츠려 있던 여러 감각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발걸음을 천천히 떼어 걷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다다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그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후, 비로소 모래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 아버지는 이 길을 매일 이렇게 다니셨구나! 고기잡이 하시며 늘 자신 있게 걷던 걸음 속에 아버지가 느꼈을 두려움들과 고민들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이렇듯 선재도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겨울엔 빙산처럼 떠다니는 해빙. 한여름 밤의 갯벌에서 만나는 은하수. 어느 외국의 멋진 곳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아버지 하늘 가시고 바깥 나라들을 떠돌이처럼 여행 다닌 적이 있었다. 거기서 얻은 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만난 고향 사람들은 삶을 멋지게 즐기고 있는 최

고의 부족이었다. 나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것들은 또한 나를 종종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아침, 저녁 시원한 바다를 보며 좋아하는 소박한 음악을 듣고, 노을 사이로 지나가는 한 무리의 새떼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들을 속삭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나를 가끔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선재도 삶에서의 사색이요 기쁨이다. 도시에서 순간의 쾌락과 여행을 위하여 눈앞의 것을 쫓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 고향 선재도가 나를 불러주었다. 이곳에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많은 아름다움을 내 아이에게도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일 환하게 함께 웃을 것이다. 삶은 그렇게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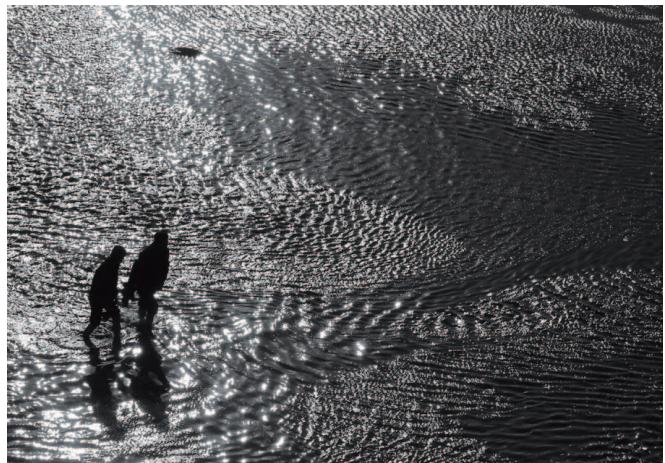
남극을 달리다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다.

사실 바다에 눈이 쌓이는 일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썰물일 무렵 폭설이 내리면 놀랍게도 바다에 눈이 쌓인 채로 온 세상이 남극처럼 되어버린다. 내가 어렸을 적 대장장이였던 아버지는 추운 겨울 마당 앞이 빙판으로 얼어버리면, 일을 하다가 말고 의자를 뜯어낸 나무와 녹슨 철사를 구부려 썰매를 만들어 끌어주시곤 했다. 엄하던 아버지와 함께 썰매를 탄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둘 다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달리던 기억은 지금도 가슴시리도록 전해져온다.

오늘 나는 어렸을 적 아버지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이불 속에 있는 아이에게 주섬주섬 옷을 입히고 낡은 썰매를 꺼내 우린 꽁꽁 얼어붙은 바다로 향했다.





“아이야, 우린 남극 한가운데를 여행 중이란다. 너는 아주 작은 얼음 소년이고 난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아름다운 날. 감기 따위 두려워 말고 신나게 달리자.”

아무도 없는 넓은 바다를 달리며 아이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린다.

어렸을 적 내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작은 기억들을 아이에게 잘 전해 주는 일.

어쩌면 그것이 짧은 세상사는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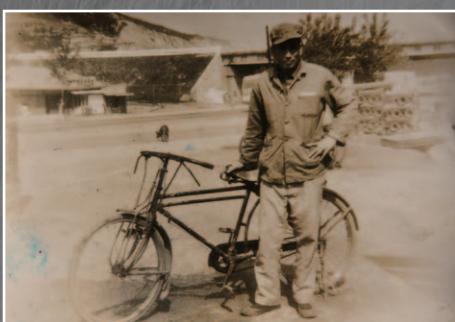
인천! 사람이 있다

PHOTOSKY 교사 사진동호회



인천, 한 장의 사진들을 통해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1. 인천 변화된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찾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통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변화된 인천의 모습을 찾다.



1

2



2. 인천 그 골목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골목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8땡이라고 좋아하는 할머니의 모습,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550원 정도하는 연탄을 배달하는 老부부의 모습,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공간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골목 안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8 9 10

5, 6, 7 – 인천 십정동 / 8 – 만석동 노부부
9 – 인천 부평동 / 10 – 인천 북성동



3. 인천 추억을 만들다. 인천, 지난 시절이 그리워지면서 잠시나마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

2

3

1, 2 – 인천 검암동 / 3 – 인천 부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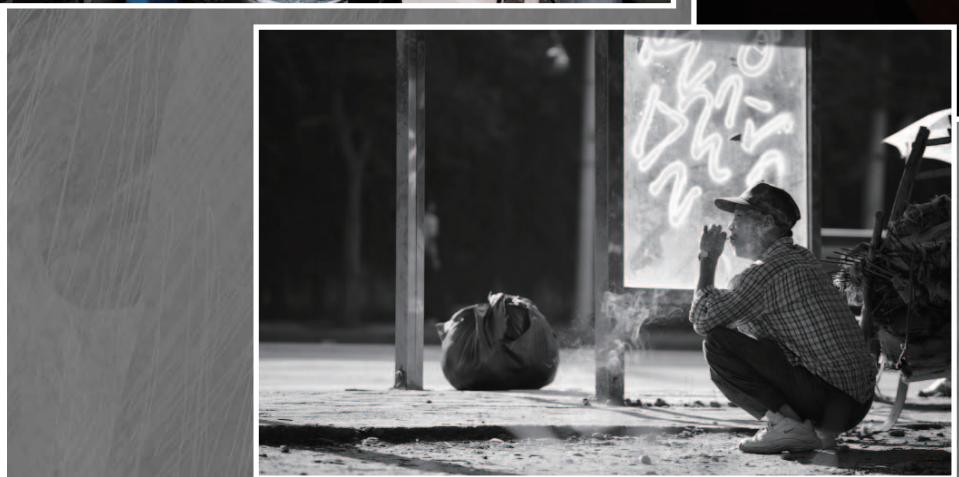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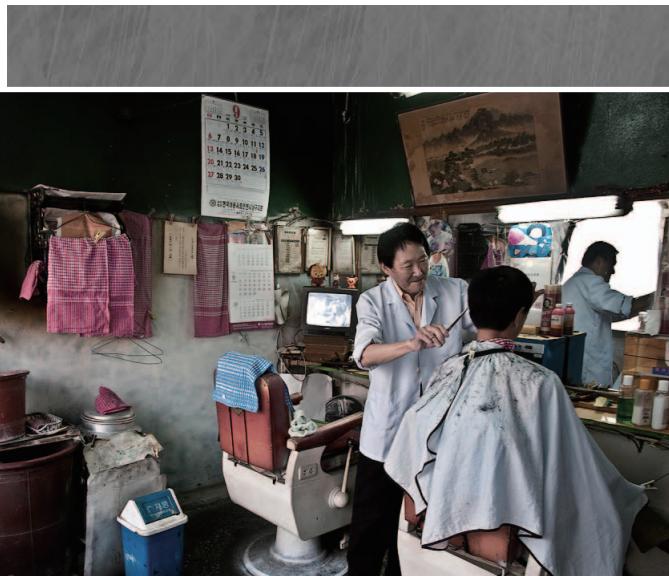


4. 인천 포구가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최대의 포구이며 어시장이었던 북성포구. 지금은 초라하고 낙후된 작은 포구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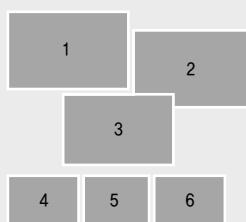
4, 5, 6, 7 – 북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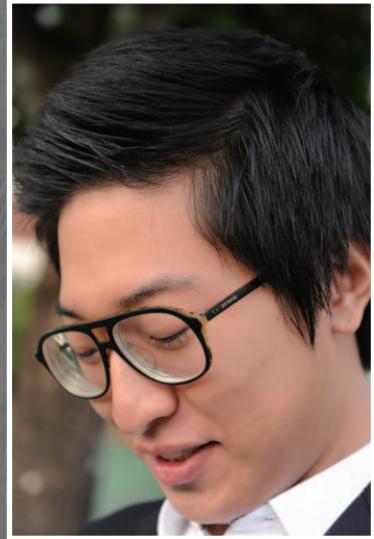
5. 인천 주변을 거닐다. 주변을 거닐다 보면 사람이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1 – 송의동 이발사
2 – 경화 교동 도장 파는 할아버지
3 – 백석동 버스를 기다리며…….
4 – 화수부두 아이들
5, 6 – 부평동, 청천동 골목 안 아이들



6. 이방인, 인천에 살고 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인천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우대의 대상도 무시의 대상도 아닌 그저 우리 주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PHOTOSKY 교사 사진동호회

2005. 6 사진 그룹 photosky 결성
2005. 7 정기 출사 및 워크숍 (연중)
2005. 12 인터넷 사진 갤러리 www.photosky.co.kr 오픈
2006. 5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진 전시회
2007. 5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진 전시회
2007. 12 인천학술진흥재단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사> 사진부문 촬영
2008. 1 사진교육과 사진반 클럽활동 운영방안에 관한 동계 연수
2008. 5 조선일보 주최 전국 교사 연수 지원 공모 당선
2008. 6 인천 지역 사진기와의 교류
2008. 8 인천광역시 평생교육관 문화예술부문 동아리
2008. 9.26 ~ 10.2 제1회 photosky 그룹 전시회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가온갤러리)
2009. 12.22 ~12.28 평생지기 축제 사진 전시회
2010. 7. 1 ~ 7. 13 제2회 photosky 그룹 전시회 <Are you happy?>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가온갤러리)
2011. 5. 9 – 5. 15 미추홀외고 초대전 '찾아가는 전시회'
2011. 11. 9 ~ 11. 16 제3회 photosky 그룹 전시회 <Residence In Incheon>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사진은 교사 사진 동호회 PHOTOSKY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PHOTOSKY 사진 동호회는 사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photosky.co.kr)

글_ 백석고등학교 교사 | 고 병 관



아름다운 삶, 사제동행 인일여고 신은주선생님



대담 및 정리_ 옥련여자고등학교
교사 | 안 수 정

30년 전 인천여중을 졸업한 후 보랏빛 등나무 꽃이 무척이나 텁스럽고 예뻤던 학창시절의 교정을 다시 찾게 된다는 설렘과 선배 교사로서 신은주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나의 교직 생활에 뜻 깊은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에 설레었다. 교정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통화를 통해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줄 것 같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긴장되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며, 마음 한구석부터 따뜻해져 움을 느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특히 청소년기는 사랑이 필요한 때

창의인성부로 찾아뵈었다. 목소리만큼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반겨 주셨다. 바쁘신 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것임에 틀림없었다.

안수정 : 안녕하세요? 옥련여고 안수정입니다. 제가 인천 여중을 졸업했는데 그 동안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교정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신은주 : 그렇죠? 우리 학교 교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럼 야외로 나갈까요?

선생님께서 다솜길로 안내해 주셨다. 복도에서 마주 친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며 외투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었고 매우 익숙하고 빠르게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었다. 평소 아이들과의 친밀한 모습을 한 장면 인상깊게 포착하는 순간이었다. 다솜길이라는 한적하고 아담한 산책로 계단에 나란히 앉아 단풍이 곱게 물든 교정을 내려다 보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소풍을 나온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편안했고 선생님께서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신은주 : 1991년 처음 발령받아 담임교사 18년, 부장교사 3년 째인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야 겨우 교사로 꿈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교사가 너무나 되고 싶었고, 교사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출발은 미숙했지만 늘 배우려고 노력했고 특히 방학 동안에는 끊임없이 연수를 받았고 그것을 학기 중 현장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하나 교사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갖춰나갔다고 생각해요.

안수정 : 그 동안 교사로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람있었던 일도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신은주 : 담임 교사 18년 동안 17권의 문집을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쌓아간 삶의 역사가 담긴 문집이에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면 아이

들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따뜻한 심성을 지닌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소년기는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소중한 아이들에게 시간과 사랑과 지혜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야 해요. 편지, 쪽지 등 아이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에 답장을 꼭 해요.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며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교사는 흙 속에 묻힌 원석을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수정 : 담임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학급 생활지도에 대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생활지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무한 경쟁이라는 삽질함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 또한 메마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정서 함양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받고 싶습니다.

신은주 : 아이들은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는 이 원석을 갈고 닦아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쓰게 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매일 매일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적는



거예요. 칭찬일기에 적기 위해서 칭찬받을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실천하고요. 그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도 매우 호응이 좋았어요.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 칭찬받는 아이들로 변했다는 얘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들로 자리남에 뿐듯 했습니다.

카메라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감동적인 순간, 기뻤던 순간, 잊지 못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영상으로 담았어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종업식 날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로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보며 지난 일년을 회상하고 감동의 시간을 갖지요. 지금은 삼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 졸업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담임교사로서 조회 시간, 청소 시간, 자율학습 시간을 학급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으로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조회 시간을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데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에는 훈화를 매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했고요. 자율학습 시간에는 매달 생일 잔치를 마련해서 함께 축하해 주고 즐겁게 먹고 얘기를 나누며 삽박한 학교생활에서의 힘듦을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안수정 : 칭찬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돋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길러지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어서 아이들 인성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어를 가르치지만 혼란하고 자극적인 동영상매체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집중도를 높이는 수업이 힘든데요.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신은주 : 무엇보다 학생들과 교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수업 시작 전 10분 독서를 한 적이 있어요. 일년 동안 개인당 다섯권 정도 읽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분 독서를 하며 자연스럽게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40분 수업이 매우 밀도 있게 진행되었어요.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편씩 시 소개를 합니다. 공책에 적고 매 시간 함께 낭송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다섯번 낭송을 하는 동안 시에 대한 느낌이 살아나고 한 주의 마지막 시간에는 시 감상을 발표도 하며 공감하고 감동받았던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시 감상하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그러는 동안 시를 좋아하게 되고 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아

이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시와 친숙하게 되고요. 제가 시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시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시가 생기고 소개함으로써 함께 공감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 살다

안수정 : 학생들이 시 감상을 매우 어려워하는데 매 시간 시 낭송을 하며 자연스럽게 느낌으로써 시 감상이 쉬워지고 그 시간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매우 행복할 거라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변치 않는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열정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은주 : 아이들에게 한번 뿐인 학창시절이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정말 소중한 학창시절에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변화되지 않더라도 졸업 후 그들의 삶 속에서 학창시절의 작은 경험과 체험했던 것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발화되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움이 된다면 교사로서 그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적어 여러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교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훌륭한 교

사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계산하지 않는 댓가 없는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신이 준 선물이고 저는 계속 배우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해요. 열정의 원천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해요. 퇴직 후 그 동안 썼던 글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담아낸 사진들을 모아 책과 사진집을 내고 싶어요.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글과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퇴직 후 그 글들과 사진들을 보며 내 교직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안수정 : 지금은 창의인성부 부장선생님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요. 부장선생님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은주 : 부장교사로서의 매력은 학급에서 벗어나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교내 축제 때는 학교 행사 때 찍은 사진 공모전도 하고요.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하여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인일 갤러리에 명화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한달에 한번 명화를 교체하여 다양한 명화를 전시하고 항상 갤러리가 살아 숨 쉬도록 하고 있지요. 예술의 전당에서 구입한 명화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특별 전시가 없을 때는 상설 전시로 학생들이 늘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감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매우 행복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갤러리 명화 전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련여고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연정 갤러리가 있지요? 저도 관람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학교 연정갤러리를 언급하시며 칭찬해 주실 때 연정갤러리가 문화 공간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공간인지 새삼 느껴졌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도 한 순간일 뿐……

안수정 : 인일여고에서 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은주 : 토요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이에요. 또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고요. 토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활동하고 참여하므로 교사 또한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죠. 함께 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교사의 열정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청소년기는 한번뿐인 중요한 시기고 교육은 아이들의 진심어린 맘을 자극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늘 쟁겨 주고 확인해 주는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죠.

안수정 : 창의인성부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하고 있는 그 밖의 일들도 소개해 주세요.

신은주 : 일년에 네번 자신에게 편지 쓰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담겨 있어요. 3개월에 한번씩 쓰고 3개월에 한번씩 전에 썼던 자신의 편지를 읽고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이 매우 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담임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시낭송회(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2시) 사회자를 5년째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시인을 초청해서 시와 삶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인일여고 학생들 중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있어요. 11월은 박서해 시인을 초청합니다.

안수정 : 그 동안 교사로서 보람도 컼겠지만 교사로서 힘들었던 때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은주 : 처음처럼 변함없는 열정과 열심으로 담임을 했었는데 2년 전 50이 넘어 담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 외로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부장을 처

음하면서 업무가 너무나 버거워서 업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장의 역할은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력한 만큼 보람도 매우 큩니다.(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한 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 흘렀다.) 여기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다시 담임을 할 거고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앞으로 담임을 더 잘 해 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이 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구처럼 인생의 한 과정이고 그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엄마 같은 선생님, 소녀 같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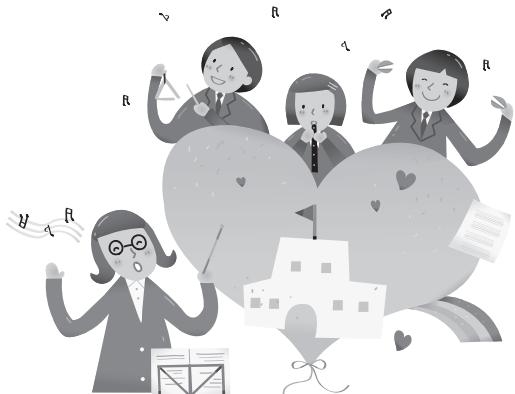
선생님과의 소중한 시간이 아쉽게도 흘러서, 맑은 가을 햇살로 따사롭고 환했던 교정이 어느새 밀려온 어스름으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안수정 :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시간 내주시고 귀중한 경험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교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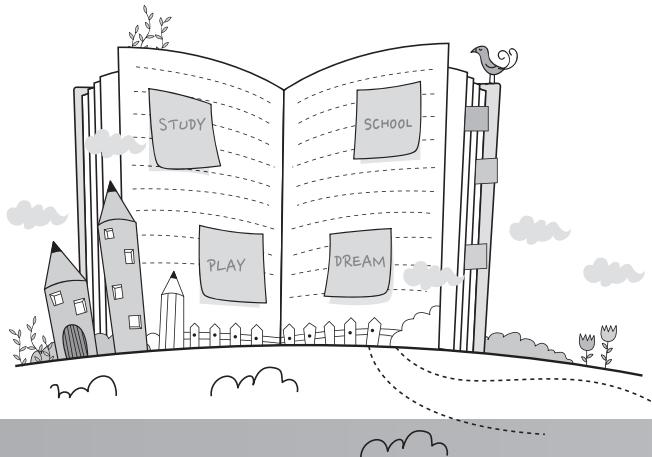
신은주 : 새로운 시도가 중요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었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교육을 해나가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매력은 나만의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엄마 같은 선생님이자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닌 선생님으로 통하는 신은주 선생님의 밝은 얼굴에는 20년간 한 길만을 열정적으로 걸어 온 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자신감과 뿌듯함이 옆에 앉은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였다.

인일여고 신은주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동안 선생님의 목소리와 말씀과 모습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어느 때는 교사가 힘들어서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눈감아 버리기도 했던 내 모습과 오버랩 되며 앞으로만 달려왔던 내 삶을 잠시나마 되돌아보게 되었고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생의 고비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사로서 아름답고 생기 있게 삶을 가꿔 오신 신은주 선생님이 외로운 교사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받았고 든든함이 느껴졌다. ◎



2013 교육정책자문위원 우수기관 주제탐방 연구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2학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던 여름방학의 시작 무렵인 7월 29일, 30일 이를 동안 인천광역시 정책자문위원 생활지도분과 주제 탐방 연구에 동행하게 되었다.



취재_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 이주형

교육에 대한 멋진 상상과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꿈꾸며.....

아침 일찍 인천광역시 Wee 센터 앞에 모여 몇 대의 차에 나눠 타고 첫 번째 방문지인 서울 시청으로 출발했다. 시청으로 이동하면서 연수자료집에서 접하게 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제목에서부터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열린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천만상상 오아시스(千萬想像 Oasis, <http://oasis.seoul.go.kr/oasis>)는 서울특별시의 '창의시정 추진본부'의 주도로 2006년 10월에 만들어진 시민제안 창구라고 한다. 운영취지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서울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시정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청 신청사 9층 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으로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운영현황, 운영성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현재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회원수는 62,200명 정도이며 총 146천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이 중 502건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접수한 상상제안

을 상상토론(사이버 토론) 단계를 거쳐 관련부서의 실무검토를 거쳐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라는 오프라인 회의에서 실행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아이디어의 제안자,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시장단, 관련 아이디어를 처리하는 실·국·본부 간부 및 실무 직원, 시정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 네티즌으로 구성된 상상평가단인 ‘상상누리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검토를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하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시민과 함께 자유롭게 제안하고, 뜻과 힘을 모아 토론하는 협력의 과정을 통해 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내려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팀의 노력은 인천교육정책자문단의 정책제안에 대한 방향 및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이대로 운영해보라는 일방적인 제시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협의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교육 현실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교육 수요자들의 창의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한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때인 것 같다.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두 번째 방문지인 서울 상일동에 위치한 강명초등학교는

2010년 7월 혁신학교 교사 준비 모임을 바탕으로 2012년 10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2013년 3월 현재 3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강명초등학교 운영의 핵심 목표는 ‘공감과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로 혁신학교의 철학은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이며, 전교사가 참여하는 ‘강명교사회’를 통해 토론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교사회 전 토의 안건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며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일부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전원 합의제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명교사회에서 협의된 몇 가지 안건들을 소개하면 스티커나 보상제도 원칙, 학교 슬로건·교가 정하기, 학생 시상원칙, 인사구정, 담임·부장 선출·업무조직 편성, 자전거 통학 규칙, 쉬는 시간 운영 등이며 교사회의 최대 장점은 업무추진 과정의 신속함, 학교 운영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집단 지성에 의한 시너지 효과, 연구·학습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학교를 ‘수업 연구 공동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축소 또는 폐지, 업무전담팀 운영으로 업무 총량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고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러한 교사 협의회를 바탕으로 강명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만들기,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학교 만들기,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학부모를 주체로 세우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계기교육, 절기교육 등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 내고 충분한 협의와 준비로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며 연 4회 교육과정 평가회과 학년별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계절방학, 감성을 깨우는 문화예술 교육,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4학기별 잔치, 블록수업을 통해 30분 쉬는 시간을 운영하였다. 경쟁이 아닌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를 위해 스티커·보상제도 안 하기, 학생 시상 없애기, 성차별적 관행 없애기, 서술형 통지표 작성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총회, 학부모 운영의 독립성 찾기, 학기별 학부모 소식지 발간 등을 하고 있다.

수업보다 학교문화를 먼저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책자문단의 질문에 교무부장 교사는 소통,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의 변화 없이 수업만 변화하는 것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질문에 민주적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통, 공감, 혁신 학교 운영 개념 공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예산 지원이 줄어들거나 교직원의 일부가 바뀌었을 때에도 혁신 학교 운영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혁신학교 운영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도 계획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운영 시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운영하여 예산 사용에 급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명초등학교 혁신학교 운영사례를 통해 학교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을 위한 교사, 학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나름의 시행착오도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 아이를 위한 도서관을 만들자!

이번 생활지도분과 정책자문위원 주제 탐방은 그동안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신 있게 교육을 하는 기관이

나 사람들을 만나 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연수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밤토실 도서관' 이었다.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꾸며 자라는 돌봄과 소통의 공간이라는 연수 자료집의 설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도서관 주변은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기리는 마을버스도 시내처럼 자주 있지 않고, 보건소 외에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갈 곳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고 어른들도 잠시 들러 이웃끼리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이 어린이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는데 뜻을 모아 고기교회 목사님의 사택을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밤토실 도서관'이 되었다. 탐스러운 밤송이처럼 토실토실히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도서관 이름을 '밤토실'로 짓게 되었다는 관장님(고기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절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듯했다. 세 시간 가까이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교육 밖에서 공교육이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시간들, 그 아이를 둘러싼 학부모의 소통에 대해 애쓰는 분들의 노력에 대해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지역 도서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관장님께서 가장 강조한 도서관의 핵심은 '질 높은 정보'와 '공공성' 그리고 '접근성' 이었다. 도서관이 유지되기 위해서 도서관 안에 질 높은 정보, 즉 새로 출판된 좋은 책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좋은 책에 대한 암목을 갖기 위해 늘 공부하며, 기증 받은 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관장님의 설명에서 2006년도에 문을 연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관심과 신뢰를 받으며 발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질 높은 정보는 도서관 운영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자긍심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자긍심이 지속적인 운영 참여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었다. 또한 최근 많은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적' 이지 않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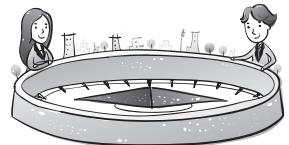
하며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역 도서관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과 연계해서 설명한 지역 도서관의 ‘접근성’은 어쩌면 가장 교육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교 길에, 장을 보러 가다가, 집에 엄마가 안 계셔서, 친구와 놀기 위해 들린 마을의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다른 아이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성, 나아가 시민의식을 고취 시키는 관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무릎을 치며 떠올리게 되었다. 또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찾아서 읽는 공간이 아닌 책과 관련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하고, 질 높은 정보를 유지하며,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읽도록 기다려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밖에서 바라본 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많이 기다려주고, 아이들을 둘러싼 인적·환경적 요인들을 더 촘촘히 관계 지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두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다. 관장님과의 대화 내내 자원봉사 엄마와 함께 도서관 있으면서 마치 도서관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던 3살 남짓한 아이가 엄마의 자원봉사 시간이 끝나 돌아가면서 했던 “나는 먼저 갈게요.”라는 또렷하고도 천진한 인삿말이 오랫동안 여운처럼 남는 밤토실 도서관 템방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정식으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다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번 연수에 참여한 분들과의 인사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다. (지도위원인 김태용 교장선생님, 시교육청 김시운 장학관, 정책자문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현주 장학사, 시교육청 생활안전지원과 학교폭력근절팀의 조명곤 선생님,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자, 김경선, 송윤숙, 이귀원 장학사, 생활지도분과 정책자문위원 이성숙, 정은선, 신현태 선생님, 모니터 요원 연규원 선생님.)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

교 현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지만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진로에 대한 단상



미술품 보존 복원 전문가, 과천 무지개 교육마을 주민이자 무지개학교 미술자원교사. 생소한 직업과 이력의 조합을 가진 김겸 교수를 만나기 위해 과천에 위치한 미술보존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느리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던 김겸 교수와의 만남은 진로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진로란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이자 가치관의 표출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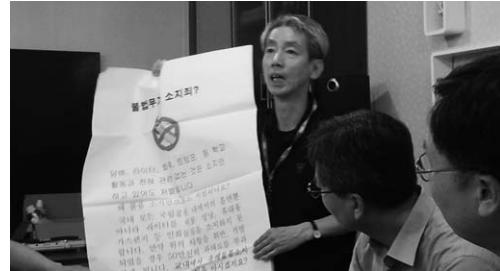
김겸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과학팀의 팀장으로 6년여의 공직생활을 하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을 뒤로 한 채(아내만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고 한다.) 공직 생활을 정산하고 현재 개인 보존 복원연구소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이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과천의 무지개 학교 중등 미술자원교사로 일하고 있다. (사람과 어울리는데 서툴고 십대에 대한 이해도 무지했던 그가 미술자원교사로 지원하게 된 것은 십대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당시 무지개 초등 과정에 입학한 딸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 이 두 가지 바람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겸 교수는 예술 표현과 진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물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잘 관찰하고 손끝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고 번거롭다 해서 잘못 그어진 선을 따라 계속 그려간다면 점점 수정할 기회가 없어지고 결국엔 원래 의도하지 않은 그림이 되거나 아예 새로 그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지우고 다시 그리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김겸 교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그것을 되돌리기가 혹은 수정하기가 귀찮고 두려워 눈감아버린 결과,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나 고통스럽게 감내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매 순간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행동을 돌아보고 수정하는 경험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이야기 한다.

작품보존과학팀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김겸 교수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보존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커지게 되었는데, 그 조직을 키우고 운영하는데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 두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그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과감히 다른 진로를 선택한 김겸 교수는 이후 개인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를 운영하며 ‘김겸의 피아노가 있는 미술이야기’를 강연하며 지내고 있다. ‘피아노 미술사’는 미술, 음악, 연극적 공연을 담은 이야기 미술사로 작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우리나라 곳곳을 돌았고, 최근 기업들 사이에 유행하는 인문학 강좌에도 자주 초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안전한 공직에 머물며 미술자원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역사, 음악, 미술을 접목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미술사를 이야기 하지 않았더라면 ‘피아노 미술사’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겸 교수의 말처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돈 없이 잘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첫바퀴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에서 대안적 삶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성찰은 자신의 개성이나 의지를 반영한 창의적인 진로를 개척하는 안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삶에서 진로만을 뚝 떼어 직업의

종류를 소개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어떤 대학의 무슨 학과에 진학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는 진로교육은 그래서 진로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겸 교수의 연구소를 걸어 나오면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은 한 아이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사회의 시스템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을 우리가 해볼 수는 없을까?



생활지도,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이다

주제 탐방연수의 마지막 일정에서 만난 면목고등학교 송형호 선생님과 이상인 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생활지도에서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말 그대로 좋은 예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송형호 선생님은 면목고등학교 교사로 네이버 돌봄과 치유 카페 운영자, 전국 4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카톡방 운영, 생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 진행 및 교수·학습 방법, 학교 행사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선구자로 지칭되는 그야말로 생활지도의 달인과도 같은 분이다. 정책자원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사진이 인쇄된 명함을 나눠주는 송형호 선생님의 모습에서 선생님이 평소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수업 진행 방方方面에서 학급 운영, 그리고 학교 전체 생활지도 규정이나 철학 등에 대해 폭넓은 노하우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

기하는 선생님에게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송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의 핵심은 바로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세분화되고 명시적인 1인 1역을 제시하고 그것은 친구들에게 동료평가(학생들은 교사의 평가보다 주변 친구들의 평가에 훨씬 민감하며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친구를 평가한다고 한다.)하게 하며 그 결과를 꼼꼼하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것, 전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등교한 학생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뽀○○지시봉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잠을 깨우는 노하우, 과목별 85점 이상의 학생들에게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도록 하는 학습 도우미 활용,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자존감과 소속감을 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업 교재와 게임 활용 방법 등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사용하는 생생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송형호 선생님은 학교폭력이 어쩌면 시대의 우울과의 싸움이며 학교폭력의 씨앗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 즉 가정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그래서 학교와 지역이 연대한 학생생활지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정책자문위원 연수에서 만난 이상인 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생활지도의 효과성을 몸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이 분의 열정과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하게 하는 분이었다. 이상인 경찰관은 돌봄과 치유가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 '중랑 休카페'의 대표로 송형호 선생님과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는 중랑 休카페를 운영하는 생생한 현장의 사례를 들으며 지역사회와 학교, 사회복지 지원이 협력하는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형호 선생님도 강조하였던 '자존감'과 '소속감'은 이상인 경찰관이 학생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 안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바탕이 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망우3치안센터에서 아이들과 운영위원이 함께 저녁을 지어 먹으며 신뢰감을 형성하고 밤상 머리 교육, 놀이·상담을 통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놀

랍고도 감탄스러운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식사에서 아이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다. 팔과 등에 문신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무시무시한 욕을 하는 아이들도 함께 밥을 먹으며 만나면 그저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한 아이일 뿐이라는 것, 한 번도 가정에서 따뜻하게 대접받아보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무조건 받아주고 인정받아보는 경험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치안센터와 休카페에 참여하면서 10번 사고칠 아이가 3번만 사고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것 모두 교육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점이었다. "과연 학교만이 학교인가? 20만명의 중도 탈락 학생들을 교육자, 경찰관, 이 사회의 어른들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이상인 경찰관의 물음에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 묻기 전에 이제는 우리 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오토바이 면허'를 따도록 하는 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것은 아이들에게 면허 취득과정에서 법률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도 무언가 성취했다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며,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은 사고에 대한 뺏소니를 방지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도록 하며, 검정고시 등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하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일 경찰관의 설명에서 학교 밖에서 생활지도에 힘쓰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번 정책자문 주체 탐방 연수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한 아이의 인생의 종적인 흐름에 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진로교육과 아이가 속한 학교와 지역 그리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아우르는 생활지도가, 마치 씨실과 날실이 자연스럽게 엮여 좋은 옷감을 만들어내듯 한 아이를 중심으로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웬지 개학을 하면 그때까지도 분명히 남아있을 무더위 속에서도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다. ◎

자연에서 행복을 꿈꾸는 아이들



글_ 삼산유치원 교사 | 박 미 옥

1. 자연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

미래 사회를 짚어지고 나가야 할 유아를 교육하는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과 태도가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예절, 배려, 협력, 존중 등의 기본생활 습관을 배양하는 인성교육이다. 유아의 발달에 가장 적합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연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감의 기초를 배우며, 오감을 통해 생활하며 익히는 ‘자연친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삼산유치원에서는 노력중점 사업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삼산어린이’라는 주제로 연간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유아들이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교육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연과 친구되는 산책활동

유아들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활동은 체험 위주여야 한다. 유아들은 자연에서 놀이할 때 가장 자연스러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이에 삼산유치원은 지역사회 환경을 이용한 적절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는 산책활동을 나간다. 삼산유치원에 인접하고 있는 ‘햇살어린이공원’과 유치원 인근에 있는 ‘시냇물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연간 산책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간 산책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월	관찰 프로그램	월	관찰 프로그램
4월	새싹관찰하기 꽃눈을 찾아라 벗꽃관찰하기 목련꽃잎 풍선불기	9월	풀씨름하기 바람개비날리기 나뭇잎에게 편지쓰기
5월	나뭇가지 던져넣기 나뭇가지로 모양구성하기 민들레 꽃씨날리기	10월	나뭇잎 왕관만들기 여러 가지 열매관찰, 수집하기 씨앗목걸이만들기
6월	아까시아잎떼기 나뭇잎모양관찰하기 나뭇잎으로 동물머리되어보기 클로버로 반지만들기	11월	동생들과 산책하기 자연물 패스트 나뭇잎 투포환놀이 솔방울모빌만들기
7 · 8월	봉승아물들이기 강아지풀놀이 들꽃잎으로 부채만들기 풀꽃액세서리		

관련사진



꽃눈을 찾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모양을 구성해 보았어요



강아지풀이 신기해요



파란 하늘을 관찰해 보았어요



씨앗목걸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나뭇잎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3. 자연을 교실로 데려왔어요.

교실 안에서도 자연에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영역에 환경을 구성하여 수시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연간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간 자연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매일 매일 자연스럽게 교실 환경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감하는 유치원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학 영역에서 살고 있는 관찰물의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관찰물들과 대화하는 유아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학습장에서 기르고 있는 ‘콩’을 과학영역에서 관찰하도록 하였더니 성장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으며 다양한 콩나무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연간 자연 관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월	관찰 프로그램	월	관찰 프로그램
3월	딸기 기르기	9월	누에 기르기
4월	올챙이와 도롱뇽 기르기	10월	느타리버섯 기르기
5월	소라계 기르기	11월	무, 배추 기르기
6월	호랑나비 기르기	12월	나무곤충 만들기

관련사진



호랑나비가 교실을 찾아왔어요



콩나무를 관찰해요



버섯을 관찰해요

4. 행복이 자라는 자연학습장 이야기

삼산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자랑할 점이 있다면 바로 자연학습장을 활용한 활동이다. 삼산유치원 친구들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학습장을 활용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이루어지는 농작물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농작물의 파종 및 재배, 관찰 활동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자연이 유아들에게 주는 혜택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가. 신나는 텃밭체험

자연학습장에는 각 반별로 텃밭이 배정되어 있어 유아들이 키우고 싶은 농작물을 키우고 그 농작물에서 나온 수확물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고 나눔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올해의 경우 해나라반 친구들은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가꾸었고, 달별나라반 친구들은 여러 종류의 콩을 가꾸었으며, 풀꽃나라반 친구들은 감자를 심고 가꾸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농작물의 변화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물을 주고 농작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사랑과 관심, 희생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으며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관련사진



땅 속 보물을 찾아보아요



텃밭에 콩을 심어요



콩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콩나무에 물을 주어요



방울토마토를 땄어요!



콩을 수확해요

나. 호기심이 자라는 관찰활동

자연학습장에는 유아들이 기르는 텃밭 외에도 다양한 관찰물들이 자라고 있어 유아들이 다양한 농작물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연학습장에서 자란 친환경 농작물을 급식과 간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유아들이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자연학습장에서 기른 상추를 유아들이 직접 수확하여 급식 시간에 쌈밥을 먹었으며 고구마를 수확해 간식으로 먹는 체험을 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수확한 것으로 급·간식의 재료를 사용하였더니 유아들이 더 맛있어하고 평소에 상추 같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유아들도 맛있다며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관련사진



많은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상추를 수확했어요



쌈밥으로 맛있게 꿀꺽~!



커다란 수세미가 주렁주렁!



고구마를 캤어요



내가 캔 고구마를 맛있게 남냠!

5. 자연과 친구되는 유치원의 환경 구성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환경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직접 구성함으로써 자연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 울타리 내에는 유실수를 심어 유치원을 등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바깥놀이터에는 물놀이터와 모래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들이 자연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에 들어서면 봄에는 개미집이 유아들을 반겨 주고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수조(이구아나, 거북이, 구피, 고슴도치, 가재 등)는 1년 365일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유아들의 눈을 반짝이게 한다. 2층 중앙에는 상상나래방을 구성하여 점심식사 후 유아들이 상상나래방 관찰활동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층에는 자연학습장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여름에는 상설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신나는 물놀이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사진



모래놀이장



물놀이장



수족관



상상나래방



상설물놀이장



자연학습장

6. 자연과 함께 놀이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처음에 유아들은 자연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유아들은 점점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복한 미소와 웃음을 짓는 아이들로 변화되었다. 유아들의 변화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식물과 동물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 높아지는 유아로 변화되었다.
- 나. 자연학습장에서 농작물을 기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유아로 변화되었다.
- 다. 산책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놀이하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유아로 변화되었다.
- 라. 모래놀이, 물놀이 등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유아로 변화되었다. ◎



이곳에 봄이 오면



이곳에 봄이 오면

글_ 인천서곶초등학교 교사 | 구 유 진

이곳에 봄이 오면, 확연히 부드러워진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그 손길에 휩쓸린 연녹색 나뭇잎들은 햇빛을 이리저리 반사하며 반짝이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하얀 꽃잎들은 와르르 땅으로 쏟아져 내린다. 옥은 분홍빛으로 영글었던 벚꽃들이 온 몸이 부서진 채, 화사한 눈발이 되어 흩어지고, 또 내려앉는 것이다. 이에 뒤지지 않게 고운 것은 황매화 꽃이다. 소담하게 동그란 꽃덩이들은 대나무마냥 쭉쭉 뻗은 줄기 끝에 빼꼼하게 그 얼굴을 내밀고, 단정하게 깔린 발밑 벽돌에 하롱하롱 귀여운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동글둥글 눈사람 같은 향나무와 이리 저리 휘었어도 붉은 기상을 나타내기엔 부족함이 없는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곳. 이토록 소박하고도 단아한 자연이 있는 이곳은, 어딘가의 수목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학교의 교정이다.

‘햇빛을 받아 더욱 푸르른 소나무’ 해찬솔의 시작

나는 올해로 서곶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째가 된다. 과학행사라는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면서, 이번 해에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해보리라 결심하였다. 과학교육과를 나와서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내 관심분야에 맞는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이 기쁘고, 꼭 잘 해 내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업무 외에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망설여지는 일이기도 했다. 언제나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시작이라는 말은 두려움과 같이 오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동아리’라는 단어는 내게 고등학교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유달리 과학전이 크게 열렸던 나의 모교에서는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의 실험을 맡아서, 과학전이 열리는 하루 동안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시절이 좋았었지.’ 정도로 빛이 바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 속에서도 과학전의 장면들은 꽤나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나 또한 이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바람을 내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서곳 초등학교의 과학동아리, ‘햇빛을 받아 더욱 푸르른 소나무’ 해찬솔이 시작되었다.

교정의 진짜 모습을 찾아서

방과 후에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동아리 주제에 대한 검색을 해 나가며 활동의 주제를 찾는 단계에서 가장 큰 주제를 교정으로 택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한번 떠오르는 대로 부딪쳐 보자는 것이 시작이었다. 전적이 없으니 참고할 만한 모범답안 또한 없었고, 교정을 주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떠올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활동 속에서 교정은, 나와 과학 동아리 해찬솔에게 점차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그렇지만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말이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교내 식수조사 활동이었다. 아이들은 야단이었다. 모둠별로 나뉘어서 구역을 맡고, 그 구역의 나무에 노끈을 달아 번호를 표시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시 조사하여 이름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 당연했다. 아이들은 발에 땀이 나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교정을 ‘공부’ 했다. 각 구역 당 평균 3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었는데, 답을 찾아낸 것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나무에 대해 공부해 본 것이 처음이고, 나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과학을 전공한 교사였지만, 부끄럽게도 나 역시 교정의 나무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찬솔은 숲 전문가를 교정으로 불러들였다. 우리가 숲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 전문가를 우리의 작은 숲, 교정으로 초대한 것이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교정설명회에서 아이들과 나, 모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 학교 꽃사과나무에는 붉은별무늬 병이 걸려 있다는 것, 아그배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가 많다는 것, 벚꽃나무와 개미는 공생관계라는 것, 산딸나무의 꽃은 사실 꽂받침이라는 것. 식수 조사 때 느꼈던 답답함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가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꽉 찬 2시간을 보냈다.

성장은 알 수 없는 순간에

야단스러웠던 식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해찬솔은 좀 더 본격적으로 교정을 주제로 기획한 다양한 활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다. 교정에서 자신의 나무를 하나씩 정해, 자세히 조사하여 우드락 판에 보기 좋게 꾸며 전시회를 열었고, 사진기사가 된 것처럼 교정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전시해서 전교생의 투표를 받아 가장 멋진 식물

사진을 뽑아보기도 하였다. 그 뿐인가. 해찬솔은 자신의 나무에 대해 작은 전문가가 되어 보기로 했다. 자신의 나무에 대해 공부하고, 대본을 짜고, 오감체험활동을 기획하여 본교의 4학년 학생들에게 교정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숲 전문가에게서 배운 지식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추가하여 대본을 짜고, 3번에 걸친 사전 모임을 통해 내실을 다진 뒤에 진행된 교정설명회는 성황리에 열리고, 탄탄하게 마무리되었다. 녹아내릴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이었는데, 해찬솔 아이들은 불평의 목소리 한번 없이, 한 시간 반 가량의 긴 행사를 마음 속 깊이 즐기며 진행해 나갔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들어줘요.”

“재랑 재는 너무 적극적이에요,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을 막 들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 것 같아요. 어휴~”

4학년 아이들이 다음 나무로 이동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 발갛게 웃으면서 숨 가쁜 감상을 말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나 또한 해찬솔 아이들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 여름의 태양에 새까맣게 타 버린 얼굴 속에는 아이들의 성장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장’은 참 알 수 없는 순간에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것은 나 뿐만이 아닌 듯, 교정설명회를 끝낸 후에 아이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뿌듯함,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 날, 해찬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궁지를, 한참이나 종알종알 거리면서 맘껏 즐긴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 날은 나 역시 노을을 맞이 한 책상과 의자가 검은 그림자들로 붉은 바닥을 채색해 가는 시간까지, 창가에 서서 한참동안 교정을 바라보게 된 날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날이었다. 교정을 활용한 생태체험이 올바른 주제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과학적 지식보다 더 소중한 자신에 대한 확신

교정설명회 이후로 크게 자라버린 아이들과 잠재되어 있던 매력이 피어나는 교정, 그리고 해찬솔의 활동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나 사이에서는 많은 활동들이 기획되고, 실행되어 갔다.

해찬솔의 서곶식물도감 만들기, 식물표찰달기, 푸릇푸릇 스스로 탐구 교실, 교정 나무에 대한 시화 만들기. 해찬솔은 해찬솔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교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웠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단언컨대 아이들은 우리가 첫발을 내딛었던 4월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였다. ‘해찬솔’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들어온 아이들은 자신을 해찬솔로 소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탐구의 내용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찬솔의 활동 이외에 각 반에 흩어져서 모둠발표를 하거나 개인발표를 할 때,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고, 발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을 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아이, 적극적으로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게 된 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 아이. 그것은 교정을 공부해나가면서 해찬솔이 얻게 된 많은 것들 중 하나였다. 어쩌면 과학적 지식보다 더 소중한 자신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 말이다.

동아리활동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장기적으로 여러 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은 초등학교 나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에겐 그것을 해낼 힘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 과학동아리 활동발표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과학동아리 활동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우리의 주제는 획기적이지도 않았고, 과학적으로 심도 깊거나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언제나 곁에 있었던 교정을 다시 보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를 찾아내었을 뿐이다.

동아리 활동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교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처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보물찾기의 그 것처럼 여기 저기 숨겨져 있는 듯 느껴진다. 급식지도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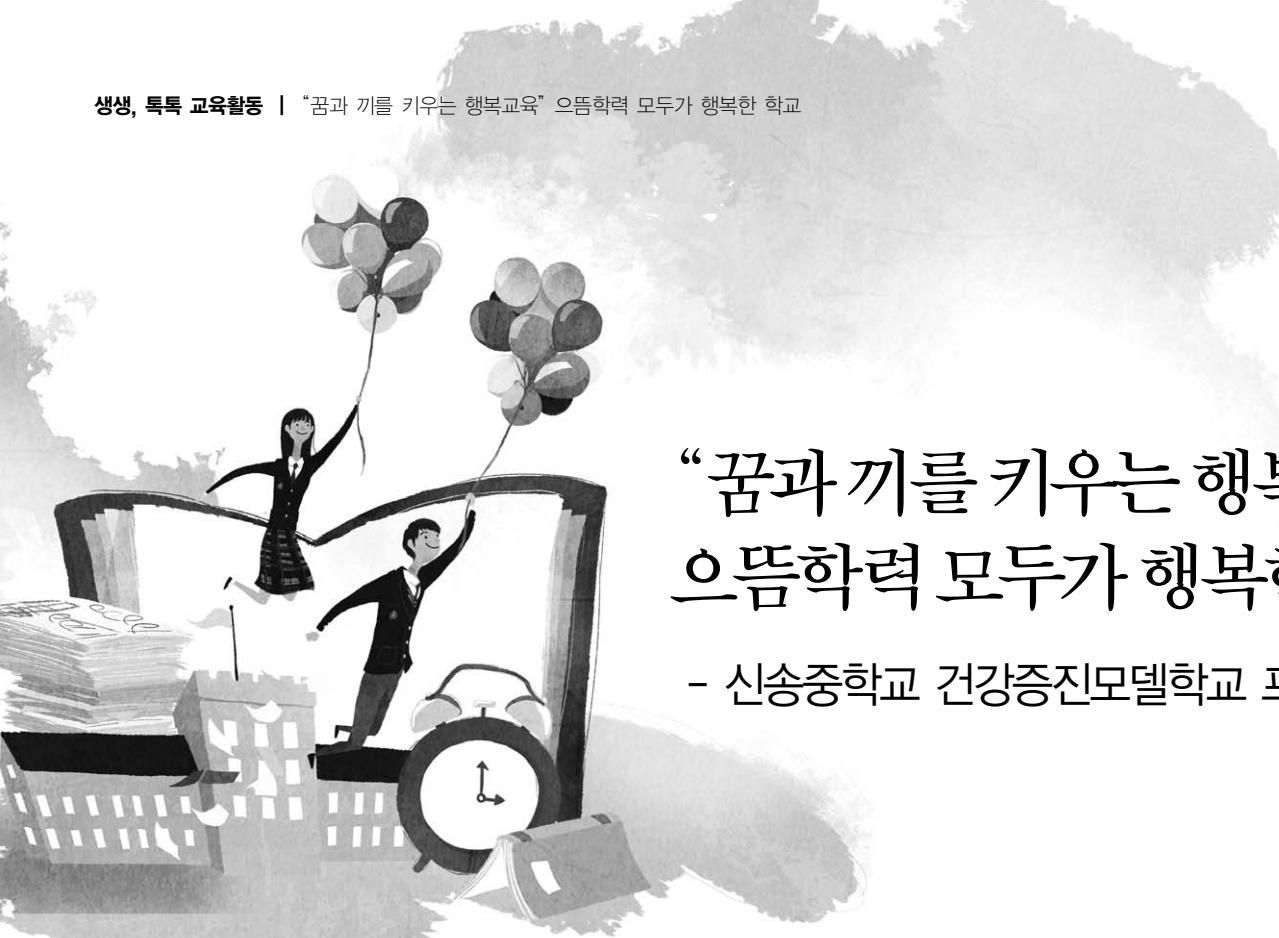
기 위해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 속에서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해 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았으며, 돌아오는 길에 볼거리 또한 너무나도 많았다. 그랬다.



사실 이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가을의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지금, 창 밖 교정에서는 산수유 열매가 발갛게 익어가고, 피고지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던 배롱나무의 꽃도 계절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까맣게 저물어 가고 있다. 짙은 녹색을 띠고 있던 당매자나무 잎사귀 또한 이제는 진홍빛으로 자리잡음이 확연하다. 매일 보는 것이라고 지나치고 말았던 걸음을 늦추고 시선을 바꾸었더니, 이곳은 가장 큰 배움의 터가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 역시,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교정이 있을 것이다. 교문에서부터, 내 교실의 바로 밑까지 친절히 이어진 나무들을 바라보자.

정말로, 참말로,
꽤나 아름답지 않은가.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으뜸학력 모두가 행복한 학교

- 신송중학교 건강증진모델학교 프로젝트 -



1. 우리는 건강 힐링학교~ 이곳에서 기쁘지 아니한가?

2013년 9월 26일~9월 28일까지 일산 콘텍스 제1전시장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꿈(DREAM), 끼(TALENT), 행복(HAPPY)을 주제로 전국 201개 초, 중, 고등학교가 학교별 전시관 부스를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자유학기제 등), 인성 교육,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에 우리 학교는 “행

글_ 신송중학교 교사 | 김 경 숙

모두가 행복한 학교

HEALING을 통한 “행복한 그릇 만들기!”
“우리는 건강 힐링 학교~ 이곳에서 기쁘지 아니한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 체육부 청소년 스포츠 활동
• 청소년 체육 캠프
• 청소년 드림클럽

체육부
• 체육부 청소년 스포츠 활동
• 청소년 체육 캠프
• 청소년 드림클럽

교사 특성화 프로그램
• 체육부 청소년 스포츠 활동
• 청소년 체육 캠프
• 청소년 드림클럽

체육부
• 체육부 청소년 스포츠 활동
• 청소년 체육 캠프
• 청소년 드림클럽

복”을 주제로 전시관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오케스트라 학생 14명과 댄스 동아리팀 9명 등 총 23명이 킨텍스 전용무대에서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아래 공연 및 “힐링 체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2. 힐링을 통한 행복한 그릇만들기!

우리학교에서 실시하고 전시한 행복교육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인 다도교육(월1회 1시간), 명상교육, 힐링체조(월 1회 1시간), 힐링 자전거행진, 힐링 도보행진(월1회 3시간),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6월~11월)를 실시하였다.

둘째, 위기학생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흡연 위험군학생 금연교육(연 4회), 멘토링학생 해병대캠프(연 2회), 별점학생 백담사 체험(연 2회), 정서·행동발달 위험군학생 프로그램운영(새로토닌 드럼클럽활동, 수석교사와의 집단상담, 유베날리스 프로그램운영)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전시기간에는 학생, 교사, 일반인들에게 체력측정평가(인바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학생 및 위기 학생 힐링 프로그램, 학생 소감문, 활동사진을 액자로 구성하여 전시하였으며, 컴퓨터와 와일드 모니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활동모습 및 소감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특히 힐링 프로그램 중 체조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사 힐링 운영계획으로 댄스스포츠(월 1회 2시간), 힐링요가(월 1회 2시간), 난타(월 1회 2시간),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16시간), 찾아가는 교원능력개발연수(16시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 힐링은 맞춤형 직무 연수 프로그램과 교사동호회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는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 및 상영하였다.

넷째, 학부모 프로그램으로 힐링 등산(연 4회), 천연화장

품 만들기(연 2회), 독서클럽(민들레모임 연수-월 2회), 자녀 진로 및 인성교육 연수(연 2회) 등을 실시하였다. 전시관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소감문을 전시하였고, 또한 학부모님을 초대하여 천연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으며, 독서클럽 활동과 독서토론 내용을 담은 간단한 소식지를 만들어 전시 및 배부 하였다.

3. 주요 교육활동 스크랩



교육감, 시위원, 교육장님과 함께 (2013.09.27)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신송중 전시관)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2013.03.08)
(교사와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독서전담시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제68회 식목일 행사 (2013.04.08)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대표 67명, 학부모회 위원 53명이 참여하여 초화 700본을 교내에 옮겨 심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2013.04.27.~)

(건강증진모델학교 사업 및 학력향상,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담사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영교수의 독서교육강의 (2013.06.10)

(인문학자 김영 교수님은 자신의 경험사례를 들며 영국의 생활, 예술, 환경 및 대학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2013.07.15)

(학부모 독서모임 <민들레>는 월 2회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토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힐링을 통한 행복한 그릇 만들기 (2013.08.28)

(학생 중 별점이 많은 18명의 학생들이 모여 토플아리 가든을 만드는 원예 작업을 하면서 몰입활동을 경험하고, 몰입이 행복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찾는 시간을 보냈다)

교사힐링 연수-댄스스포츠 (2013.08.29)

(교사 힐링 연수로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 (2013.09.26.~)

(행복학교로 선정되어 박람회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댄스부 학생들은 댄스공연을 보여 주며 음악적 끼를 발산하였고, 합주부원들은 아리랑, 여인의 향기 등의 5곡을 무대에서 연주하여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신송중학교 (교장 원유자) 학습지 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작업교육의 일환으로 뒷밭을 만들어 가꾸고 있다.

을 봄하고 인의 작은 자부리 땅을 보며 뒷밭을 만들면 할 재미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은 학생들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되고 있다.

갑과 호미의 이름은 물론 사용법도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땅을 파고 끝을 만들고, 풀을薅는 모습이 이숙해졌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 방울饽饽미토와 고추를 심었다. 상추와 쑥갓을 틈어보고, 방울饽饽미토와 고추가 주렁주렁 일리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들은 자연의 신비함에 흥뻑 빠져들었다.

뒷밭 가꾸기는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체험이 되고 있다.

인용설 기자 2013.09.26

행복한 뒷밭 가꾸기 (2013.10.0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작업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뒷밭 가꾸기는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꿈과 희망을 주고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체험이 되고 있다.)

4. 건강 힐링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

학교장,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운영하고 있다.

가. 학교장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경영철학 아래 학업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힐링 학교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 학교 구성원

- 지속적인 연수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 자체 협의회를 실시하여 건강교육을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 전 교사 모두 건강교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 교사 연수, 교재 개발 연구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자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교직원 ‘건강의 날’ 및 ‘건강 활동 동아리’ 구성으로 실천적 체험활동을 전개 하였다.

다. 학생 · 학부모 ·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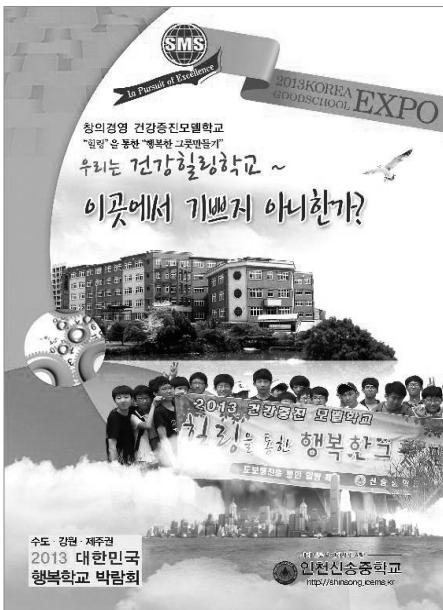
- 학생 · 학부모 ·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계속적인 홍보 안내를 실시 하였다.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건강증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교육 활성화 및 저체력 향상방안과 비만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 하였다.

라. 가장 효과적인 우수운영 프로그램사례 (건강증진 전담부서 신설)

-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구성되는 실무부서의 성격은 연구부 전담이나, TFT(Task Force Team) 형태의 운영은 학교의 특성상 지속가능성이 부족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하였다.
- 또한, TFT의 매트릭스 조직은 소속과 상관없이 특정한 업무에 핵심인재를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명문화된 조직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외부의 인원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임무수행이 끝나면 자신의 본래업무로 돌아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담부서를 조직하였다.
- 건강증진모델학교 연구사업 이후에도 단위학교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증진전담부서를 만들고 이를 명문화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우리 학교는 2005년 3월 1일에 개교하여 현재 총 36학급(학년 당 12학급)으로 1,4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공립중학교로서 인천 송도 국제 도시에 위치하여 자기주도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고 보람찬 학교를 만들고자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으며, “강건(STURDINESS)”, “진리(TRUTH)”, “봉사(SERVICE)”라는 교훈과 함께 학교 롤 모델인 “다산 정약용” 님의 사상을 받들어 4가지 교훈인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맡은 일은 과묵하게”, “행동은 중후하게”를 기조로 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교의 올바른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창의경영 “건강증진모델학교”로 선정되어 2013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힐링을 통한 행복한 그릇 만들기”라는 주제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바라기, 별바라기, 꿈바라기의 통합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고 융합교육과정 구성으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기르고, 꿈을 심어주는 진로교육,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교한지 8년이라는 짧은 역사이지만 인천에서 높은 학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였고,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연학(延學) 독서 프로젝트



글_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장 | 지 혜 경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 문화는?

우리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이며, 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그러한 독서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일상 속 지식을 탐구하고 인문학적 사회학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의 정착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모색에서부터 연수여고의 독서교육은 출발하고 있다. 대입 진학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독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의 조성과 학생 중심의 독서 지도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적용, 나아가 이를 진학과 진로로 연결해 나가는 <연학(延學) 독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독서 교육을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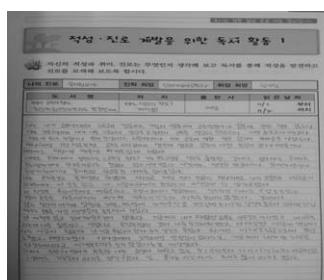
멀리 보는 눈을 책 안에서

근시안적이고 성과에 급급한 독서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자율적인 책읽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학교는 도서관 장서

의 확충과 더불어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활용한 <북카페>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친근하게 책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자율독서의 첫걸음인 학년별 <북카페>의 구축 및 <나의 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교생이 읽고자 하는 책을 한 권씩 모두 선택하여 구입한 후 학급 내 윤동 및 독서록(연학록)을 작성한 후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내실있는 생활기록부 작성과 함께, 학급 및 개인별 <으뜸독서활동상> 시상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북카페 학생 활동



으뜸 독서활동시상

책읽기를 락(樂)하자

학교도서관을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318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운영과 연계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중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큰 준비 없이도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측면이기에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되어있다. 참여했던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책이야기대회와 하루 끝장독파독서는 여름방학 중 실시하여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독서 활동이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책이야기 발표대회는 모둠별로 추천하고자 하는 책을 선정하여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과 협동을 통한 활동으로 인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활동명	운영방법	시기	대상
맛있는 도서관	-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와 책의 좋은 문구를 넣은 책갈피 증정 및 도서실을 즐겁게 올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	3월	전교생
세계 책의 날	- 세계 책의 날(4/23) 홍보 활동 실시 - 도서관 방문 시 선물 증정, 연체자 구제, 책 속 보물찾기 등	4월	전교생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독서 편지	-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추첨을 통해 추천도서와 함께 편지를 주인에게 전달하여 책을 읽고자 하는 의욕 고취	5월	전교생
내 지역 문화탐방	-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를 읽은 후, 작품의 무대가 된 자유공원 및 차이나 타운을 방문하여 작품의 의미 생각하기	5월	도서부원 및 희망학생
책 나무 기르기	-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나 문구를 적어 책 나무를 만드는 활동을 모둠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동함	6월	전교생
독서인 선발대회 (독서퀴즈)	- [독서주간] 매달 발행되는 도서관 소식지를 통해 미리 작품을 공지, 독서퀴즈대회 문항으로 출제하여, 교과 독서에 대한 흥미 및 독서 후의 성취감을 고양함	7월	전교생
책이야기대회	- 학생들 스스로 2~4명으로 모둠을 조직하여 스스로 선정한 권의 책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발표력과 협동심 나아가 좋은 책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함	8월	전교생
하루 끝장 독파(讀破) 독서	- 방학 중 하루 종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지속적 독서의 즐거움과 이를 성취한 후의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며 이로써 독서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함	8월	전교생
작가의 방	-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 작가 중 한분을 초청,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게 함	9월	1,2학년 희망학생
독서와 함께하는	- 독서와 함께 다양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상상력과 협동심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10월	1,2학년 희망학생
문화체험활동	-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함께 읽은 후 관련된 연극 또는 뮤지컬을 관람	10월	도서부원 및 희망학생

소통과 배려, 나눔의 보람을 책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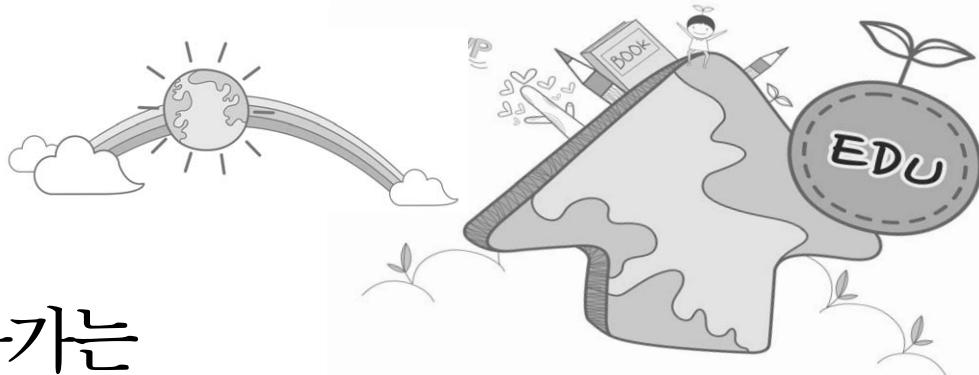
교육과정 속에 독서 교육으로 1년에 2회 <책향기와 함께 하는 일주일>의 독서 주간을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독서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장려할 만한 각종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경험을 나누고 보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과정에서 학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진로 및 인생의 목표 설정과 도달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학 독-논-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학 독서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독논토 터닦기-함께하기-나누기의 3단계 독논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북카페를 통한 터닦기, 문학기행과 독서 상설동아리 활동, 교과별 독논토 경진대회 활성화, 독서 페스티벌을 통한 함께하기, 지역-학부모 연계사업, 전자도서관, 독논토 활동의 매체화, 동아리 연대 발표 등의 나누기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독서관련 상설 동아리는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로서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문학을 연계한 <문학통통> 동아리와 독서를 논술과 토론의 장으로 확대하여 함께 나누고 배우는 <달소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와

학생의 요구에 맞춰 Book Bucket English Reading Program(책바구니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영어원서 읽기 및 독후 활동을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 및 동아리 독논토 경진대회를 10여개 이상 실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도서관과 주변 대학, 지역 아동센터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독서를 통한 나눔을 실현하고자 하며 전자도서관 활성화 및 시설 구축을 통한 전자매체 활용은 독서를 통한 논리적 사고와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책 속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본교의 <연학 독서프로젝트>는 독서-논술-토론 교육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계해 나감으로써 창의적 논리적 사고 뿐 아니라 학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영어 독서-논술-토론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현실적 욕구와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의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양성을 학교 독서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학생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가 상승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이루어 내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북카페의 활성화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고안, 독서-논술-토론이 연계되어 진학과 진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독서 교육으로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독서가 아닌 학교 전체가 책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1년 365일이 늘 학생의 참여를 기다리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독서 문화 풍토가 조성된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한발 더 다가가는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수요자가 만들어가는 맞춤형 연수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원훈
“교육흔, 교육애, 교육열”

글_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김 은 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원훈은 “교육흔, 교육애, 교육열”이다. 연수원 뜰 앞에 새겨진 ‘원훈’을 한 연수생이 “교육에 혼나고, 교육에 애탠고, 교육 때문에 열받는다.”라고 자기식 해석을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교육에 혼을 넣고, 교육에 애정을 갖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가르쳐야 한다”라는 원뜻을 벗어났지만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흔(魂) 애(愛), 열(熱)”은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마음 속에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미래를 향한 행복한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교육흔 · 교육애 · 교육열’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고품질 연수를 지향하며, 최고의 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25년간 전국 최고의 연수기관으로서의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며, 인천 관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리더 양성과 체험 중심의 학생

교육 실천의 자양분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교육의 변화와 정책의 빠른 흐름에도 발맞추어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연수 창출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과 연계한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직무연수 중 한결같이 평균 만족도가 94.8점 이상인 연수는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다. 우리 원의 주요 직무연수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연수과정으로 환영받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수요자가 많고, 인기 있는 연수로 부상하는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주제로 운영된다는 점과 연수원이 도심과 멀어 교통이 불편한 반면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교사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에 대한 학교현장의 교사 및 동

아리, 교과연구회 등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연수의 결과 만족도도 상승 효과를 낳고 있다. 차기 연도에는 우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7대 전략 중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무연수 다양화’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이외 ‘미래지향적 교육리더십 연수 강화’, ‘꿈과 끼를 살리는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연수 확대’, ‘대외 유관기관과의 연수 협력 강화’, ‘연수운영 지원체계 구축’, ‘연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중심 인프라 구축’도 주요 실천적 과제로 삼아 더욱 내실 있고 질 높은 연수 운영을 실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개인별 주제 선택형 맞춤형 연수”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연수(7과정)와 원격교육(674과정), 그리고 집합연수로 진행되는 직무연수 중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현재 2013년도 총 2,736명이 참여하였다. 초등 31과정(492시간, 873명), 중등 51과정(816시간, 1,275명), 초등영어(32시간, 300명), 중등영어(32시간, 288명)를 실시하였다. 지난해보다 1,000여명의 연수자가 증가하였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연수로 일선학교의 기대와 환영을 받고 있는 연수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개인별 주제 선택형 맞춤형 연수”로 매력적인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

수’는 점점 더 많은 수요자를 만들고, 그들의 교육력을 강화시켜 우리원이 바라는 “흔, 애, 열”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이 크다.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가 갖고 있는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라는 점이다.

연수원에서는 연초에 공모를 통해 학교에서 넘어온 계획서를 심사한다. 계획서가 연수원으로 오기까지 공모자들은 연수대상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최고의 강사진을 추천하여 공모에 임한다. 이후 공모된 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담당자 회의를 열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철저히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도가 완성된다. 따라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무조건 수요자의 요구만 맞춰주는 연수가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연수원에서 담당자에 의해 설계되는 연수도 아닌 진행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수원과 일선학교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로 완성도 높은 연수이다.

둘째는 연수 주제의 차별화와 다양성에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역량중심 자격연수, 전문성 심화 직무연수, 교육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수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연수, 다양한 주제의 원격연수로 이루어진다. 그 중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우리원에서 공모한 학교 및 교과연구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집합연수로 이루어지는 연수로 연수 장소가 다양하고, 연수의 주제 또한 매우 다채롭다.

참여 대상이 단위학교 교사, 교사동아리, 교과연구회 회원이기 때문에 공모한 담당자가 소속한 학교 교직원이 연수를 받기도 하고, 교사동아리와 교과연구회에서 공모한 경우에는 소속교가 혼합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해서 일선 교사들의 욕구가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로 많은 부분 충족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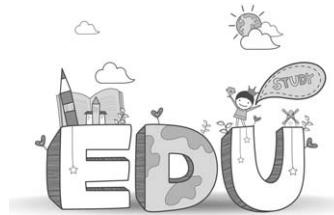
‘2013년 중등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의 연수 주제를 보면 ‘고위기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이해 및 치유를 위한 교원전문성 신장(인천해밀학교)’, ‘스마트교육 이행 및 교수·학습 설계(검암중학교)’, ‘스팀 교육의 실제 수업현장 적용을 위한 역량강화(중등서부기술가정교과연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중등녹색성장교과연구회)’, ‘상담힐링 테라피 프로그램(중등서부상담교과연구회)’, ‘수업혁신과 성장을 위한 수업성찰과 수업나눔(계산여고교사동아리)’ 등 대체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및 미래교육대비 역량강화,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연수 등이 많았으며, 수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도가 높은 체험 및 사례 위주의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셋째는 개인별 선택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는데 이중 ‘공모형 맞춤형 연수’와 ‘주제별 맞춤형 연수’ 두 종류로 나뉜다. 앞서 앞에서 언급한 연수는 주로 공모형 연수에 대한 특징이었다. 반면 ‘주제별 맞춤형 연수’는 이수시간, 이수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올해 5월경에 실시한 “중등 영어과 주제별 맞춤형 직무연수”는 한 과정 당 8개의 주제를 정해, 주제별(교수요목) 4시간 단위로 총 32시간으로 8주간 운영한 연수로 주제선택형 연수이다. 교사들은 이중 4시간에서 32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연수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마다 8주간 운영하면서 한 주에 4시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하는 주말에 신청하면 된다. 8주간의 모든 연수를 신청해서 듣는다면 32시간 이수증을 받게 된다. 5월에 실시한 연수의 총 이수자가 288명으로 원내 30시간 직무연수가 일반적으로 40명씩에서 운영된다고 했을 때 7과정을 운영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후반기(11월경)에는 매주 금, 토요일에 각 주제별 4시간 단위 총 8주제를 운영한다. 개인별로 선택형이기 때문에 연수생이 자신의 일정과 연수희망 과목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듣는다는 강점이 있어 매우 인기가 높다.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는 연수”

이처럼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는 연수이다.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3월초 인천해밀학교 마음빛 교사동아리를 출발로 해서 중등만 51개 과정을 지원하였다. 특히 인천해밀학교와 새로 개교한 일부 신설학교에서 전교직원이 함께 참여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인천해밀학교 진행 후 평가회의 소감에서도 “1주간의 연수(16시간)가 학생들의 상담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아 교사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만족도가 99점 이상이었던 2013년도 7월에 실시한 ‘친환경 DIY 가구 만들기’ 맞춤형 연수와 9월에 실시한 ‘RC비행기 제작을 통한 항공우주기술 역량 함양’ 맞춤형 연수에서도 연수 현장의 반응도가 매우 높았던 연수로 우리원이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를 일부 지원했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 결과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연수로 다음 연도에 중급 연수과정으로 공모할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인천해밀학교 맞춤형 연수 개강식



RC비행기 제작 교사동아리 맞춤형 연수



'친환경 DIY가구만들기' 교사 동아리 맞춤형 연수



인천계산초등학교 '숲생태 체험교육' 맞춤형 연수

"수요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새로운 교사 연수 모형"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연수는 올 평균 한 달에 8~9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는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특히 2014년도에는 주말 시간을 활용한 '주제별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와 공모제 '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주제자율형-위탁형, 체험형), (주제지정형-직무형)' 등으로도 운영할 것이다.

'행복교육, 배움과 나눔의 실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수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열정을 줄줄이는 안목과 실천적 사고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맞춤형 연수가 더욱 긍정적으로 파급이 되어 학교에서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를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수요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연수', '교육혼, 교육열, 교육애를 가슴으로 품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연수'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한걸음 진일보할 것이다. ◎



다시 찾은 배움의 시간, ‘글오름 학교’

- 계양도서관 ‘성인 문해 교실’ -

글 눈을 뜨게 하라! 성인문해교실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역사는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 상태였던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계 문해교육사에서 단하나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문해 국가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해교육의 역사가 60년을 흘러온 만큼 문해교육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문해’의 의미가 단순히 한글 읽기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잠재력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소외받고 못사는 사람들만의 문제쯤으로 치부되어 왔던 문제가 이젠 전사회적 문제로, OECD와 같은 선진국 모임에서까지 논의될 만큼 주목을 받는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2008년 국립 국어원 연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이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성인 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성인이 57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2년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약 140만 명으로, 어느새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글_ 계양도서관 사서7급 | 이 연 옥

구분	단계	문해력 정도	비율	인구수
문해력 부진	0수준 비문해자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음	1.7%	약62만명
	1수준 반문해자	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은 거의 없음	5.3%	약198만명

이러한 기초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에서는 교육에 비중을 두지 못 했을 것이다. 교육의 기회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소외 받거나, 때로는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 교육의 기회가 소수에게만 주어져 누군가는 배움을 포기했을 것이다.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 문해 교육 대상자도 포함되고 있다.

이에 계양도서관은 올 10월에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시범 지정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기초적인 문해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존의 정규 학교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평생교육기관에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 학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게 되었다.

계양도서관은 「평생교육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규칙 및 교육감 주요공약사항인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실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의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국어와 수학 및 체험학습으로 구성된 1단계(초등학교 1,2학년 과정)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와 접목하여, 학습의 즐거움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중도하차가 없도록 학습자와 수시로 상담하여 친밀감을 형성시키려고 한다. 각 단계 수업은 1년 과정으로 1단계 이수자에 대하여 향후 2, 3단계 진입이 허용되며, 이렇게 3년에 걸쳐 3단계 수업을 모두 이수하게 되

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력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즐거운 배움의 시작 ~ 계양도서관 글오름 학교 입학식



글오름 학교 입학식

지난 10월 2일 ‘글오름 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성인 비문해자들이 새로운 배움의 길을 출발하였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들은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그 동안 글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비치기도 하였다. 계양도서관 김계순 관장은 인사말에서 ‘비문해자’가 된 이유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이유가 크며, ‘문맹’이라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반백년의 삶 동안 자신의 ‘비문해’를 감추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오름 학교’는 단순한 초등학력 인정 문해 해득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요, 삶의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으로 환영 인사를 맺었다.



기울 현장학습

글오름 학교 교육 한 달, 삶에 찾아온 변화

처음 배움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한 어린 아이처럼 한 없이 여리고 주춤거리고 움츠러들기만 했던 어르신들. 세상에서 나만 글을 모르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감추려고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또는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세상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초급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보폭으로 시작했던 한 달 전. 글오름 학교 입학식 이후 한 달. 어르신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한 달 동안 어르신들은 다른 분들처럼 빨리 늘지 않는다며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뒤돌아서면 하얗게 잊어버린다고 낙심하시기도 하고,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자꾸 틀리게 된다며 마음 상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되돌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 서툴기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아시고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서로 대견해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 학교공부부터 야외체험수업까지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 신기함과 감사함을 표현하며 뛰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남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된다.

문해교육,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쁨

교육강사 김순혜

어떤 분이 늦게 공부를 시작한 어느 할머니께 물었다고 한다. 그 연세에 왜 공부를 하시냐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시지, 이때까지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배우려고 애를 쓰냐고.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죽어서 내 무덤 주소를 못 읽어 못 찾아갈까봐 그렇다고. 먼저 간 영감님 이름을 몰라 못 찾아갈까봐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글을 알게 되어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맘이 편하시다고……. 성인 문해 교실 강사 김순혜는 “처음 글을 배우고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내 이름을 쓸 때 가장 기뻤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흥분된 목소리, 또 일부러 걸어오시면서 간판을 하나하나 읽다보면 어느새 도서관까지 다왔다는 말씀에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배움의 기쁨이고 가르치는 보람이 아닐까 싶다.”며 성인 문해 교실의 분위기를 전한다.

앞모습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 꾸미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봐주지 않는 뒷모습은 그저 무심코 버려두기 일쑤라고 한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뒷모습은 진정한 내안의 모습과도 같다고 한다. 배움은 나의 뒷모습과도 같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 채워나가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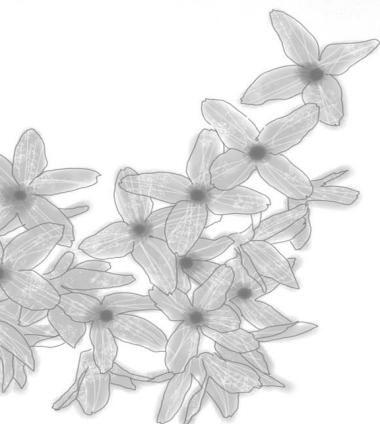
누가 봐주지 않아도 오늘도 열심히 나의 뒷모습을 가꾸고 계신 어르신들. 지금은 시작단계인 1단계이지만 2단계, 3단계 까지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서 시인이 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서는 대학교도 가고 싶으시다는 어르신도 계시다. 건강만 허락 된다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싶다는 분도 계시다. 다문화학습자들도 어르신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삶의 지혜도 배우고 한국에서 학력인증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들의 공부도 가르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 이분들에게 꿈을 드릴 수 있는 성인 문해 교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잠재울 열정과 의지를 꿈꾸며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나 눈보라도 이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시작이 두려운 높고 높은 산을 넘어 배움의 길로 들어선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깨치며 자신감을 갖고 삶에 당당해지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아직 문 뒤에 숨어계신 많은 비문해자들이어서 세상을 향해 문을 박차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Mt. Gwanak's Spring



Already I can't even see the remaining snow
The frozen mountain road was covered with earth
I smell aromatic spring
The end of tree branches shake.

In the quiet temple Sammak, many people walk
Tile by tile the roof-building offering is received
Buddha is filled with a charitable heart
He sits facing humankind.

Mountain slopes of meditation
The stillness is full of poetic inspiration
Landscape sounds are brought on the wind
Be awake to life's truth

At the road down the mountain from the temple YeomBul
It is the climax of selling land at the burial house
At the silent Mountain's sunny side
A heat shimmer was preparing for spring.



Dojeong Kim (Poet, Korea)

관악산의 봄

석정중학교 교사 김 도 정

잔설조차 이미 보이지 않고
빙판도 흙에 덮여버린 산길
향긋한 봄내음이
나뭇가지 끝에서 꿈틀거린다

발길 잣아도 고요한 삼막사
한 장 한 장 기왓장 보시받는
자비심 가득한 부처님
중생을 향해 앉아 있다

사색으로 가득한 산비탈
시홍은 적막 속에 가득한 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삶의 진실을 깨우치게 한다

하산 길 염불암에서
납골당 분양이 한창인 데
침묵하는 산 양지녘에서는
아지랑이가 새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치 있는 흔들림. 그래, 다시 일어서자!



글_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 문 아름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3월의 첫날!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많이 힘들 거야. 작년에도 이 녀석들 사건, 사고가 많았어.”, “힘내! 6학년 끌고 가려면 고생하겠다.” 주변 선생님들의 걱정스런 시선과 격려가 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3월 한 달 간 바짝 아이들을 잡겠다고 다짐하며 1년을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 첫 시작의 걱정과는 달리 뭔가 나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개인 상담을 하면서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하고, 가슴 아픈 사정에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 반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에 행복했다. “아,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구나!” 짧은 교직 경력이지만 여태껏 만났던 아이들보다 더 이 아이들에게 애착이 생겼다.



학기 초 개인 상담은 아이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현진이와의 상담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다. 현진이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4학년짜리 남동생을 돌보는 아이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도 집에 가서 아버지의 점심을 먼저 차려드리고 나오는 요새 보기 드문 아이. 그런데도 현진이의 표정은 늘 밝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런 건 없다. 만약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난 현진이처럼 밝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예쁘다. 밤늦게 까지 집안일을 하고 온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수업시간에 피곤해 하는 현진이지만 그런 현진이를 함부로 나무랄 수가 없다.

6월쯤, 우리 반에 한 번의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전담 시간에 누군가가 남학생 한명의 등에 볼펜으로 낙서를 한 것이다. 별 거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평소에도 그 남학생을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범인은 나오지 않았고, 급기야 아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지, 나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조건 범인을 잡아내야겠다는 오기로 아이들을 읊어 매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더 괴로워지는 건 결국 교사인 나였다. 하루, 이를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끈끈했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다른 것보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오랜 만에 만난 선배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 난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다. 선배님들은 토탁토닥 내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이런 조언을 하셨다.

“아름아, 중요한 건 누가 범인인가 아니야. 그 아이도 이젠 마음 속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거야. 그걸로 이제 된 거야. 그것보다 아이들과 다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 그래, 맞다! 괜한 오기로 내가 우리 반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또 한 통의 문자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우리 반 승민이의 문자였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반이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니 저도 속상하네요. 힘내세요, 선생님!” 문자와 함께 승민이가 보낸 노래는 지금도 즐겨 듣는 노래가 되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승민이는 내가 교사로서 힘들 때마다 마치 동료교사처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날 위로해주는 어른

같은 학생이다.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 하거나 지쳐 보일 때마다 격려의 말로 기운을 북돋워 주는……. 마음이 약한 나로서는 어쩌면 승민이가 나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가끔은 90년대 노래를 음성메시지로 하나씩 보내놓고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노래 듣고 기운 내세요!” 하고 말해서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올 한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승민이의 격려가 매우 컸고, 그래서 더 고맙다.

얼마 전에는 여자 아이들 사이의 문제가 있었다. 같이 잘 어울려 지내던 한 아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긴 문제였다. 여자 아이들의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상담을 여러 차례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 서로를 좀 이해해보자는 훈화를 몇 번에 걸쳐 해도 정작 들어야 할 녀석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매일 퇴근 후에도 아이들 문제로 힘들다는 내 푸념에 신랑은, 뭐 그렇게 자꾸 신경 쓰냐고,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라고도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자신을 괴롭하게 되고,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난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아직 어른이 덜 된 교사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6학년 사이의 미묘한 감정. 가끔은 내가 뭘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교사인 걸 어찌나. 어떨 때는 아이들과 꼭 연애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교직 8년차, 난 아직도 이 6학년들과 연애 중이다.

교사로서 짧은 8년을 지냈다. 그 속에서 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했다. 아직은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인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린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여린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하지만 이 흔들림은 교사인 나를 더 튼튼하게 한다. 더 큰 바람에도 끗끗하기 위한 고된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련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들을 ‘가치 있는 흔들림’이라 부르고 싶다.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져도 괜찮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이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시련과 갈등, 고민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흔들려야 할까? 이 시대의 청소년으로, 수험생으로, 그리고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 눈물 흘려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도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지만, 먼저 그 시절을 보내온 인생의 선배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늘 자신 있게 아이들을 향해 말한다.

“지금 많이 흔들려도 괜찮아. 더 단단해지기 위한 연습일 뿐이야. 선생님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걸.”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품에서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아쉽다. 시간이 여인다는 말을 문득 실감하고 있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말들로 멋진 끝을 장식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나의 2013년을 멋지게 장식해준 우리 반 24명의 보물들에게 졸업을 즙음하여 편지를 쓰며 한 해를 맺고 싶다.

24명의 내 보물들! 너희들은 징그럽다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한테는 보물임에 틀림없어. 너희를 만나서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 물론 힘들고 속상해서 너희들 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지만 이제는 추억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너희에게 난 어떤 선생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에게 너희는 최고의 제자였어. 때로는 친구처럼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같은 너희들이 있어 늘 든든했어.

1년이 너무 쉽게 지나가버렸다. 언제부턴가 졸업, 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었는데 헤어질 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더 많은 이야기를 너희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 많이 부족한 날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준 너희들. 고마워 많이.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많이 힘이 들 거야. 그래도 언제나 말했듯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거든. 너희가 겪게 될 수많은 일들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멋지게 마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먼 훗날,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있길 바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있길…….

건강하게 잘 지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 우리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



치유하는 연설가 교장



글_ 검단고등학교 교장 | 한 승희

교장이 되어 좋은 점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나는 연설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겠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로 펼치고 싶어서 못 배기는 편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욕망은 점점 커졌다. 세월의 풍파를 겪다보니 얼굴도 좀 뻔뻔스러워졌고, 생각도 고집스러워졌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점점 사람들에게 말을 늘어놓기를 즐긴다.

사실은 이런 내 욕망의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낡은 생각에 고착되고 새로운 생각에는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못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고, 당연히 연설은커녕 대화할 자리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자리가 마련된다 하여도 내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웠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자리를 찾지 못했고 마음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강팍해져 갔다. 그런데 교장이 되니 말을 할 수



교직원회의에서 연설하는 교장



가 있었다. 그것도 떡 하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모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들이 모두 자의로 모여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강제적이든 어쨌든 내가 말하는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다.

세상에!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혹은 수십 명의 지식 높은 선생님들이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니!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삶의 기쁨을 느낀다. 학생 조회에서 수백 명의 맑은 눈망울들과 마주칠 때 예기치 못한 흥분이 솟아난다. 교직원 회의에서 선생님들의 미소를 바라볼 때 한없는 만족감에 사로잡힌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준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자 나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혔다. 나를 치유해준 고마운 이들에게 멋진 연설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교장의 연설은 그저 지루하기만 한 이야기,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라 하풀이 자꾸 나오는 이야기, 훈계하고 당부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좀 짜증나는 이야기들이었다. 내가 또 그런 전철을 밟아 이 고마운 이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자면 내 연설의 방식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했다.

교장이 되어 처음 연설할 때에는 좀 횃설수설을 했다. 그러나 하루 이를 지나면서 내 연설 솜씨도 무르익어 갔다. 나는 더욱더

잘하고 싶어 내 연설을 녹음하여 들어보며 교사가 수업 개선하듯 연설 방법을 고쳐가기도 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설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생각이 짹트게 되었다. 나의 연설은 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듣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즉 나의 연설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아닌 학교장으로서의 연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은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장의 행위였다.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은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교장으로서의 연설을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치유의 행위’로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작년 학생조회 때의 일이다. 미리 방송부원들에게 내 연설 중에 신호를 보내면 음악을 틀라고 했다. 운동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나는 연설의 내용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각본을 짜서 어느 순간 기

어코 음악을 쏘았다. “여러분 이제 짧은 음악 하나 들어볼 겁니다. 음악 큐!” 하는 순간 운동장에는 리하르트 시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주 부분이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불과 2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시간은 정지하고 운동장의 모든 공간은 음악으로 채워진 듯한 순간이 흘렀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음악을 틀어 주던 장면들과 흡사했다고나 할까? 나는 이어 이 음악을 듣고 어떤 상상을 했는지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용했던 운동장은 삽시간에 시끄러운 시장바닥 같이 되었지만 한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기다렸다. 예기치 못한 교장의 연설 방식이었다. 본래 창의성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연설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런 새로운 연설 방식은 그날 이후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또 다른 시도를 해 보았다. 매번 교장이

혼자 연단에 서서 연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을 도입하고 싶었다. 운동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 모두와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생 대표 3명을 연단 위로 초대했다. 물론 사전에 그들과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나는 스승의 날에 즐음하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해석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는 진행 방식에 비중을 두었다. 교장이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장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상투적인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날 진행한 내용 중 일부이다.

교장 : 오늘은 학생들과 고대 그리스 방식으로 대화하듯이 조회를 하고 싶어 학생회장단을 이렇게 연단 위에 불렀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옛날의 군사부일체 같은 말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 A군은 군사부일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학생A : (군사부일체의 뜻에 대해서 말한다.)

교장 : 분명히 오늘날 사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각이 지난 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 B군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학생B :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교장 : 이걸 보고 사람들은 사도가 땅에 떨어졌느니, 사제 간의 정이 옛날만 못하다느니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보다 솔직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 C군은 오늘날 사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C :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지난 9월의 마지막 날 학생조회 때는 연설에 앞서 학생들 모두를 뒤로 돌게 하여 고개를 들어 가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문했다. 학생들은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트렸다. 개인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감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교생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특별했다. 우리 사회는 다수가 모이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사회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일까?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는 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재킷

는 효과가 있다. 아마도 학생들은 나의 가벼운 권유에 의해 새로운 치유의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또 이날 연설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연설하는 동안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이 모두 잘 듣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략 20% 정도의 학생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산만하게 떠들거나 장난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향해 나는 이렇게 외쳤다. “지금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책망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뒤쳐지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말을 하자 학생들에게서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해진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을 나무라며 제지할 줄 알았는데, 교장이 호통을 치고 선생님들이 달려와 벌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니, 이런 낯선 방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낯설음은 신선한 공기를 불러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치유의 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교사들과의 만남은 학생들과는 또 다른 방식의 연설이 필요했다. 학생들에게는 연설 방식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내용이 보다 중요했다. 교사들은 학생들보다는 훨씬 경청을 잘하는 우리 사회 지식인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일주일 내내 교직원회의 연설의 화두를 잡기에 골몰해야 했고, 인상 깊은 문구나 지식을 갈무리해 놓기에 바빴다. 작년부터 교직원회의에서 던진 화두를 뽑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소통은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최선의 만병통치약이다.’
- ‘우수한 조직은 고통을 분담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선생님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자.’
- ‘먼저 관용을 베푼 자에게는 징벌할 권리가 생긴다.’
-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연히 학생도 행복해진다.’
- ‘수업을 통해 힐링 하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치유의 숲으로 만들자.’
- ‘교사 일방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해 불행하다.’
- ‘불완전은 완전의 상위 규범이다. 상식은 작업복 입은 천재다.’

대부분 교육이나 조직 경영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나는 늘 이런 것들을 대국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에 대하여 교장이 감내라 대주내라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런 교장을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교사들을 전문가로 대접해 주고 싶었고, 보다 크고 균원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더 일깨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교장의 연설은 어떤 때는 철학적 애세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육 세미나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쓰는 어휘들도 일부러 매우 지적인 것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고, ‘포스트페미니즘’ 같은 단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책 이야기를 일부러 많이 했고,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교사들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며 말이다.

한편 교직원회의는 자주 열리므로 교장의 연설은 매 회마다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연계를 이루어야 했다. 이를 위해 나는 화면에 이미지와 시 한 구절을 띄워놓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나의 연설 포맷이 일관성을 띠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매 회마다 이미지와 시 구절을 바꾸었는데 교직원들은 ‘오늘은 어떤 것일까?’하고 기다리게 되었고, 그것은 나의 연설이 연속되는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 유머나 농담 등도 필요했다. 사람은 묘해서 긴장을 주면 이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완을 주면 긴장한다. 월요일 교직원회의에서 한 주를 긴장하여 시작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완을 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긴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갖는 것이다.

교장의 학교 경영 업무 중의 하나인 연설이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상쾌한 삶의 활력소를 가져다준다면, 마음 속 불만이나 괴로움을 치유해준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장의 연설이 지겹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치유의 연설가 교장이 되려고 노력한다. ◎



회의 때 띠운 이미지와 도종환의 시



향수- 6월 | 23x47 한지 위에 채묵 2011



그림_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창 구



청솔바람 | 48x28 광목 위에 수묵



산 그리움 | 34x47 한지 위에 채묵 2011



들판에서 | 한지 위에 채목

‘교육의 종말’과 학교교육의 가능성



글_ 계산고등학교 교사 | 김 범석



인본주의자 닐 포스트먼과 「교육의 종말」

닐 포스트먼(1931~2003)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뉴욕대 교수로 40년 이상을 재직했던 미디어 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기술이 참된 인간적 가치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다. 『교육의 종말』은 1983년 ‘위기에 처한 나라(A National at Risk)’ 보고서 이후 지속된 미국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의 생애 마지막 저서다.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박람강기(博覽強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보는 통찰력,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해 주는 유려한 비유는 이 책을 읽는 큰 매력이다.

교육 ‘종말’의 중의(重義)적 의미

지금까지 논의된 학교교육 종말론의 유형은 거칠게 나누면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적인 입장으로 학교교육의 비형평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입장을 넓게 ‘탈학교론’이라 부를 수 있다. 자발적 퇴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하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학교교육의 비효율성을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은 거칠게 ‘시장주의 학교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학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학교를 재편하고자 한다. 학교 선택제, 차터 스쿨, 바우처 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교적 의미에서 '종말'은 공포 자체다. 모든 것이 소멸하고 최후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종말론'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에스케탈로지(eschatology)'다. 그러면 원제의 'end'를 '종말'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적 비판론이 만연한 세태를 반영한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전적 의미로 'end'는 '종말' 이자 '목적'이다. 안타깝게도 국어사전에는 'end'의 중의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목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의미 있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결국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다. 이에 대해 포스트면은 서문에서 매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교육개혁이 주로 수단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면서 목적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기능공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비유한다. '왜'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어떻게'만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면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학교의 세 가지 역할 – '신'은 살아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포스트면은 교육에 있어 '신(god)'과 '교리(narrative)'를 복권시키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과 '교리'를 '신화'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일련의 줄거리를 가진 언어 서술체(narrative)가 바로 신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신화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이다. 신화는 집단 성원들에게 진실하고도 신성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이다. 포스트면의 주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교육에도 신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포스트면이 말하는 신이란 바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다양한 교육목적들이다. 물론 맹신(盲信)이나 광신(狂信)은 사절이다. 포스트면에 의하면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학적 접근법과 철학적 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 문제는 공학적 측면에 지나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면은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관점을 통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포스트면이 보기야 미국에서 학교(공교육)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선 학교는 토크빌이 말한 미국의 '위대한 원리'인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고 절차를 실험하며 논쟁하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또한 학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통합된 문화와 공동체적 유대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문화적 다원주의의 토대가 된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미국의 역사에 거시적 그림을 제공하고 미국의 신념을 확고히 하며 계층 간의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지 않게 해 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미국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적

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 혹은 나쁜 신을 올바른 신 그리고 좋은 신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확한 학교교육의 목적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목적이 없는 학교는 배움터가 아니라 수용소이다. 그러면 포스트먼이 생각하는 미국 학교교육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나쁜 신화의 정체를 살펴보자.



미국 학교교육의 네 가지 ‘나쁜 신화’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은 학교교육을 사회문제를 해결할 일종의 만병통치약(panacea)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먼이 보기에 학교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는 도구적이고 공학적인 신화들로 넘쳐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네 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가치의 신화이다. 이 신화는 학교에서의 성공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유포한다. 둘째는 소비지향의 신화이다. 이는 무비판적인 현실 순응의 자세를 낳음으로써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상업주의 이데올로기에 학생들을 노출시키게 된다.

셋째는 기술지상주의의 신화이다. 기술지상주의는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맹목적 믿음, 의존, 동일시를 강화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기계적인 사고와 단편적인 문제해결능력에만 익숙하게 되었다.넷째는 분리주의의 신화이다. 이 신화는 문화적 다원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며 다른 집단과의 융합을 통해 공존 할 수 있는 관용과 존중의 태도를 길러주기보다는 집단의 편견과 독단만을 조장하여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스트먼의 대안을 살펴보자.

종말을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좋은 신’

포스트먼은 2부에서 위에서 말한 미국 학교교육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네 가지 잘못된 신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대안적 신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종말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교육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우주선 지구호’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이 대안은 한마디로 ‘지구인’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학생들은 상호 의존과 전지구적 협력을 생각하며 동시에 인간성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더 이상 한 민족이나 인종,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세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먼은 고고학, 인류학, 천문학, 외국어, 비교종교학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는 편견과 독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오류와 실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추락한 천사’란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추락’은 오류 가능성 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천사’란 그러한 결단 후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진리 선포자’가 아니라 ‘오류 감지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당화주의(legalism)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 간의 토론과 논쟁의 가능성 을 중시하는 것이다. 미국 역사는 건국 이후부터 개인의 자유, 타인에 대한 인정, 공동체의 통합, 무상교육, 기술발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의 역사이다. 더욱 발전된 미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논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았다. 건국 초기부터 만들어 왔던 이러한 역량을 학교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다양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호공존과 통합의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양성은 미국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궁극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다양성에 대한 왜곡과 분리주의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언어를 받아들인 영어의 발전 과정은 다양성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다양성의 법칙은 우리 모두를 지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다섯째는 인간과 세상을 만드는 언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언어는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게 해 준다. 은유, 정의, 질문, 상징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주된 수단이므로 학교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통 가능한 인간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언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교육에 던지는 시사점 –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

포스트먼은 서문에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에 관한 책을 출간하는 이유를 미국 교육의 위기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의 종말』은 미국의 학교교육 상황이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 교육은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미국의 교육제도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학교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 대한 특별한 강조도 유사하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미국에서 학교교육의 역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학교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다양성 보장의 근간이었다. 한국 또한 학교교육은 그동안 사회, 정치 및 경제 발전의 토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 교육의 역사는 교육개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한국 교육개혁 정책들은 일정한 시차가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 '다른 산에 있는 거친 돌도 내 옥(玉)을 가는데 소용이 된다.'는 말이다. 다른 산에 있는 거친 돌도 나에게 소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산의 옥(玉)임에랴. 경제중심주의, 지나친 소비지향, 기술적·공학적 측면에의 경도, 분리주의와 같은 미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포스트먼의 진단은 한국 사회에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종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끝으로 포스트먼의 생각을 관통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실제적인 근심이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나는 일반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강한 신념을 갖고 이 책을 쓰고 있다. 나에게는 학교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더 나은 배움의 세계로 이끌고, 더 나은 시민대중을 새롭게 창조할 방법을 아직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믿음이며, 유년기 없이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년기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p. 256) ◎



그와 함께하면...



글_ 신송초등학교 교사 | 남 유 미



드디어 며칠 전에, 오래 전 읽다가 팽개쳐 두었던 카잔치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 읽었다. 왜 그리도 문인들, 글 줄이나 읽는다는 지식인들이 자유로운 영혼 ‘조르바’라는 인물에 열광하는가 궁금해왔다. 그런데 책 속에 바로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와 함께하면 일이 포도주가 되고 노래가 되어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인천교육 48호』를 읽으면서 바로 생생한 배움의 실천을 하고 있는 조르바 같은 매력적인 선생님들을 만났다. ‘STEAM이 뭐야?’, ‘스토리텔링의 확장적 의미는 뭐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심리학의 기저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거야?’라고 책만 뒤적이며 고민하고 있던 빈약한 나의 팔과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순간이었다.

‘교육이란 사랑이다!’라고 이상복 연구원장님이 잔잔히 화두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철학이 녹아들어서인지 기획특집은 사랑을 근간으로 한 진정한 배움의 모습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사례로 감동을 주었다. 먼저, 〈기획 특집 I〉 ‘잠자는 교실을 희망의 교실로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편에서는 사토 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 진정한 교실의 변화, 수업의 혁신을 위해 자신의 교실 문을 기꺼이 활짝 열어젖힌 멋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사례로 접할 수 있었다. 사실 사토 마나부의 저서는 몇 년 전에 거의 사서 읽었었다. 책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엔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연결 짓기와 되돌리기를 통해 수업을 디자인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을 가르쳤나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나의 의미로 수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옳다면, 지금의 수업실기대회나 임용고시에서의 수업시연, 수석교사 선발용 지침 등 뒤집어져야 할 해묵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획 특집 Ⅱ〉에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 사례로 작전초의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하이텍고등학교의 ‘진로교육사례’, 고잔고의 ‘사할린 동포 자서전 써주기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등이 소개되었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효과를 보면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인성교육의 긍정적인 방향을 보았다. 우리 학교, 우리 교실에서도 시도해 보고 싶은 사례들이었다. 고등학교의 사례는 초등학생들과는 좀 동떨어진 사례였으나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진정성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세대와 경험이 전혀 다른 어르신의 자서전을 함께 쓰면서 얻은 것들에 대해 쓴 학생들의 소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진정한 ‘배움’이고 핵심 역량을 기르는 ‘체험’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개원 30주년 기념 특집〉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선배교사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열정들은 지금 현장의 후배교사들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현장 르포 한누리 학교 방문기’나 ‘청라 달튼 학교 수업참관기’, 그리고 연성중의 ‘프로젝트 수업사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묵묵히 사랑으로 오랜 시간 교단을 지켜 오신 원로 선생님과의 파워인터뷰는 따뜻한 관계 맷음이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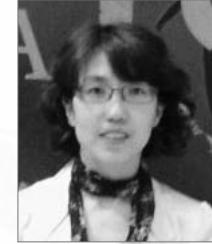
평소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교육현안과제의 이해〉편에 소개된 글들이 많은 생각의 편린들을 제공했다. 핵심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의 성취기준과 성취평가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창의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정착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개를 주억거리게 만들 정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되는 개념들이 현장에 녹아들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거부반응들이 있을까? 그리고 핵심역량

과 성취기준,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장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의인성모델학교의 연구부장으로서 2년간 여러 가지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고군분투했던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 교사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은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핵심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교육방법과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를 완전히 새로운 인식하에 혁신해야 한다. 그야말로 ‘혁.신.’이다.

하지만 「인천교육 48호」에 소개된 많은 열정적인 교사들의 사연이 파문처럼 번져간다면 교실의 변화, 수업의 변화, 무엇보다 교사들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가능성의 자잘한 파문들을 앞으로도 「인천교육 48호」가 생생하게 구석구석 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현장의 면면을 보여준 「인천교육 48호」는 나에게 ‘힘들고 고된 교사로서의 시간들을 포도주가 되고 노래가 되어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 보다 더 멋진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



처음처럼 열정 있는 교사를 꿈꾸게 하는 책 **「인천교육」**



글_ 인화여자중학교 교사 | 문 지 정

교실 붕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단어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듣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그러한 현실의 교실(그나마도 미화된)이 뉴스로, 드라마로, 다큐멘터리로 등장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설마 했던 물음표들이 느낌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여기저기서 학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들로 돌아오고 있다. 그 현장에 선생님으로 있는 나는 나에게 또 다른 물음표를 던져본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까?’

16년간 단 한번도 연구부 업무를 처리해본 적 없는 나에게 부장으로써 처음 주어진 부서가 바로 연구부였다. 처음 맡게 된 학교경영계획서를 놓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막막했던 그 때, 책장에 꽂혀있던 「인천교육」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현 교육의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 다양한 기획 특집 내용이 실려 있는 「인천교육」에서 한해 동안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과 특색 있는 교육활동 계획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비로소 알찬 학교경영계획서를 완성해내며 「인천교육」과의 행복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인천교육 48호」의 기획 특집-I (잠자는 교실을 희망의 교실로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

에서 수업 혁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즐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꿈꾸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스스로의 수업 습관과 이로 인해 떨어지는 자신감으로 남모르는 고민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기획 특집을 통해 사토 마나부의 저서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에서 알게 된 경험과 더불어 공동체 수업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질 높은 수업을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진 공동체 수업은 현장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동료성을 기본으로 한 선생님의 전문성 향상으로 밑으로부터 학교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에 우리 학교 내에서도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며 배워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 연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남궁숙 선생님의 ‘배우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글에서 아이들을 믿고 모둠활동 중심의 탐구 활동 수업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기획특집-Ⅱ(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의 '솔선, 동행, 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프로그램'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천작전초등학교의 언어문화개선플랫폼이 소개되어 있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고운 말 사용을 솔선수범한다는 '윗물-아랫물 프로그램',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선생님이 들려주는 '사랑의 언어 주간', 매주 화요일 매체 사용을 지양하고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자 운영한 '미디어 프리데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 이야기'에 선 지역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질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고, 다양한 진로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학교를 자랑스러운 학교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무척이나 공감되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었다.

'교육 현안 과제의 이해'에서는 미래 사회의 교육은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길러주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학교는 성취수준을 중심으로 실천 능력을 키우는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생님은 평생 학습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갱신해 나가고, 동료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용어인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었고, 현재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선생님·학생·학부모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우수교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해가 갈수록 생겨나는 새로운 물음표들. '내가 언제까지 교사로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웃고, 얘기하며 수업할 수 있을까?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는데, 난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교사로서 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할까?' 그런 나에게 정인숙 선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보석 같은 시간-학습연구년제'는 정말 보석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다. 더불어 우리학교 수석교사님의 도움으로 여러 학교교육활동을 추진하며 수석교사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글을 맺으며 처음에 했던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해보려 한다. 지금은 많은 교실에서 사라져버린 교단, 아직 나는 교단 위에 처음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던 그때의 설렘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열정이 식어갈 때도 있지만 학생들의 변화에 마음을 열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 그 소망은 진행형임을 잘 알고 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전문가로서 나 스스로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느낌표를 찍어본다.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이야기, 생생하고 참신한 교육 활동이 함께 하는 교육전문지인 「인천 교육」을 통해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의 열정을 다시 꿈꾸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행복

세상이
준 행복
그건 너야~
난 너무
행복해

한빛 이정구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ch Institute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10 (운서동 542)
TEL : 032-751-8100
FAX : 032-880-0788

